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38 / 광고국 : 732-152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8월 2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5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무너진 원로권위

지난 6월 있었던 조계종 원로의원 모임. 이 자리에서 지난 해 조계종사태 초기에 원로들이 외견을 모았다면 온세계에 불교를 망신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원로들 스스로 지혜에 밝지 못했다는 자탄이 배어 있었다.

이날 모임의 얘기가 아니라도, 최근 원로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원로급에 속한 스님들에게서도 그렇고,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도 원로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걱정의 소리가 나온다.

원로는 덕행이 높은 연장의 스님을 통칭해서 부르는 존칭이다. 장로(長老)라는 말과 함께 쓰이지만, 요즘은 원로라는 표현이 더욱 익숙하다. 〈아미타경〉 등의 경전을 보면, 비구계 수계 이후 20년을 장(長), 나이가 많은 것을 노(老)라 한다.

원로의 지혜와 고견 승가 운영 주춧돌

원로의 권위 추락은 우리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며 겪었던 가족해체, 공동체가 붕괴되는 흐름과 유형을 같이 한다. 수행과 법맥이 중심이었던 불교가 지금은 사찰 경제력을 지닌 주지, 행정 중심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했다.

행정 중심은 자연히 효율성이 미덕이라는 유혹에 빠지며, 여러 의견 특히 원로들의 경험과 수행에서 오는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걸림돌로 인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행 중심의 교단이 되지 않고는 원로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원로들 스스로 권위를 찾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계종사태 당시 많은 불자들은 종단이 원로들이 나서 잘잘못을 가려주길 원했다. 그러나 원로들도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으며, 이는 결국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사회가 그렇듯 불교도 연령층과 다양한 의식간의 충돌과 상호영향으로 발전한다. 더욱이 한 집단의 중심인 원로를 잃어버리면, 그 손실은 집단 전체에 미친다는 자명한 사실을 곱씹어봐야 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인터넷 전자문화지도 펴면
한국불교 보인다

이카이 코리아, 서울지역 사찰등 전산화 작업중

세계의 모든 불자들이 인터넷 전자지도를 펼쳐 놓고 한국불교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결성된 '이카이 코리아(ECAI Korea · 팀장 이혜은 동국대교수)'가 불교를 비롯 한국의 전통문화를 디지털(digital)로 제작, 인터넷 전자지도에 게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카이(electronic culture atlas information)는 96년 루이스 랭카스터교수(미국 버클리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세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예술, 전적, 불교, 생태학, 철학을 시대별로 전산화 · 지도화하는 범세계적인 규모의 협동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일본, 중국, 남아시아, 러시아, 실크로드등 13개 나라와 단위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이카이 코리아는 98년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개최된 3차 대회에서 결성됐다.

이혜은교수는 "인터넷 전자문화지도는 디지털로 가공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를 제공하게 된다"며 "불교학 · 철학 · 지리학 · 역사학 등 모든 영역의 성과물이 응집되는 사이버 대작불사로 포교 · 교육 · 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카이 코리아는 서울에 분포하고 있는 1천4백30여개 사찰과 궁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 · 무형의 문화 · 문화재를 정확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하는 한편 동영상, 그래픽, 음성정보, 텍스트 등의 자료를 전자지도에 옮기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혜은 · 성효현교수가 전산화하고 있는 이 정보는 인공위성을 이용, 정확한 경도와 위도를 산출해내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문화지도를 제작하고 있어 기존의 지리 정보와 비교해 한차원 높다는 평이다. 내년 초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일반 네티즌들의 포교 · 교육 자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승(高僧) 및 설화 · 민속극 · 판소리 · 무속과 같은 문화예술자료 전산화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전산화 작업에는 팀장인 이교수를 비롯 김흥규(고려대), 심재룡(서울대), 윤이흠(서울대), 조성택(미국 뉴욕주립대), 진월스님(동국대)등 11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 성과물이 크게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의 소요될 예산규모는 총 1백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학술진흥재단과 정보통신부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해 놓고있다.

이혜은교수는 "이카이 코리아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의 중심축은 불교이지만, 대장경을 재외하고 전산화된 불교자료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등불로 다시 오신 만해스님

만해 한용운스님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만해축전이 만해학의 고향 설악산 백담사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연인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5 · 16일 양일간 '만해문학의 세계적 인식'이란 주제로 열린 만해학국제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프랑스 캐나다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 만해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조명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인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개막식 법어를 통해 만해축전이 새로운 세기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발원했다. <관련기사 9면>

사진=고영배 기자(ygo@buddhapia.com)

中信會회장에 백창기씨 선출

단일후보 찬반투표 의결정족수 '논란'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대 회장에 백창기(67 ·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씨가 선출됐다.

중앙신도회 선관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일 조계사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단일 회장후보인 백창기씨에 대한 추대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170명 가운데 찬성 86표, 반대 80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백창기씨가 신임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중앙신도회 회칙 제18조의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 조항에 따르면 출석 대의원 196명중 86명만이 추대에 찬성,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해 회장 선출은 완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장 선출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백창기씨

부천 석왕사 재적신도인 백창기 신임회장은 55년 전북대 수학과를 졸업, 59년 해병 중위로 예편했으며 60년 한양여고 · 한양공고 수학교사를 지냈다. 69년 한양개발(주) 상무이사, 94년 대도개발 대표를 역임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그린벨트 해제 절대 안된다"

조계종 · 재가연대등 5개단체 반대운동 펼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조계종사회부 재가연대 도농공동체 운동본부 전국불교운동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등 5개 단체는 18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실무자회의를 갖고 연대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교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사찰인근지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불교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당사찰 교육을 강화하고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과 연대하여 활동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 관련 정부주무부처인 건교부 앞 소단위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한 홍보작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 진관사 등 전국 59개 사찰이 개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친환경적 사찰만들기' 공청회

사찰환경대책위, 9월15일 조계사서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공동대표 성조)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9월 1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친환경적 사찰만들기'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친환경적 사찰만들기 공청회는 최근 들어 사찰환경 침해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분별한 허가 남발, 사찰인근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전통사찰보존법에 삽입하는 방안 마련과 오배수 시설 설치와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원우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9월 : 희양산문(봉암사) · 대승사 · 김용사

9월에는 지증선사 도헌스님(824~882)에 의해 개창된 희양산문의 중심도량 봉암사를 찾아갑니다. 봉암사에서는 지증대사 부도(보물 제137호)와 삼층석탑(보물 제169호)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오백년 고찰 대승사에서는 희귀한 목각탱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서옹 · 성철 · 서암스님등 조계종 종정 세분을 배출한 김용사도 참배합니다.

특히 1982년 조계종 특별수도 도량으로 지정된 봉암사는 1년에 15일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이번 기행은 봉암사를 참배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봉암사 '일년 중 15일' 일반에 공개

◇출발 : 9월 4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안내 : 자광스님(김용사 주지)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윤장대(보물 제684호)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용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운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청 안 합장

• 입 재 : 1999(불기2543)년 10월 17일(음 9월 9일)토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1999(불기2543)년 10월 26일(음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5:10~6:30, 40분간격)
3시간 1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서울 ⇒ 예천)대한항공 오전 8시 45분 오후 5시
아시아나 오후 4시
(예천 ⇒ 서울)대한항공 오전 10시 10분 오후 6시 30분
아시아나 오후 5시 20분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 등(1인1등) 10,000원 • 영가 위패(1위당) 10,000원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우 체 국 : 702191-0016235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운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사 설

조계사 성역화 '후회없게'

조계종이 총본산 조계사를 위상에 걸맞는 공간으로 가꾸겠다는 계획은 원칙적인 면에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대작불사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확정했다. 이 설계안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조계사는 그동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신행공간으로 그 모습을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계안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조계사를 '절답게' 꾸미겠다는 것이다. 조계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지만 외형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웅장한 법당 한 채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이 찾아 왔다가도 실망만 안고 돌아가기가 예사였다. 이는 물론 도심의 땅값이 워낙 비싸서 공간확보가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절을 절답게 가꾸려는 의지가 부족한 탓이었다. 이번 설계안은 우선 이러한 아쉬움을 보상할 구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 한가지는 조계종의 행정기구인 총무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건물은 낡고 협소한 데다가 바로 법당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관에도 좋지 않았다. 더욱이 여러 차례 분규에 휩싸이면서 마치 '종단 싸움'의 상징처럼 흉물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설계안은 이런 점을 유념해서 사찰공간에서 멀찍이 떨어진 위치에 법당보다 낮게 짓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은 성역화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선정돼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곧 착공에 들어갈 모양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계안에 대해 이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적 안목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 설계안이 일반불자의 기대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가장 큰 이견은 총무원 청사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것이다. 몇년전부터 조계종이 총무원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구상이 나왔을 때부터 불자들은 기왕에 하는 대작불사라면 좀더 큰 회관을 지어서 총무원은 물론 불교의 기관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입주하여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불교회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번 설계안에는 이러한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한가지는 현재 법당 건물을 그냥 놔둔 채 공간배치를 하다보니 좌우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법당 앞으로 부속 전각을 짓겠다는 계획은 설계안만으로도 대지가 부족해 보인다. 또 그같은 공간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 들리는 말로는 법당을 이전 못하는 것은 풍수적(風水的) 이유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문도 있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만약 그런 이유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안된다면 이는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계사 성역화는 단순히 조계종의 총본산을 새롭게 단장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불교가 미래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중생 곁으로 다가갈 것인가를 상징하는 사업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적 안목이나 이해보다는 미래적 안목과 의욕을 담아야 할 터인데 이 점은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착공까지는 아직도 약간의 시간이 있으므로 좀더 연구하고 토론해서 후세에 넘겨주어도 자랑할 만한 불사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모두 우리자식입니다

선원 안거이력 전산관리

조계종, 법계제도·승려노후복지 자료로

'선원총람' 연말 발간

그간 비밀스런 공간으로 남아있던 전통선원에 대한 조계종 차원의 현황 파악과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지종풍의 선양과 선원 수행대중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한 승풍진작을 위해 전국 선원(총림 5, 비구 43, 비구니 37, 국제 2곳 등 87곳)의 안거 결제 대중의 명단(용상반 등재 기준)을 취합해 종합적인 전산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승려법' 제37조의 '선원 또는 수도원의 장은 안거성만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15일이내에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증법 조항을 뒤늦게나마 적용하게 된 수행이력 관리방안이다.

교육원은 이에따라 전국선원 수좌회와 총무원 총무부의 협조아래 △조계종 87개 선원(선학원 포함) 용상방에 등재된 대중명단(매번 2천여명 결제) 취합 △전국선원수좌회의 〈전국선원 정진대중 명단〉 발간 지원 △안거 성만자의 수행이력을 종합 전산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준비중인 〈선원총람〉 발간 사업과 연계돼 그간 기초자료가 전무했던 전통선원의 역사와 현황파악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올 연말에 발간예정(현재 70% 진행)인 〈선원총람〉은 역대 선사행장, 선원연혁, 선맥도, 주요 선사 결제법어, 관련 문헌 및 사진자료 등을 갖추어 선원의 역사와 전통, 운영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갖추게 된다.

〈선원총람〉 발간은 한국불교의 선 수행 전통을 자료로 집대성해 선풍 진작을 도모하고, 조계종의 법통과 종지의 상징인 전등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종단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선원 안거 성만자 관리방안과 관련 교육원장 일면스님은 "이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법계제도 및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종단이 선원과 안거 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선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임시종회 9월13일 열기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18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제142회 임시종회를 9월 13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후 종회사무처장 영배스님은 "142회 종회에서는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인준, 원로회의법 등 종법개정 등 지난 종회에서 이월된 안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배스님은 또 "청림회 일여회의 141회 종회 불참과 성명서 발표는 9월 종회를 여는 데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해 청림회 일여회가 제기한 동국학원 이사후보 재추천 요구에 대해 의견접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장 법등스님과 사무처장 영배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영담스님, 포교분과위원장 지홍스님, 호법분과위원장 대원스님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사서실장-성조스님 재무부장-자승스님

조계종, 20일 부장급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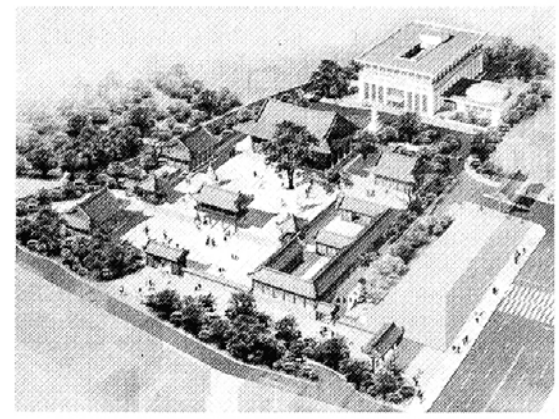
◇자승스님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0일 사회부장 성조스님을 사서실장, 자승스님을 재무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총무원 부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총무 원택스님과 기획실장 만성스님, 호법부장 종고스님은 유임됐으며, 문화부장에는 재무부장 일철, 사회부장에는 문화부장 양산스님을 임명했다.

자승스님은 정대스님을 은사로 용주사에서 출가했으며, 동화사 강원 대교과 졸업, 74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영월암과 수원포교당 주지, 10대 종회의원 및 종회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 연주암 주지.

정성운 기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설계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일건건축의 조계사 및 총무원청사 조감도.

해인-송광-영산-금강율원 계율전문 교육기관 인가

조계종 "사미의제 안따르면 비구계 안준다"

조계종은 종단 공식 율원 4곳을 처음으로 인가했다. 또 사미의제에 따르지 않는 사미승에 대해서는 비구계를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원은 19일 교육원장 일면, 교육위원장 법산, 교재편찬위원장 무관, 역경위원장 장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해인율원(율원장 혜능) 송광율원(율원장 지현) 영산율원(율원장 철우) 금강율원(율원장 묘엄) 등 4개 율원을 계율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했다.

이날 교육원회의에서는 사미·사미니 의제 전면 실시, 학사 기본교육기관 학사관리 개선책 추진, 졸업고사 실시 추진 등 승가 기본교육 진흥 종합대책안도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전국전통강원학인연합이 사미 의제 실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교육원은 승가위계 확립과 승풍 진작 차원에서 승가대학(강원)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기초선원 등 20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미·사미니의 의제를 강력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직자 및 학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제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총무원 호법부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실사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종단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보류, 의제 미착용 사미·사미니에 대한 각종 증명서류 발급 중단, 식차나마니계, 비구·비구니계 수계산림 서류 접수시 의제 착용 의무화등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설계자 일건건축 선정

11월경 착공예정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6일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지명설계에 응한 4개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설명회를 열고 일건건축(대표 황일인)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관련인터뷰 4면〉

심사위원인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은 발표를 통해 "일건건축의 설계작품이 종교건물로서의 장중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잘 살렸다고 심사위원 전원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총무원장 고산스님(위원장), 종회의장 법등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 이규목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이인섭 동국대 건축과 교수(건축계획 전공), 김규석 동국대 건축과 교수(구조 전공), 조진구 강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장충식 동국대박물관장 등 8명이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조계사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종단이 안정됐으므로 대웅전은 옮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건건축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총본산으로서의 상징성과 녹지공간의 확보를 통한 자연주의 표현, 조계사-총무원-불교회관의 영역별 독립공간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 설계에 임했다"고 밝혔다.

기본설계가 마련됨에 따라 총무원은 시공업체 선정,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중 착공식을 거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계획 본지 218호 1면 참조〉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조계종, 스님 대상…9월부터 석달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체계적인 포교교육의 정립과 포교전문인력 양성 및 포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9월6일부터 석달간 스님을 대상으로 포교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처음 실시한다.

교육은 9월9일부터 11월26일까지 매주 목, 금요일 오후 2-4시에 실시되며 교육대상은 본말사 및 도심 포교당 주지스님, 소임자를 비롯해 포교에 관심있는 스님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인원은 40명(선착순 마감)이며 이수자에게는 교육 필증을 수여, 종단 인사에 반영한다.

교육과목은 포교론(3시간), 포교실무(6), 계층 포교론(2), 보살행 교육(5), 타종교 포교사례(3), 실습(2, 자비의 전화 직접 상담 및 포교모범 사찰 견학) 등이다. 교육비는 정규 교육생 10만원, 청강생(재가자 일부) 과목당 1만원이며 접수마감은 9월4일이다. (02)720-7060

김재경 기자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 (16주)	◇불교경전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불교상용 의식	◇유식사상
	2학기 (12주)	◇화엄사상 ◇구사론(아비달마)	◇중국불교의 이해 ◇불교상용의식 실습	◇비교종교
2학년	1학기 (18주)	◇부파불교의 이해 ◇대승기신론	◇밀교학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반야사상
	2학기 (12주)	◇한국불교의 이해 ◇선사상	◇대승불교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천태사상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수행중심 승가상 실현 '초석'

선원 전산관리 · 율원인가 의미

'선풍진작' 수행승 우대풍토 기대
율장교육강화 승가 위계질서 확립

조계종 교육원이 선원 안거 성만자 전산관리 사업과 〈선원총람〉 발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宗旨)로 한다'(종헌 제1장 제2조)는 선종 위주의 종지종풍에도 불구하고 선원과 안거 결제대중에 대한 체계적인 수행이력 관리와 현황 파악이 전무한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매번 안거 때마다 조계종 소속 2천여명의 스님이 결제에 들어가지만 전국선원수좌회에서 발간해 온 〈전국선원 정진대중명단〉이 유일한 기록이 될 정도로 종단은 수행이력 관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98년 가을 구족계 수계식에서 '선원 8안거 미만' 자가 불명확한 자료를 제시, 수계를 받아 중앙종회에서 문제가 됨으로써 차제에 선원 결제 대중의 수행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번 사업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물론 지난 7월 발표된 조계종 중장기 사업계획인 6대 종책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수행과 포교중심의 승가상 구현'이란 종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육원이 19일 교육원회의에서 처음으로 4곳의 율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한 것도 흐트러진 승가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계율과 수행을 강조하는 종단의 풍토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몇가지 종풍 쇄신 방안들은 지난해 말 야기된 종단 분규사태의 원인이 승가 위계 질서의 문란과 '수행기풍의 타락'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란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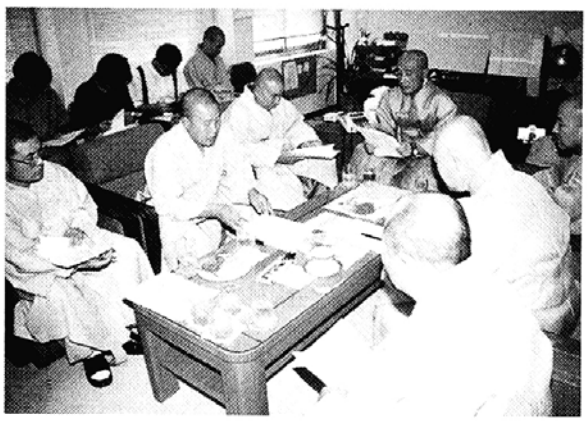
물론 조계종이 잦은 분규에도 불구하고 소수 종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나름대로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으로서 대사회적인 역량을 수행하고 있는 데에는 묵묵히 견성성불이란 본분사에 매진중인 선방 수좌 스님들의 정진력에서 비롯되었다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같은 선원의 엄청난 잠재력을 종단 차원에서 결집해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의 발전과 국민 정신문화의 선양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불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선원도 이제는 비밀스런 미지의 공간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수행 풍토 확립의 근원처로서 종단적인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21세기 정신계를 선도하는 선풍을 드날려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일부 선원에서는 종단의 불필요한 간섭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교육원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수좌 스님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낼 방침이다. 안거 성만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 질 경우 행정승보다는 수행승이 우대받는 풍토가 새롭게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어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은 19일 제42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승가 위계확립과 수행가풍 진작을 위한 '승가 기본교육 종합대책안'을 확정했다.

사찰주변 개발가속화 '불보듯'

그린벨트 해제와 사찰수행권 침해
해제권역 안에 전국사찰 60여곳

건설교통부가 7월 22일 확정 발표한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은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등 7개 중소도시 권역을 전면해제하고,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진해권 등 7개 대도시 권역을 부분해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교계 현안으로 제기되는 것은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도시계발계획의 칼자루를 도시확장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가 쥐게 된다는데 있다. 이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사찰 주변이 종교적 전통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관광지화하여 개발이익을 챙기고 지방세 수입을 늘이려는 지자체의 개발정책에 시달려온 교계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방치할 경우 사찰인근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사찰 환경은 급속도로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그린벨트해제 반대운동은 사찰 인근지역의 투기와 개발바람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권역에 포함된 사찰은 전국적으로 60여곳에 이른다.

또 그린벨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현재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안은 도시권역별 선심성 행정으로 이루어져 투기꾼의 주머니만 불리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는 그린벨트해제 결정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환경부 문화관광부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배제한 것은 물론 도시계획전문가 시민·환경단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데 있다.

그린벨트가 도시민의 쾌적공간과 야생동·식물 서식, 사찰의 보존과 도시의 확대저지, 교통문제 심화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김대중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환경영향평가 후에 풀 것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위배되어 투기를 양성화시키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환경단체들과 교계에서는 그린벨트가 이번처럼 쉽게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해제된다면 국립공원이나 문화재 보존지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교계에서는 7월 28일 그린벨트 해제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차로 교계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 등 그린벨트 해제 반대운동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지자체의 도시계발계획시 각 사암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찰인근의 건축행위와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목어

국익 우선

한국인의 특성의 하나는 '오기'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 춘향이는 부당한 변사또의 강압에 오기로 맞서 백성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준다. '오기'는 적에게 당할 때는 끝까지 자신의 주체를 고수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안으로 향할 때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조선왕조 500년의 당파싸움이 그 예이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식민지라고 일컬어지는 IMF관리체제에 있다. 여당이 모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난을 맞았을 때는 불가불 집권당이 시국을 주도하고 야당은 최대한 협력적이어야 할 것이다. 절실한 것은 국익이 우선임을 자각하고, 당파싸움과 같은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내 자식이 못되는 것보다 배 아프다'는 식의 오기는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해 수해복구비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겨우 지난 6월이 되어서야 복구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왠걸, 불과 2개월도 못돼 또 폭우로 엄청난 홍수피해를 자초했다. 야는 총리인준부터 시작해서 틈만 있으면 지역차별 발언 등으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등 사사건건 여의 뒷다리만 잡고 있는 것이다. 또 언론매체는 불평불만을 내세워 양비론을 전개하며 정치권을 매도하는데 시비는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자기 당은 국세청을 이용하여 180억의 돈을 거두어가도 상관이 없고 여에 대해서는 애매한 밍크코트 한 장의 거래를 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도 불쌍 사납다. 연극배우 출신 장관이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2만불의 격려금을 받았다고해서 쫓아내고, 밍크코트에 관련된 청문회를 열겠다는데, 이 참에 국세청을 통해 얻어낸 정치자금의 사용처도 분명히 밝혀지면 좋겠다. 죄는 여야 구별없이 철저히 가려냄으로써 사회정의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은 여·야의 구별없이 힘을 합하여 공정사회를 이루어 국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갈망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치인의 모습은 정치를 불신케하고 시민의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가려내야 하는 판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한일 양국 불교는 '세계일화'를 위한 공동정진이 필요하다. 사진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장면.

문화교류 토대 '世界一花'

1999년 광복절에 되돌아 본
한일불교 100년

일제치하 왜색불교 강점
70년대 학술교류 '우호적'

1895년 스님의 도성출입금지가 일본 스님에 의해 풀린 이후 20세기 초 한일불교교류는 한반도 침략의 도구로 전락했다. 광복 이후 왜색불교를 척결하려는 비구승대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60년대부터 차츰 교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현재는 문화 음악 신행 등 다방면으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계기로 20세기 한일불교교류사를 되짚어 본다.

◇1901년~1910년 한일합방까지

일본불교계는 한국불교계의 종속화를 시도한다. 1908년 이회광스님은 일본 조동종과의 합병을 추진, 1910년에 국내 교단과 아무 상의없이 일본 조동종과 7개 조항의 연합조약을 체결해 한일불교 합병을 성사시켰다.

◇1911년~1945년 해방까지

1911년 사찰령을 반포해 한국 사찰을 통제하기 시작한 조선총독부는 1912년 '조선 선·교양종 각본산 주지회의원'을 건립했다.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취처가 만연하자 용성스님은 총독부에 총독부에 스님의 대처(帶妻) 식육(食肉)을 금지하는 건백서를 1926년 제출하지만 같은 해 10월 총독부는 스님의 대처 식육을 인가하도록 사법을 개정했다.

◇1946년~1969년까지

1960년에 한국불교 종단대표가 초청되고 일본 진언종의 친선사절단이 내한하는 등 교류가 시작된다. 1966년에 숭산스님은 동경에 홍법원을 개원 일본 포교에 나서며 일본 진출로를 개척했다.

◇1970년대

1970년대는 동국대가 일본 구택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본격적인 학술교류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다. 1973년에는 원광대가 제1회 한일불교학술대회를, 이어 동국대도 일본 대정대와 공동으로 한일 불교학술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학술교류가 활발해진다.

◇1980년대

대우재단 후원으로 일본내 한국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져 160여점 이상의 고려불화가 확인됐다. 1983년에는 한국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삼중스님이 일본 재소자에게 설법의 장을 열쳤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힘입어 한중일 불교대회가 개최되는등 삼국불교 교류도 이루어진다. 1987년에는 보물급 조선중기 사리탑이 일본에서 60년만에 반환됐다. 고려사 등 일본 속의 한국사찰이 건립돼 양국 불교교류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1990년대

한일공동조사단이 구려져 일본내의 한국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다. 96년에는 한일불교교류를 바탕으로 한중일 불교교류대회가 열려 동아시아 불교벨트를 형성했다. 1999년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20차 대회가 열렸다.

◇미래지향적 관계 모색

한일불교교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수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이다. 일본이 한반도 침략기에 수탈해간 문화재는 그 수량마저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다. 한일불교교류대회 등에서 해마다 양국 대표들이 발표하는 성명들이 형식적인 구호로만 그치고 있어 실행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99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2.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아함경	최봉수(동국대)	부처님이 설파한 진리의 원음의 증일아함, 잡아함경
화요일	능엄경	송찬우(승가대)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체의 능엄경 9, 10권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 포교사 취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99년 8월 7일~ 99년 9월 4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1999년 9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 (매주 2강좌)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732-1206~8 /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8월)
■ 모집정원 : 150명

1.교과목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2.정규반, 통신반 개설

3. 문 의 처

☎732-1206~8 / FAX 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1999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1999년 9월 4일 (토) 오후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전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후반기)
· 아침 ·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 · 돌 ·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 · 매장 · 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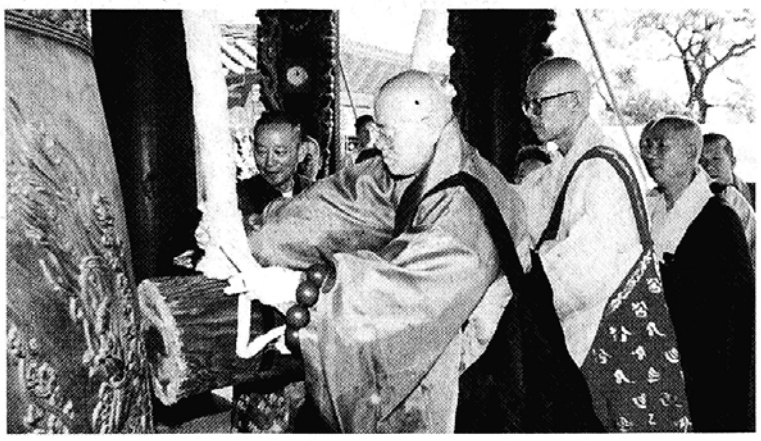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사 취득자 ④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8월 7일(토)~ 99년 8월 3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법당)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등 각 종단 총무원장스님들이 통일염원 타종하고 있다.

'통일기원' 8·15남북 동시법회

조계사·보현사서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불교인들의 염원이 종소리로 한울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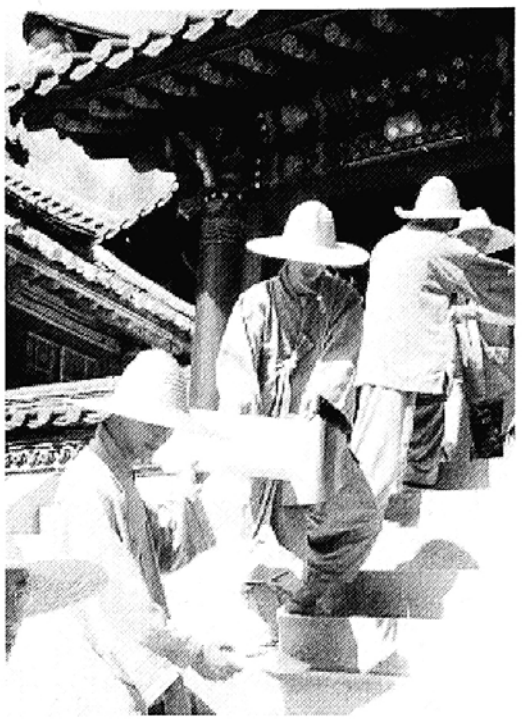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는 15일 조계사에서 통일 기원 타종과 분단 희생자 천도 영산재를 병행한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8·15 남북불교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불교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 도각스님의 경과 보고에 이어 조계사부주지 지홍스님의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인사말 대독, 민족화합 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보현사에서 동시에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일체가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서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경쟁과 대립의 분단 논리를 씻어내자"고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연합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로 회향한 이날 법회는 불교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팔만대장경도 을지 훈련

Focus

전쟁에 대비한 을지훈련이 해인사에서 실시돼 유사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해인사 스님들과 육군 제5870부대 장병 그리고 가야면 119구급대와 보건소직원 등 1백50여명은 17일 전쟁이 발발한 상황을 가정, 장경관전(국보 52호)에 보관된 대장경관(국보 32호)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참가자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팔만대장경(영인본으로 대체)을 구광루로 옮기는 한편 무장공비가 침투해 요사채를 폭파하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진압 및 사상자 구급에 나섰으며 이어 전기 및 통신시설을 복구했다. 헬기까지 동원된 이날 훈련은 중요문화재 소산(消散)훈련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된 것. 6·25전쟁 당시 장지량장군의 기지로 폭격을 면한 바 있는 장경관전과 경판은 지난 95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합천=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도심 녹지공간 최대 활용"

조계종 새청사 설계한 황일인씨



"조계사가 불교의 중심지와 성지로서 역할하고, 불교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조계종총본산 성역화 설계공모 결과 당선작을 낸 일건건축사사무소의 황일인 대표이사(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새 천년을 여는 조계종의 큰 불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안았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번 설계공모에서 "도심 속의 청정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우정국로와의 완충지역을 설정했으며, 녹지공간을 최대화 하려고 애썼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행의 중심인 대웅전 주변은 단순화했고, 총무원과 종회 조계사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행정 의회 신행 등 각 영역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작품의 특징을 설명했다.

또 "경복궁 인사동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의 가운데에 위치한 조계사는 현재의 대웅전이 지닌 전통성과 현대건축의 기법이 조화된 문화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불교에서도 현대의 건축양식을 과감히 도입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전형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일건건축은 89년 능인선원 사회복지관을 비롯 서울올림픽선수·기자촌, 도심공항터미널, 제주월드컵 경기장 등을 설계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교차로

김천 시민대종제작 기금 전달



법등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스님(김천불교사암연합회장)은 2일 김천시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종 제작운동에 동참, 1092만원을 박팔용 김천시장에게 전달했다.

日 사회복지시설 견학



현성 승가원 이사장은 복지정보의 상호 교류를 위해 일본 사회복지법인 'MEHINO 野園' 초청으로 27일 출국한다. 2박3일간의 이번 방문에서 현성스님은 'MEHINO'법인의 산하시설을 견학하고 승가원과의 복지사업 교류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거사림회서 '화엄경' 강의

도업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 스님은 31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부산거사림회의 초청으로 〈화엄경〉에 대해 강의한다. 또 스님은 9월 8~9일 일본 용곡대학에서 열리는 인도학불교학회의에서 '신라의상의 화엄법계관'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강남포교원 개원 17돌 예술제



성열 서울 강남포교원 원장스님은 9월5일 오전 11시 불교방송국 3층 불교문화센터에서 개원 17주년 기념예술제를 개최한다. (02)539-2631

결식아동돕기 성금전달



혜총 부산 용호복지관장 스님(감로사 주지)은 최근 용호동 관내 결식아동 3세대에 1인당 87만원의 결식아동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하와이 태평선원 개원



도현 미국 하와이주 대원사 주지는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을 법주로 23일 태평선원(국제선원) 개원식을 거행했다. 스님은 이날 태평양전쟁 전몰 희생자 위령재도 봉행했다.

KBS 사회교육방송서 법문



법현 천중사 부주지는 30일부터 9월4일까지 KBS 라디오 3국 사회교육방송 '종교와 인생' 코너에서 법문한다. 매일 새벽 1시40분에 방송되는 이 프로는 북한 연변 연해주 등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다.

실직가정돕기 '찻집' 열어



지현 부산 두송복지관장 스님(관음사 주지)은 9월3일 중앙동 다전에서 개관 4주년 기념 실직가정돕기 및 장학기금 마련 '자비찻집'을 연다.

내달 보름간 미주 순회법회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제8차 미주 순회 법회'를 개최한다.

美 동국 로얄대서 불교특강



이재창 동국대 명예교수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국로얄대학 강당에서 '불교의 경제윤리' 주제의 특강을 했다. 이 강연회는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와 미주 포교사협회 공동주최로 8.15 광복 54주년을 기념해 열린 것.

대구·경주 새연등회 사무실 개소



이용택 대구·경북새연등회 회장(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은 12일 대구 국제오피스텔 1607호에서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053)745-5331

美 교환교수 마치고 귀국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본지 논설위원)는 10일 미국 오리건주주립대학 교환교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근본불교 자비도량 개원

이달훈 자비도량 상임법사는 29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 스리랑카 상좌부 불교 전통을 잇는 근본불교 자비도량을 개원한다. (02)738-1066



컴퓨터 45% 할인판매 조계종-삼성전자 협정

조계종총무원과 삼성전자는 19일 불교정보화 협력 협정 조인식을 갖고 불자들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할 경우 최고 45% 할인된 가격으로 보급키로 했다. 구입 방법은 사찰에 비치된 구입신청서를 작성, 소속 사찰이나 불교기관의 확인을 받아 총무원 기획실(02-730-9822)로 접수하면 된다.

정성운 기자



학술 기술정보 교류 동국대-농진청 협약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3일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은종)과 학술 기술정보 연구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동국대는 농촌진흥청이 추천하는 농업진흥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대학원 입학전형시 특별전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강지연 기자

신부전증 앓는 주부에 강원 스님이 신장 기증



강원에서 공부중인 한 스님이 신부전증을 앓아온 한 주부에게 신장을 기증해 화제다. 더욱이 스님은 한사코 자신을 드러내기를 마다해 '명함 내밀기' 좋아하는 부끄러운 세태에 귀감이 되고 있다.

모 강원에서 정진중이던 스님은 6년전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부전증이 발명해 투병중이던 김묘숙씨(사진)에게 12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기를 이식해 주었다. 평소 장기기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어했던 스님은 오래전 생명나눔실천회에 신장기증 의사를 밝혀왔었다.

그러던 차에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서 재산을 날리고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5살 난 딸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게 된 처지의 김씨와 장기조직이 맞아 자신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되자 더없이 기뻐하며, 김씨의 쾌유를 빌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부처님 제자로서 당연한 일인데 굳이 얼굴을 밝힐 필요가 있느냐"며 끝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마다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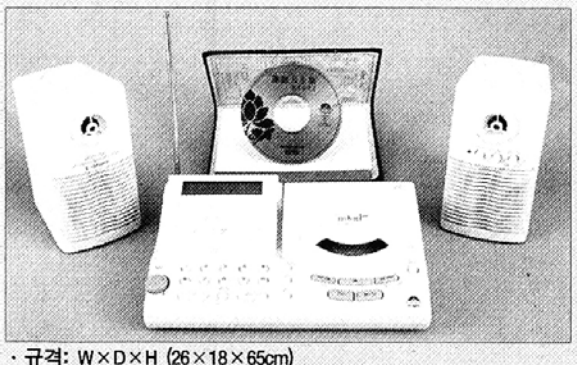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CD 한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스님들의 포교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높은 법력이 담긴 좋은 법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CD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간: 1999. 8. 16 ~ 8. 21
(기간안에 주문한 분에 한함)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

■보급처 : 법운 홍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탐방 대한불자가수회



◇대한불자가수회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후2시면 동참회원 수에 상관없이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법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18일 법회 모습.

"부처님앞에 스타 없다"

군·교도소등 5백회 위문
각종행사 참여 흥돋워

광고시장에서는 연예인을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연예인들의 사적·공적 행위는 대단한 파급력을 지닌다. 대중과 늘 가까이에 있는 연예인이 포교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지대하다. 특히 조직력을 갖춘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의 활약은 불교행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1990년 12월8일 1백88명의 불자가수가 모여 출범한 대한불자가수회는 초대회장 김홍국씨의 맹활약으로 단체가 알려진 후 회원간 불협화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불음포교에 대한 역대 회장과 회원들의 뜨거운 열의로 불교계 일꾼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가수불자회는 지난 9년간 '부처님 앞에 스타가 있을 수 있는가'를 화두로 삼고, 공연에 참석한 대중들의 반응을 수행의 척도삼아 포교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군부대, 교도소, 구치소, 양로원 등 사회와 격리되고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벌인 위문 공연만도 5백여 회. 불우노인돕기 자비의 바자회,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한마당축제 등은 가수불자회의 정기행사로 열린 정도다.

또 가수불자회는 불교계의 각종 행사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희의료원불자회 경불회 출범을 직접적으로 돕는 등 직장직능불자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생업 틈틈히 불음포교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수불자회는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신행생활을 우려해 매월 한차례(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열어 신행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인기가수와 비인기가수의 정서적 견해 차이로 정작 활동 회원은 30여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회원간 화합을 통한 조직강화는 가수불자회의 과제로 지적된다.

남강수 회장은 "대한가수불자회가 봉사를 통한 불음전파와 적극적인 신행 고취를 취지로 결성된 만큼 회원간 화합을 통해 전법의 최선봉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통도사 찾아온 약사보살들

동아대병원 연불회 70여회원
스님·신도 350명 무료진료

15일 통도사 설법전에는 때 아닌 병원이 문을 열었다. 동아대학병원 불자회 연불회(회장 박옥규)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개원한 임시병원. 의료봉사를 위한 최대규모로 짐작되는 이번 무료건강검진소에는 의사, 레지던트, 간호사, 행정직원 등 총 70명의 회원과 의료진이 동참한 것을 비롯 초음파, 심전도, 이동식 X-Ray 촬영차량 등 30여 가지의 검사기구들이 동원, 내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진료과목이 마련됐다. 수술기구를 제외한 모든 검사기구를 갖추고 시작된 이날 무료건강검진에는 스님과 신도 3백50여 명이 진료를 받는 등 성황을 이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통도사에서 열린 이날 무료진료는 종단내 갈등에도 불구, 흐트러짐 없는 신행을 보여준 값진 자리였다.

접수 및 기초 증상기록, 각종 검사, 전문의들의 진료, 약처방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진 무료진료는 연불회가 한달여의 준비 끝에 어렵게 성사시킨 것. 심전도, 초음파 등 각종 검사를 받은 통도사 강원의 성래스님은 "공부에 몰두하다보면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 도량에서 검사도 받고, 진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정세일 전문의(비뇨기과)는 "불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젊은 의사들이 불교에 귀의, 의료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불회는 이날 검진결과 심각한 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결과 분석과 개인별 결과 통보 등을 20일 안에 마무리해 차후 불자들의 건강관리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의 의료봉사활동은 병원불자회가 불자들을 찾아 나선 적극적인 봉사라는 의미 외에도 각가지 미담을 남기며 회향했다. 김영대 전문의(내과)는 다음날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발표자로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신심을 보여 주었고, 진료를 받은 김덕심(70, 부산 중구 부평동) 보살은 사후 신체기증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옥규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병원측, 의료진, 행정직 간의 조화로운 협조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일년에 한번씩 사찰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펼쳐 불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신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불회는 9월4,5일 양일간 오대산 적멸보궁 순례를 통해 새로운 포교활동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통도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의료진과 행정직원등 70여명의 연불회 회원들이 15일 약사보살의 화신이 되어 통도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의 건강을 살폈다.

영호남 운전불자회 첫 합동법회

내달 5일…지역감정 해소 앞장

영호남 운전기사 불자들의 친선교류 법회가 정례화될 전망이다.

부산·대구·포항·경주 등 영남권의 운전기사불자회와 광주·전주·정읍 등 호남권의 운전기사불자회가 지역감정 해소 및 문화교류를 위한 대국민운동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한차례씩 영호남 친선교류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부산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조홍인)의 주관으로 열리는 제1회 영호남 친선교류 정기법회는 9월5일 동명불원에서 부산·대구·포항·경주·광주·전주·정읍 등 7개 지역 운전기사불자회원 5백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법회는 영호남운불련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계 인사의 축사와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의 법어,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회 후에는 해동 용궁사 사찰순례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지난 4월 부산시 한국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질서봉사단으로 위촉받은 부산운전기사불자연합회의 질서봉사단 발대식도 거행된다. 051)627-1863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동불 라이온스 월례회

동불라이온스클럽(회장 김용길)은 23일 오후6시30분 종로구 견지동 초향에서 월례모임을 갖는다. 2000회 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안 등을 심의한다. 02)733-4800

심우회 법륜사 법당 낙성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2일 덕정 5기갑대대 호국법륜사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금륜정사 덕현스님과 심우회 회원을 비롯해 군 불자장병 2백여 명이 참석했다. 02)533-2539

산악인련 효행도 봉안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9월11일 효행실천도량을 표방하고 있는 안동 홍은사에서 무형문화재 제48호 만봉스님의 '효행도'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02)2232-6948

불기협 기자 연수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28~29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99 기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계 현실과 불교언론의 나아갈 방향(발표-김병규 문화일보 前 편집국장)'과 '불기협의 위상·제고를 위한 제언'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02)722-4162

제천기사회 창립 추진

제천불자기사봉사회(가칭) 창립회원을 모집한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효스님)은 31일까지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고 지역사회 이익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개인택시 불자운전기사를 모집한다. 0443)652-0900

봉은사 퇴임교원 연수
신행·노후생활등 안내

정년퇴직 및 명예퇴임을 앞둔 교직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특별연수가 사찰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9월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 법왕루 및 교육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소속으로 올해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 예정인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참가비 없이 무료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퇴임 후 교직원들의 신행생활을 비롯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컨설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연수에서는 '퇴임후 노후 건강관리'에 대한 선재한의원 김경현 원장의 강의와 퇴임 후 경제생활 방안을 위한 퇴직금 활용법, 각종 금융기법 및 창업 안내에 대한 재테크 전문가의 교육도 있다. 또 연금제도, 취미생활, 사회활동, 생활법률 등의 강좌가 마련되며, 보람찬 노후생활을 위한 스님의 법문도 있을 예정이다. 02)545-1448

도필선 기자



인각사 일연성사 열반 710주기 다례

보각국사 일연성사 열반 제710주기를 추모하는 다례재가 18일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재에는 은해사 본말사 스님 30여 명과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육법공양, 일연성사의 행장소개,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각사는 원효, 설총스님과 더불어 경산출신의 3성현 중의 한분인 일연성사의 추모 다례재를 해마다 봉행해 오고 있다.



천태종 상월조사기 배구대회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15일 제26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충북 단양 영춘중학교에서 개최했다. 전국 32개팀이 참가한 이날 울산 정광사청년회가 우승, 서울 성룡사청년회가 준우승, 대구 대성사와 서울 명락사 청년회가 3위를 수상했다. 이날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 스님들, 각 사찰 주지 등 2천여 명의 열띤 응원속에 배구외에 족구 줄다리기 씨름 릴레이 등의 경기가 진행, 친목을 다졌다.



대·경 연등회 재일교포 모국답사 행사

대구경북 새연등회(회장 이용택)는 16~19일 재일교포 경북도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국 문화답사 행사를 벌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 12명이 참가한 이번 문화답사는 대구 동화사,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안동, 구미, 김천 지역의 불교문화유적을 돌아보며 한국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지개 걸린나무' 산사학교 열어

청소년포교지 월간(무지개 걸린 나무)는 13일~15일 경북 영양군 영성사에서 청소년 하계 산사학교를 개최했다.

중고등학생 독자 2백여 명이 참여한 산사학교는 불화그리기, 사찰 예절교육, 수계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 고추따기 등의 농촌일손돕기와 봉감모전 5층석탑(국보 187호)과 화천리 3층 석탑(보물 609호) 등도 참배했다.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 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잡 및 작법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발전 시키고져 하오니 뜻 있는 스님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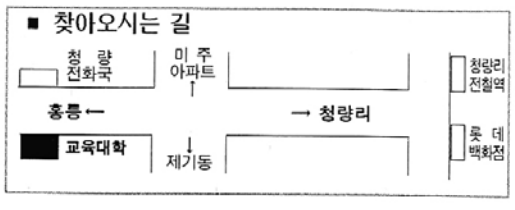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월~목)
▶ 접수일자 : 1999년 8월 23일~ 9월 12일
▶ 개 강 : 1999년 9월 13일

■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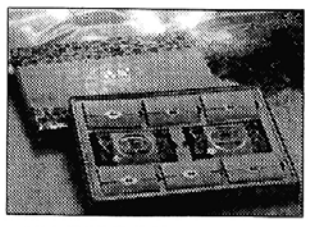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몰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때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 효도

"부모를 위해 자기 몸 불사르기를 억만겁 할지라도 은혜 못미친다"

25일(음7월15일)은 우란분절이다.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자신의 어머니를 굳은 신심으로 구해낸 효심을 기려 선망부모 천도재를 지내는 날이다.

갈수록 혼란해지는 세상에서 효(孝)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의 덕목이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적인 인간관계에 기본을 둔 효는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삶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자식간의 도리를 망각해 가는 오늘날 우란분절을 맞아 경전속에 나타난 효의 본뜻을 헤아려 본다. 〈편집자 주〉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메고 히말라야를 백번 천번 돌아 살갗이 터지고 뼈가 부서진다 할 지라도 부모의 은혜에 미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 1백자루의 칼로 자기 몸을 쑤시며 1천겁을 지낸다 할 지라도 부모의 은혜에는 미칠 수 없다. 부모를 위해 자기몸에 불사르기를 억만 겁 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에는 미칠 수 없다. 〈부모은중경〉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어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숫타니파타〉

▨만일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문 바라문을 존경할 줄 모르며, 진실하고 미덥게 행하지 않고 복업을 짓지 않으며, 후세의 죄를 두려워 하지 않으면, 그는 이것으로 인연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뒤에는 지옥에 나게된다. 〈중아함 천사경〉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의식(衣食)을 제공함은 하품(下品)의 효양(孝養)이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중품의 효양이며, 부모님의 공덕을 여러 부처님께 회향함을 상품(上品)의 효양이라 한다. 〈아함경〉

▨자식이 부모를 시봉함에 마땅히 다섯가지의 일로써 하라. 첫째 살림살이를 잘하여 가업을 잘 지켜가고, 둘째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셋째 모든 일에 있어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넷째 언제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여 잊지않고, 다섯째 부모가 병이나면 두려운 마음으로 정성껏 치료해 드려야 한다. 〈육방예경〉

▨선(善)의 최상은 효도(孝道)보다 큰 것이 없고, 악(惡)의 최상은 불효(不孝)보다 큰 것이 없다. 〈인욕경〉

▨어버이와 자식의 도리는 하늘의 명령이다. 사람의 길로서는 효도만큼 큰 것이 없다. 〈효경〉

▨늘 부모를 존중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쉬는 일 없거라. 〈회엄경〉

▨만약 총명한 지혜를 지닌 지자(知者)가 있어서 생사의 피안에 도달하려 한다면, 응당 부모를 존경해야 할 것이다. 〈금강계주수행경〉

▨자비스러운 부모가 오래 길러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남녀가 다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니, 아버지의 은혜는 높아서 산왕(山王)과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깊어서 대해(大海)와 같다. 〈심지관경〉

▨예사 아니셨어라! 부모께서 큰 고통을 받으사 열 달이 차도록 내 태(胎)를 품으시며, 태어난 다음에도 마른 자리로 옮겨 눕히사 습기를 제거하시며, 더러운 똥 오줌을 치우시며, 젖 먹이고 씻어먹여 길이 기르사 내 몸을 보호하시도다. 이런 도리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니, 부모를 봉양하고 모셔서 지켜드리며, 그 뜻을 받들어 섬겨야 하리라. 〈열반경〉

▨부모를 효도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일생보처(一生補處)의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증일아함경〉

목탁소리

위 영 란 〈취재부장〉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시 '님의 침묵' 군말에서 밝힌 만해스님의 명제대로, 8.15광복절을 전후해 13일부터 16일까지 내설악 백담사 계곡은 만해축전에 참가한 모두의 '님'들이 모여 '만해열기'로 가득찼다.

만해기념관 만해적선당 만해교육관… 백담사 경내는 은통 만해로 이름지어 새로 들어선 전통목조 당우들로 디미 면모가 새롭게 단장됐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서은 외국의 불교학자들과 조병화 고은 김남조 오세영 유단진 신달자 조세희씨 등 유수한 문인들에다가 신진 및 예비문인들까지, 문학 사상 철학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만해 사랑'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 선사로서의 만해를 부각시켰으며, 국내외 석학들이 새 천년를 겨냥해 만해를 연구하고 발표한 첫 국제학술회의는 세계속에 만해스님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 것도 큰 성과였다.

백담사의 '만해 사랑'

사실 그동안 만해스님은 불교집안에서조차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었다. '만해선생'으로 고집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나마 '만해선사'로 불리우더라도 한국불교의 수종단인 조계종에서는 총무원장이 공식적으로 만해관련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온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만해스님은 백담사를 통해 한민족사 나아가 세계사속의 인물로 부각됐으며 '만해학'으로까지 문열이를 한 것이다.

그만큼 후담거리도 많다. 고귀했던 점은 백담사를 아우르는 신흥사 회주 '무산스님이 행사 전체를 뒷바라지 하면서도 이름도 얼굴도 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프랑스에서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차 20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학자도 단 3분동안 발표해야 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일 수 없었던 빽빽한 일정진행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백담사는 11년전 전직 대통령이 은둔함으로써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명소가 되었고 이렇게 만해스님으로 인해 문학과 사상과 불교철학이 응집된 '큰 절'이 되어 있었다.

열린마당

불교 도농공동체 운동

불교도농공동체 운동본부(준비위원장 원혜)가 9월11일 창립에 앞서 운동본부가 추구해야 할 세계관과 가치관 및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대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기적 세계관으로 본 도농공동체 운동'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교의 연기법이 생활협동조합의 기본사상으로 자리잡고, 이를 통해 불교계가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음은 도법스님과 권영근씨의 각 발제문 요지다. 〈편집자 주〉

"도·농공존 생명살림 근본"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현대인들은 나는 나, 너는 너, 인간은 인간, 자연은 자연 등 모든 사물을 남남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래서 나만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자연과 분리된 채로 인간생명이 엄연하게 따로 있다고 믿는다. 또 이런 '독립된 남남'이라는 사고는 자기중심의 이기적 사고를 낳음으로써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방향과 길을 밝힐 등불인 올바른 세계관에 대한 방법론의 모색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 고기 잡으려는 격'이 되고 만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공동체 운동의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붓다는 관계성의 진리를 따르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신념과 원력으로 관계성의 진리가 실현된 사회상을 보이고자 승가공동체적 삶을 살았다. 따라서 불교는 진리를 따르는 사부대중공동체의 모습으로 대승불교운동을 결쳐왔다. 또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결사공동체 운동 또는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결사공동체 운동도 있어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불교가 갖고 있는 자원과 잠재력이 풍부한 것도 큰 장점이다. 공동체 운동을 지향하는 교리와 공동체 역사, 생명존중 사상, 도량이 농촌과 산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교는 이를 기반으로 너와 나,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이 공존·협력·균형을 이루는 삶의 문화를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시와 농촌 사찰은 스스로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을 계도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과 생명살림의 근본이다.

"생협운동 인간-자연 상생"

권영근〈농어촌사회硏 소장〉



다양한 생명활동의 공존은 생명활동이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동안 인간은 순환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다른 생물로부터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20세기의 문명은 이처럼 순환성과 다양성을 파괴해 온 문명이다. 이제 이러한 관계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 또는 현상은 동적인 흐름의 일부이며, 모든 사물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기법의 원리를 말해왔다. 생명활동 협동조합의 철학은 바로 이것이다. 농업은 인간과 자연이 협동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 관계성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생의 지혜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사업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소비가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유통자본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협동조합은 생산과정이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조직과 소비조직을 연결하는 생활운동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민주성 확보와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 물류 합리화를 통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 제도적 정비와 공신력 확보 등의 생협운동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세기의 자본주의의 물질문명 구조의 가치관을 바꾸고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에 생활협동조합운동이 근간이 돼야 한다.

사찰 수련회를 포교의 장으로



지원스님 삼보사 주지

이번 여름 재적본사인 설악산 신흥사의 주지스님과 대중일동이 단합하여 처음으로 하기수련회를 개최했다. 100명 모집에 무려 7백여통의 문의가 들어왔고 결국 어린이 100명 청소년 100명 성인 110명을 확정지었다. 교육프로그램 등의 준비로 지쳐있던 나의 심신이, 이토록 불교를 알고싶어하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열의때문에 새 활력을 얻었다. 예불 발우공양 108배 사경 참선 등 외에 위빠사나수행과 불교교리 강좌에 많은 시간을 배정했더니 수강생 모두가 좋은 반응을 보였다. 폭우로 물난리가 났음에도 성인반은 접수 134명중 114명이 참석하였고 종교도 무종교인이 65명 타종교인이 28명이었다. 불자는 28명에 불과했다.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산사수련회는 포교에 아주 좋은 장(場)이 분명하니 종단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단의 획기적인 발전은 오직 포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교활동에 종단적 체제가 정립되어 중생제도의 본원을 실천하는 것만이 승가본연의 자세일 것이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끝내고 느낀 점중 하나는 지도법사의 일거수 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지도법사가 앞장서 이끄는 프로그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진지한 수강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수련회에 임하는 스님들의 마음자세와 준비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주말단기 수련회 등도 좋겠고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그 사찰만의 특성을 살려 테마성있는 작은 수련회 등을 연속적으로 연다면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목·소·리

일부 기독교인의 어리석음



전재성 한국 빠알리 성전협회장

〈신앙계〉 7월호에는 "야소가 이땅에 오면 내가 깨닫은 도는 꺼진 등불(何時耶蘇來 吾道無油燈)"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라고 주장하는 순복음교회 김동일 장로의 글이 발표되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한문어구를 스티커로 만들어 자동차에 부착하여 붕은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불교를 비방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부처님이 예수의 출현을 예언하고 예수가 출현하면 불교는 기름없는 등불이 되어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앙계〉는 '하시야소래 오도무유등'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전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근거없이 조작된 말이다. 김동일씨는 〈라마다경〉이란 스리랑카에 보관된 경전에 나온다고 얼버무렸는데 필자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초기불경이건 후대 대승불경이건 그러한 경전은 없다. "예수가 오는 날 내 길은 기름없는 등불이 되리라"는 말은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의 비유와 관련되어 중국의 신학자들이 한 말이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갑자기 신랑이 찾아올 때를 대비 평소 그릇에 기름을 담아두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신랑이 오더라도 "우리 등불은 기름이 없어 꺼져간다"고 통탄해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름이란 평소에 착한 일을 하여 주님을 맞을 때에 부끄러움없이 맞을수 있는 음덕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예수가 오는 날 기름없는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맞게돼 주님을 알아볼 수조차 없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손한 신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무지를 자탄하여 "예수가 오는 날 나의 도는 기름없는 등불이 되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차량용 스티커로까지 제작하여 부처님이 예수의 출현을 예언했다는 식으로 전도하고 다니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방자한 행동은 어리석음과 자만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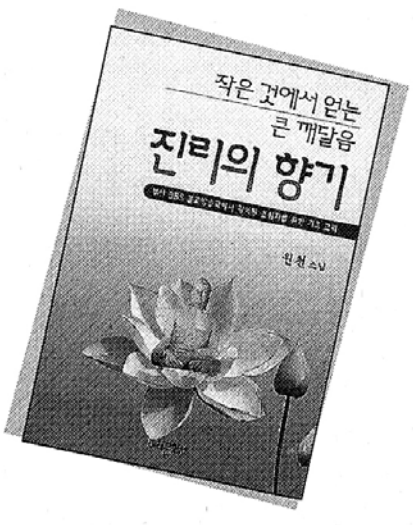
부산 BBS 불교방송국에서 1년간 강의된 기초교리

21C를 겨냥한 불교기초교리 강좌

진리의 향기



원천스님
■통도사 교무국장 역임
■통도사 포교국장 역임
■통도사 총무국장 역임



● 작은 것에서 얻는 큰 깨달음 ●

불교신도 중에는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 없이 무조건적으로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다.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찰 예법이나 교리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BBS 불교방송국에서 〈진리의 향기〉란 제목으로 방송 강의된 내용들을 보강하고 재편집하여 초심자들이 불교의 기초교리를 공부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알찬 내용들로만 묶었다.

· 출판기념법회 ·

일 시 : 1999년 8월 31일
장 소 : 부산 코모도 호텔 중무홀
시 간 : 저녁 7시
문의전화 : 0525-329-1056

출판기념 법회를 개최하오니 무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귀명정례 삼보 귀의하옵고,

우리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는 만해 한 용운 대선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결성한 청년불자들의 모임으로써, 그 79돐을 맞이하는 현재 전국위 240여 지구 지부 지회의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불교계에서는 전국 최대의 조직적 단체로써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청년 불자들은 수차례 어려운 풍파를 견디면서도 오히려 그 시련을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 대한불교청년회가 한국에서의 그 어느 청년단체보다도 이상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대 전제 아래 사심없이 지원, 성원 해주신 많은 스님들과 신도님들, 그리고 선배 불청동지들의 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해와 최근의 예상치 못한 종단의 사태로 잠시나마 침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한국불교의 희망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자, 새로히 20대 전 안 호 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청년불자들의 노력과 정진에 많은 대덕 스님들과 신도님들께서 지혜의 채찍과 법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옵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 있으시길 바라오며 합장배례 하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 2543년 8월17일

중앙회장	전 안 호	수석부회장	김 인 택	직할서울불청	김 인 택	직할조계사청년회	이 종 찬
부 회 장	홍 무 흠	연수원장	이 선 세	서울지구장	박 찬 응	경기지구장	문 성 렬
부 회 장	구 재 완	사무총장	정 상 욱	강원지구장	임 철 혁	충북지구장	곽 성 근
부 회 장	김 회 영	기획실장	이 성 상	충남지구장	유 석 근	대전지구장	송 석 범
부 회 장	김 규 범	만해대학처장	하 영 태	전북지구장	장 명 욱	광주지구장	이 주 성
부 회 장	정 웅 정	대의원 의장	이 상 번	경북지구장	이 정 환	대구지구장	김 보 수
부 회 장	김 익 석	감 사	한 대 수	경남지구장	하 귀 만	부산지구장	김 수 현
부 회 장	박 법 수	감 사	고 정 관	제주지구장	김 만 국	전남지구장	서 친 곤

(사)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 전 안 호

한국 禪무용 스페인서 '갈채'

동국대무용단 '스페인 민속축제' 참가
바라춤·승무등 불교무용 진수보여

정중동(靜中動)의 아름다움을 표출해 선적(禪的)인 감흥을 안겨준 한국 불교의 전통춤이 서방세계에 소개돼 호평을 받았다.

동국대 불교무용단(단장 법현스님)이 7일부터 18일까지 스페인 서북부 지역의 오렌세(Orense)에서 열린 '스페인 99 민속축제'에 초청받아 나비춤, 바라춤, 승무 등 불교무용을 공연했다.

백색 장삼과 바닥에 닿을 듯 길게 늘어진 육수 가사에 탑 모양의 고깔을 쓰며 나비가 춤을 추듯이 춤사위를 보여주는 나비춤과 솥뚜껑을 엎어서 잘 다듬어 놓은 바라를 태징 소리에 맞춰 양손을 번갈아 가며 놀리는 바라춤 등은 스페인등 벽안의 관람객들에게 한국 불교 무용의 진수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좋은 기회였다.

러시아, 불가리아, 멕시코 등 13개국 국·시립 무용단이 참가한 '스페인 99 민속축제'는 모든 공연이 고풍스런 스페인 전통 건물 앞의 야외무대에서 개최되며 매회 4천명 이상이 관람하는 스페인 국가적 무용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오렌세주 7개 도시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총 7회에 걸쳐 공연한 동국대 무용단은 '도량게', '다게', '향화게'를 비롯 동서 남북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불보살의 강림을 발원하는 '사방요신'을 시연했다. 또 아귀 중생에게 공양을 베푸는 진언으로 구성된 '사다라니바라'와 관세음보살의 법력으로 일체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설하는 내용인 '천수바라' 등 다양한 주제의 불교무용도 펼쳤다.

특히 법현스님의 범패에 맞춰 춤을 춘 '승무'는 한국무용만의 독특한 몸놀림과 신비스런 분위기로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앵콜 박수를 받았다. 특히 타 참가국들이 전통 민속 악기를 사용해 연주하는데 비해 한국불교 무용단은 스님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독특한 범패 소리에 맞춰 춤사위를 펼쳐 관람객들의 가슴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는 것.



◇동국대 불교무용단이 한국 불교의 선(禪) 무용을 스페인에서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열띤 호응을 받았다. 사진은 오렌세주 룬스시 야외무대의 이국적인 정취와 조화를 이루면서 정중동의 절제된 춤사위를 드러내는 바라춤 공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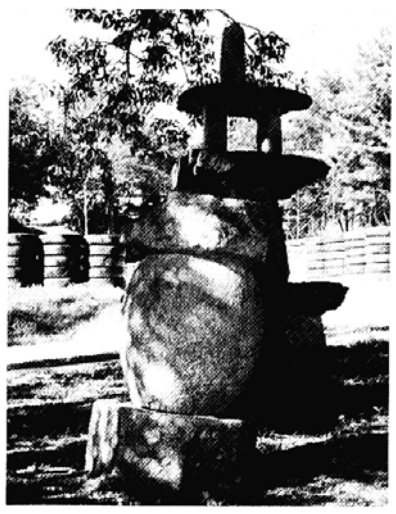
동국대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동국대 불교무용단'은 불교무용 및 한국 전통 무용을 불교적인 해석을 통해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95년 창단해 총 10회의 국내외 공연을 펼치는 등 그동안 무용을 통한 불교 포교에 힘써왔다.

이번 공연에서 총안무를 담당한 법현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정적이고 선적인 한국불교 무용은 율동이 심한 서양춤에 비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든다"며 "이번에 참가한 다른 나라 무용단들과 분위기와 춤동작에서 차별되는 불교적인 특징이 호응을 받게 된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는 오렌세주정부는 2년 뒤 다시 초청을 했으며 함께 참가했던 아르헨티나 국립무용단도 자국 초청 공연을 유치 하겠다고 밝혔다고. 또 동국대 무용단은 올 10월과 내년 1월에 각각 대만 초청 공연을 앞두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양구 심곡사지서 송암스님 부도 발견



◇양구 동면 ○○부대에서 발견된 높이 1.2m 팔각원당형 송암 의천스님 부도. 기단 각 면에 특이한 모양의 조각이 선명하다. 심곡사지 발굴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금강산 건봉사에서 강석을 열고 후학을 지도했던 송암 의천스님의 부도가 발견됐다.

송암 의천스님(松巖 義泉·1716~1762)은 1729년(영조 5년) 건봉사 석흡스님에게 출가하여 월봉·풍악스님 등 고승을 찾아다니며 경을 배운뒤 건봉사로 돌아와 강석을 열었던 학승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님은 오랫동안 후학을 지도하다 1762년 법랍 33세, 세수 47세로 입적, 부도를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송암 의천스님의 부도가 발견된 곳은 절골로 불려지고 있는 강원도 양구군 적리에 위치한 군부대인 모연대. 이 지역은 강원도 영서지역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던 심곡사지와 1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심곡사에 있던 송암스님의 부도가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봉사본말사적〉에 의하면 송암 의천스님을 비롯 청암·월허·월암·서파·운경스님 등 11기의 부도가 부도가 심곡사에 봉안돼 있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양구=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수타사에 박물관 건립추진

홍천군, '월인석보' 등 문화재 보존

강원도 홍천 군청과 수타사(주지 임하) 그리고 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를 보관할 박물관을 짓는다.

군청이 박물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예산 1,000~2,000여만원을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하고, 2000년에 국·도비지원과 군비 등 4억여원을 들여 성보박물관을 2001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

〈월인석보〉는 지금까지 영서지역 최고(最古)의 사찰인 수타사에서 보관해 오고 있었지만, 지난달초 문화재청 방침에 따라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산하 50여개의 말사에 보관중인 100년 이상된 보물급 불교유산들을 본사로 이전·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청, 수타사, 지역 주민들이 〈월인석보〉를 되찾아 오고, 지역 문화재도 함께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가운데 '박물관 건립'의 원력을 세운 것.

지역 주민과 신도들은 박물관 건립에 대해 "수타사의 표상인 월인석보를 비롯 앞으로 범종과 탱화등 불교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이 지역 불교문화를 지킬 수 있는 일"로 받아드리고 있다.

한편 군청 및 지역주민 대표들이 5일 월정사(주지 현해)를 방문, 이같은 지역여론을 전달하고 수타사에 박물관을 건립할 때까지 월인석보를 임시 보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옷으로 만나는 '영취산의 환희'

이기향교수 의상작품전
9월1일부터 목금토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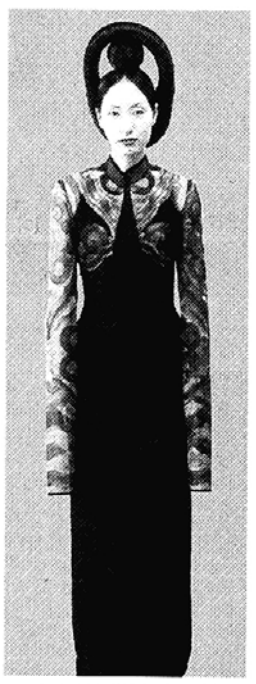
전통불화의 이미지를 응용한 독특한 패션으로 주목받아온 미술의상 연구가 이기향교수(한성대 의생활학부)가 영산회상의 극적인 이미지를 승화시킨 작품전 '영취산의 환희'를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대학로 문화공간 목금토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불교전통춤인 나비춤 의상을 조형성이 강한 미술의상으로 재조명한 작품과 영산회상에 등장하는 수월관음, 비천상, 문수보살, 아귀 등의 인물들을 직물 디자인한 작품 총 20점이 출품된다.

이교수는 자칫 무거울 것 같은 종교적 주제를 검은색의 색감 위에 청동색 등의 은은한 색감을 최대한 살려 현대적인 감성으로 되살려, 불교문양의 독창적인 재해석을 꾀하고 있다.

이교수는 "옷이라는 조형언어에 불교라는 큰 사상을 담아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동반하는 살아있는 의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회 첫날이 1일 오후 4시와 7시에는 나비무 공연과 함께 작품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오프닝 공연으로 마련된다. 현대적 감성의 불교무용을 발표해온 무용가 백현순 교수(창원시립무용단 안무가)가 닥섬유로 만든 나비춤, 의상을 입고 무용공연을 펼치며 10여명의 모델이 관객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02)764-0750 오종욱 기자



◇이기향作 '영취산의 환희'

▧전통예술학회 설립 홍윤식 교수

"전통예술 재창조 해야"



"20세기가 분석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종합의 시대입니다. 전통예술계도 이제 형식만을 연구하고 모방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예술을 재창조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한국전통예술학회를 설립한 홍윤식 동국대 문화예술대학 원장은 전통문화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악·전통무용·전통미술등 전통예술 관계자들이 유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전통무용학회·국악학회·미술사학회 등 전통예술 관련학회들이 있지만 이들이 상호교류하는 기회는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교수는 "전통문화는 기능의 종합적 산물인 만큼 분화되어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분야의 종합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한국전통예술학회를 만들었습니다"고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홍교수는 학자와 전통예술가를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각각 구분하는 한편 11월중 동국대에서 학회의 출발을 알리는 창립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전통미술·국악·전통무용등 서로 다른 장르들이 어우러져 융화의 힘을 발휘하는 공연도 보여줄 예정이다. 오증욱 기자



◇박혜원作 '입전수수'

박혜원씨 '심우전'
18일부터 관훈갤러리

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상징적인 '심우도'를 기하학의 구도로 담아낸 판화전이 열린다. 박혜원씨가 31일까지 서울 관훈갤러리 신관 2층에서 심우도를 주제로 동파화전을 갖는다.

박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날카로운 선의 교차점을 이용, 힘과 폭풍우 같은 환영의 소와 동자의 모습을 기하학적 모습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 브뤼셀 왕립미술학교 로저드위트 교수는 "여백을 강조하고 있는 그녀의 작품에서 불교의 정신을 찾을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02)733-6469

문화 단신

완도신흥사 미술관개관
류종갑씨 부채그림전

전남 완도 신흥사(주지 범일)는 7일 구계미술관을 개관하고, '효산 류종갑 부채그림 초대전'을 개최한다. 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는 여름의 더위를 물리치는 부채를 소재로한 담백한 수묵화 작품이 선보인다.

완도군 최초로 미술관을 개관한 범일스님은 "전남을 예향의 도시라지만 지금까지 완도군에 미술관이 없어 안쓰러웠다"며 "부채전을 시작으로 선화와 달마도등 불교미술품을 주로 전시해 지역 주민 포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633)554-2634

전승 공예대전 | 작품공모 | 통일서예대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24회 전승공예대전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 도자, 금속, 화각, 제지, 건축, 자수, 목공예등 전통공예분야의 작품으로 전통기법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면 가능하며 1인당 2점 이내로 출품할 수 있다. 접수는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02)566-5951~3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와 한국종교서예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 출품작품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서예대전 참가 분야는 한문, 한글, 문인화(사군자 포함), 전각, 고유서체 등으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원서는 9월 20일부터 배부한다. (02)730-4846

신 개 발 품



김시연스님

시·연·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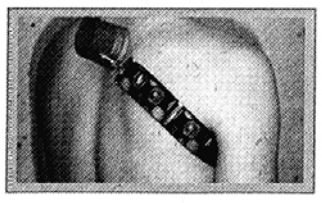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랑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거든 하물며 정식을 가진 사람이겠는가?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라니와 더불어
무농약 유기농 재배로 깨끗하고 약성이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법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점이 황토삼백초 만의
다른 점입니다.
손님 접대, 선물용으로 제격입니다.





참고서적 :
조규형 편저 [삼백초 건강법]
97.11.6 MBC-TV '고향은 지금'
98.9.24 KBS-TV '6시 내 고향'
99.7.10 SBS-TV '모닝 와이드' 등 방영
http://WWW.teafarm.com

SAM BU FARM 삼부농산 전통식품지정업체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간다라 미술' 불교문화의 뿌리

민희식·박교순씨 '불교의 고향 간다라'

유적발굴 경험 토대 집필
불상제작 배경등 자세히
민교수 40년간 자료수집



◇최초로 발굴된 산악 사원인 탁트바히사원 모습.

간다라 불교 이해 없이는 한국불교를 알 수 없다. 한국불교 고향이기 때문이다. 간다라에서 대승불교가 처음 일어났고 불교신앙의 결정체인 불상이 처음으로 조성되는 등 불교미술을 탄생시켰다. 수많은 불상들은 간다라를 기점으로 실크로드를 거쳐 한국 불교에까지 꽃을 피우게 됐다.

불교미술의 본향으로 알려진 간다라를 집중 조명한 책이 나왔다. 민희식 교수(前 한양대)와 간다라 유적 발굴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박교순씨(시인)와 함께 펴낸 신간 〈불교의 고향 간다라〉(가이아 刊)가 바로 그것. 이 책은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초청 받은 두 저자가 간다라 유적 발굴 연구 계획에 관한 토론과 답사를 한 것을 토대로 엮었다. 민교수는 간다라에 대한 자료수집을, 박씨는 간다라 유적지 현장 답사를 맡았다.

이 책에는 히말라야, 카라코룸, 힌두쿠시 산맥이 병풍처럼 동서로 둘러싸고 있는 간다라의 역사 및 지리적 환경에서부터 불교조각, 불상이 태어난 사상적 배경, 조각에 나타난 부처님 생애 등이 조목조목 수록돼 있다. 이처럼 〈불교의 고향 간다라〉는 간다라 문명과 불교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신앙까지도 교감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또 최초로 발굴된 산악사원인 탁트바히사원을 비롯 각종 불상과 관련 사진들도 곁들여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수한 불교미술품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불교문화의 뿌리를 더듬어 본다는 측면에서 책의 가치를 더해준다. 민교수는 "책을 읽어가다보면 간다라의 불상들속에서 순수한 영혼과 신앙의 열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자연속에 깃든 조형감과 본질로부터 우러난 창조력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불교의 고향 간다라〉는 간다라 불교미술을 소개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간다라 불상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학설 비판과 발굴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민희식교수는 "1959년 프랑스에 유학할 당시 간다라예술에 매료되어 연구를 시작했다"며 "우리 불교문화의 고향인 간다라를 통해 한국문화의 뿌리를 더듬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불교미술의 원류로 평가받는 간다라 미술작품들을 전시하는 '간다라미술대전'이 29일까지 예술의 전당 내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어 해설서로 읽어볼 만하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수식어 남용…생명력 살려야"

박영록교수 '선어록해석의 문제점' 발표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19일 선종의 언어를 주제로 열린 백련불교아카데미에서 '선어록 해석의 몇가지 문제점'을 발표한 박영록 교수(충주대)는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선어록 해석서 몇 종을 예로 들어 선어록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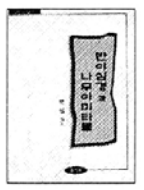
박 교수는 첫째 선사상이란 용어는 선이 곧 사상인 것처럼 해석하게 되는데 알음알이를 깨뜨리는 것이 목표인 '선'이 정신세계의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둘째, 선어록의 상징은 어느 문맥에서든지 기계적 대입이 가능하다는 식의 해석에 대해서 생명력을 강조하는 선에서 이런 죽은 대입관계를 따른다는 가정이 옳은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연꽃은 흙탕(번뇌)에서 피어나는 청정함(해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상징 해석은 선사들의 언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휘 용어로 독립시켜 선어를 개별적인 개념의 문제로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의 남용으로 원문보다 더 애매한 해석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난다. 넷째, 선어록의 비판적 해석은 해석자의 수준이 선사보다 높다고 볼 수 없기에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불교선관계 해석서에 범어나 한문 일어 등이 아닌 영어 단어를 괄호 속에 넣어줄 필요는 없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부연 비교 설명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진리의 향기= 부산 불교방송국에서 초심자를 위해 방송한 기초교리 강좌를 모아 엮었다. 덕천사 주지 원천스님이 엮은 〈진리의 향기〉는 '불교를 공부하자'에서부터 사성제, 삼학, 〈반야심경〉까지 초심자들이 불교의 기초교리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알찬 내용들만 묶었다. '작은 것에서 얻은 큰 깨달음'이란 부제로 출간된 이책은 불교 기초교리 공부에 도움이 된다. 미래문화사 刊, 값 8천원.



▲반야심경과 나무아미타불= 정토염불자들을 위한 한탑스님의 〈반야심경〉 강의서. 경기도 고양시 문사수 법회에서 법문했던 내용들을 모아 소책자로 엮었다. 신앙의 목적, 본래 부처님인 당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를 얽어매는 수없는 어려움들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해준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문사수 刊, 값 3천원.



▲길을 걷노라니= 〈놓고 비우고 버리기〉〈행동하는 참선〉의 저자 장명화씨(48)가 내놓은 첫번 째 선시집. 일상의 자연법칙과 이치를 대입시킨 선시로 또 다른 선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산사에서' '만해를 찾아' '장명등' 선객귀하' 등 모두 7장으로 1백10편의 선시가 수록돼 있다. 저자는 서초구 양재동에 우곡선원을 개원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동해 刊, 값 5천원.



▲속 페허의 붓다= 편안한 삶만큼 편안한 죽음(에고의 소멸)을 강조하는 무묘양에오 특유의 직관과 독설이 번뜩이는 독자들과의 질의응답 모음집 중 두번째 권. 점술이나 민간신앙, 초월적 깨달음의 실체를 분석하는 근본적인 안목과 탁월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이 책은 기존 종교는 물론 새천년기에 우후죽순으로 돋아날 신흥종교의 사회적 영향, 맹신도들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는 밀레니엄시대의 종교비판서. 모색 刊, 값 1만원.

고건축서 배우는 깨달음 세계

김봉렬씨 '앎과 삶의 공간' 펴내



건축은 영원한가. 위대한 건축은 깨달음의 변화를 담고 있다. 영원한 건축이란 그 깨달음을 전달해주어 또 다른 앎을 가능하게 하며 항상 변화하면서 또 다른 삶을 얻게하는 건축이다. 앎이란 깨달음이며 삶이란 변화다. 그런 점에서 현재에 충실한 건축이 영원해 질 수 있다. 몇십년 밖에 버틸 수 없는 짧은 수명의 한국건축이 영원한 고전으로 다가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우리 건축을 새로운 시각에서 집대성한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 두번째 권 〈앎과 삶의 공간〉이 나왔다.

첫번째 권 〈시대를 담는 그릇〉이 건축을 통한 역사읽기를 시도했다면, 두번째 권이 이 책의 주제는 한국건축의 다양한 전통들이다. 석굴사원에서 정원까지, 개인주택에서 마을까지 1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국건축의 다양한 시대와 정신 그리고 기능들을 다루고 있다. 이 다양한 앎과 삶의 건축들을 통해 한국건축의 풍부한 턴용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읽을 수 있을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각각의 건축물 별로 주제를 먼저 선정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전통건축의 맥락과 구성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이상건축 刊, 값 1만8천원.

현장스님 '죽음을…' 단행본으로 재출간

현장스님(보성 대원사주지)의 〈죽음을 준비합시다〉가 우리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재출간됐다. 이 책의 내용은 지난해 2월 도서출판 연지문에서 발행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나, 독자들이 읽기 쉽게 편집했다. 또 정토법문을 처음 열고 정도수행자들의 공동체인 백련사를 개창한 중국 정토종의 첫번째 조사 혜원화상(338~417)부터 열번째 조사 철오선사(1741~1810)까지 모두 10명의 조사스님들의 행장을 정리해 추가했다. 우리출판사 刊, 값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2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 인 호	여 백
3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연학연구원	불교시대사
4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5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창작시대
6	자 떠나자 원효찾으러	장 휘 옥	시 공 사
7	화두이야기1	이 은 윤	동아시아
8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쭈 민 환	정 우 사
9	길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정 찬 주	해들누리
10	벽암록	오 현	불교시대사

구입문의:(02)737-0695

생활불교 실천불교 | 조주스님 지음

일상생활속 '불교의 실천' 안내



대중불교는 풍부한 계·율·론 삼장(三藏)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불자들은 흔히 기도 염불 불공 참선 등 불교지식에 대해 단편적인 상식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신간 〈생활불교 실천불교〉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교리 해설서가 아니다. 시대에 맞는 폭넓은 가르침으로 일상생활속에서 불교의 생활화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조주스님은 머리글에서 "학생들이 여러과목을 공부하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듯이 불교를 처음 접하는 대중들은 먼저 각종 수행문을 익힌다음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방편을 닦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여래 刊, 값 7천5백원

화제의 책

불교사상의 연원 | 김종명 지음

불교사상 어떻게 형성 발전했나



불교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어 전해졌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전국불교신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종명씨가 내놓은 〈불교사상의 연원〉은 세계사상사 중에서 불교사상은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시대와 사회에 대하여 실제로 어떻게 영향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고 있다. '불교사상의 역사적 고찰'을 시작으로 불교사상의 형성, 근본불교의 사상, 밀교의 사상 등을 적고 있다. 저자는 "불교사상의 연원을 조명하고 미래에 불교사상이 어떻게 영향력을 밝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있게 관념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신아 刊, 값 1만2천원.

화제의 책

마음의 여행 | 이경숙 지음

삶-죽음-영혼의 세계 과학적 설명



불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 영혼과 사후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마음의 여행〉은 선과 명상의 수행을 통해 표현하기 힘든 여러가지 영적인 체험을 한 저자가 종교뿐 아니라 현대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등의 과학에서 삶과 죽음, 영혼의 존재에 대한 근거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종교와 과학 그리고 신비의 세계를 헤메고 돌아와 쓰는 방랑기이자 견문록인 셈이다. 불교가 가르치는 의식의 세계와 우주물리학 양자론을 비롯한 과학의 세계 사이에서 영혼과 윤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접점을 제시한다. 정신세계사 刊, 값 9천원.

오현 스님과 함께 읽는

벽 암 록

새로운 동양의 마음, 현대문명의 해독제 禪!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상천외한 선화(禪話), 동문서답식의 선문답(禪問答)은 일반인들이 선을 접하고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시인이자 백담사 무금선원의 회주인 오현 스님은 선종의 종문제일서로 일컫는 ≪벽암록≫을 천기누설하듯 풀어헤쳐 일반인들이 깨달음의 세계, 선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보이고 있다.
시인의 직관과 수행자의 깊은 체험이 배여 있는 해설에는 촌철살인의 기지와 인간에 대한 따듯한 이해가 짙게 스며 있어 책 읽는 감동을 더해준다.

■조오현 역해/신국판 344면/값 10,000원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타스님이야기법문

이 시대의 청정율사 일타 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법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와 재가불자에게 보내는 일타 스님의 해탈과 행복의 메시지108가지.
불교우화집 ≪백유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야운 스님의 ≪자경문≫ 등 역대 조사 스님들의 금쪽같은 법문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들려주고 있다.
스님의 체험, 인연담을 곁들여가며 때로는 따끔하게 경책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힘을 북돋아 주는 스님의 법문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버이 같은 따뜻한 정이 묻어 있다.

■일연학연구원 엮음/신국판 344면/값 10,000원

소원성취 영험도량

한국불교 기도성지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등 한국 최고의 소원성취 영험도량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성문 외 씀/신국판 260면/값 6,000원

불교사상의 이해
교재편찬위원회 편/신국판 454면/값 12,000원
불교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한 새로운 감각의 불교입문서.

선의 역사와 사상
정성본 지음/신국판 534면/값 15,000원
선의 발생과 그 전개를 역사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 선불교(禪佛敎)의 정신과 핵심사상을 명료하게 구명하고 있다.

新반야심경강의
혜담 스님 지음/신국판 228면/값 5,500
불교사상의 에센스 ≪반야심경≫ 강의록. 이 책은 기존의 해설서에서 등한시한 반야신행을 통한 인간고(人間苦)의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반야심경≫을 쉽게 풀어쓰고 있다.

허공의 몸을 찾아서
석지명 지음/신국판 620면/값 12,000원
≪법구경≫ ≪숫타니파타≫ ≪금강경≫ ≪법화경≫ 등 중요한 경전을 해설한 책. 각 경전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현대적으로 풀이하고 있어 경전을 직접 읽고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다.

재미있는 禪이야기 100
신지우 편저/신국판 260면/값 6,000원
이상하고 신비스럽고계만 여겨지던 선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청량감 넘치는 선어 100개를 뽑아 재미있는 일화를 곁들여 해설한 책.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B/D 13층 불교시대사 전화 730-2500(대), 723-1679 팩시 723-5961

제1회 만해축전 '님의 침묵' 세계로 미래로

만해스님 탄생 120주년 설악산 백담사서 13~16일 열려

단해 한용운스님(1879~1944)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만해축전이 〈님의 침묵〉 〈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등을 집필해 '만해학의 고향'이라 일컫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8·15를 기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 강원도,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만해축전(대회장 고은·미국 하버드대 교환교수)에는 백담사 회주 오현스님을 비롯 조병화·고은·신달자·유안진·이가림 시인, 소설가 조세희씨 등 국내문인들과 세계적 불교학자 루이스 랭카스터(미 버클리대) 엘리자베스 앙드레(프랑스 툴루즈대) 한국학자 데이비드 매칸(미 하버드대)박사 등 6개국 외국학자와 참관인 등 연인원 1천여명이 참석해 국제적인 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일반인 대상의 제4회 만해시인학교에는 170여명의 참석자가 몰렸다.

13일 만해시인학교 입교식에 이어 14일 열린 만해축전 개막식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만해축전이새로운 세기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발원한다"고 일갈했다. 이에앞서 대회장 고은시인은 대회사에서 "만해의 '전인'의 삶은 이원론적 세계를 극복하는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해축전의 핵심은 '만해문학의 세계적 인식'이란 주제로 15일~16일까지 열린 만해학국제학술대회와 14일 열린 '20세기 한국 현대시의 반성과 전망'이란 주제의 한국문학심포지움. 심포지움에서 기조강연을 한 서울대 김용직교수는 "일제하 시의 형이상적 불모현상으로 50년대에 접어들기까지 가벼운 감정표출의 단계에 머물렀을지도 모를 현실에 만해스님은 우리 시의 이런 빈터를 메워나갔다"고 주장했다.



◇제1회 만해축전이 설악산 백담사에서 13일~16일까지 열렸다. 사진은 개막식 모습.

이번 단해축전에서는 대표적인 작품 '님의 침묵'이 김말애교수(경희대)가 한국무용으로 창작해 백담사 야외무대에서 발표했고, 작곡가 이진구씨가 창작 합창곡으로 만들어 개막식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만해문학의 밤, 고은시인의 '만해 누구인가' 특강, 작가와의 대화, 님의 침묵 퍼포먼스, 광복절 기념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위영란·김중근 기자 (yryui@buddhapia.com)

"만해사상은 21세기의 가치 덕목"
"만해학으로서의 연구가치 충분"

국제학술대회 '만해문학의 세계적 인식'



◇인권환교수



◇한계전교수



◇랭카스터교수



◇앙드레스교수

만해스님의 생명사상과 자유·평등사상, 민족·민중사상, 진보·통일사상 그리고 평화의 철학이야 말로 21세기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가치덕목이란 관점이 학술대회에 참여한 발표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이와관련 만해스님의 시와 사상이 인도 시인 타골을 능가한다는 점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세계적인 조명이 과제로 부각됐다. 각 발표자들의 요지를 정리한다. 〈편집자 주〉

▲인권환(고려대 교수) : 만해학 성립은 가능한가. 수많은 시를 비롯 소설·수필·기행문·일기 등을 남긴 문학자였고, 이론과 행동을 겸비한 독립운동가 및 불굴의 지사였다. 이와같은 점은 사후 55년간 400여 편에 이르는 국내외의 저서와 논문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200여명에 의해 이미 검증됐다. 〈님의 침묵〉의 경우 전세계에 소개됐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만해학 성립 조건은 충분하다. 하지만 연구서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관심은 많으나 질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드물다는 증좌다. 만해학의 기반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할 과제다.

▲루이스 랭카스터(미국 버클리대 교수) : 만해스님은 조선불교 전통의 산물이자 새시대 현대성의 산물이다. 만해는 당시 불교를 새시대와 미래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만해스님은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회상황을 체험했고 여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불교문헌들을 연구했다. 만해스님의 작품이 전통적 불교용어로 가득하지는 않지만 만해는 불교 안에서 이해를 찾았다. 만해의 글귀들로부터 중생의 평등성 불성공유 등 그분의 불교적 철학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계전(서울대 교수) : 비록 만해의 성장기에 관한 자료가 빈약하더라도 그가 살았던 시대와 자란 환경을 재구성해 사상의 뿌리를 캐어볼 필요가 있다. 18세(1896년) 고향인 홍주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기나긴 항일운동을 시작한 만해는 한국의 성리학 즉 호학이 크게 발달한 홍주지방 지식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오늘날 만해의 불교사상이 '유가불교'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앙드레스(프랑스 툴루즈대 교수) : 만해는 비록 정치적 참여에 대한 초연함, 전통사회의 엄격성에 반대하는 투쟁, 종교적 깨달음의 성취,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관조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틀에서 벗어난 비정형적인 시인이다. 만해의 종교적 성취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만해를 신성한 채원을 깨달은 위대한 종교의 절대적 숭배자 중 하나의 모델로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생생한 체험을 갖게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매칸(미국 하버드대 교수) : 다른 시집이나 운문 연작과는 달리 만해의 〈님의 침묵〉은 많은 목소리로 말한다. 민족적 종교적 서정적 혹은 기타 표현들로 된 여러 다른 영역에서도 들려온다.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질문하는 소설의 언어를 소설 스타일의 독특한 특징으로서 묘사하기 위해서 '다성언어'라는 용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시인으로서 만해의 업적을 가늠하는 적절한 방법같아 보인다.

▲이반나(체코 만해연구가) : 체코는 한용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나룻배와 행인' 등이 체코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시다. 한용운은 전통 한국 시로부터 많은 모티브(동기)를 빌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불교적인 직관에 의해 깊히 영향받은 것으로 그의 자유를 사랑하는 상상력에 따라 다뤄진다. 한용운의 단어는 침묵에 중점을 둔다. 매우 중요하고 흥미있고 흥분된다.

▲테레사 현(캐나다 요크대 교수) : 만해로 인해 한국 현대시는 그 속에 미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만해와 타골의 비교문학적인 연구를 통해 만해가 타골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타골의 시정신과 김억이라는 창조적인 번역인을 통해 새로운 시형식의 영향아래 창조된 한국 근대문학사의 최대 열매로 해석될 수 있다.

▲권영민(서울대 교수) : 만해의 소설은 도덕적 정신적 절대성의 언어로 구현된 세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설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의 소설은 신성성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것의 의미를 극화하려는 기획으로 볼 수 있다. 만해의 소설은 물론 성공적인 소설 양식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다. 그는 현존하는 현실로서의 삶보다는 그가 대망하는 약속으로서의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만해 시인학교 백일장 장원詩

백담사에 와서

안개비 오시나.
산은 아니 젖는데 마음이 젖는다.
자갈자갈 마당귀에 속삭여
만해선사 침묵을 깨우려 드니
님은 말씀없고 빗소리만 흘흘하다.
이십년 정든 님은 바람으로 여의고
청청한 설악산 자락에 설움 한을 풀려 했더니
여기 무엇하러 왔는가
백담계곡 물소리에 귀나 씻고 가라하네
네가 예서 살려하느냐
네가 예서 죽으려하느냐
무념무상 입선하는 나무들마다
낭랑한 독경소리 새처럼 앉았는데
화안히 눈 뜨는 부처를 보고저
법당 앞에 서성이는 마음
들췰세라 고만 동자꽃처럼 붉어진다.

노연화(경북 구미)

제3회 한민족철학자대회 '한민족과 2천년대의 철학'

'한민족과 2000년대의 철학'을 주제로 한 제3회 한민족철학자대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분석철학회, 과학철학회, 해석학회 등 12개 학회와 6개의 주제분과, 5개의 자유분과 등으로 나눠 논문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열암 박종홍 선생과 뇌허 김동화 박사의 불교학연구방법론에 대한 비교연구를 비롯해 물리철학과 심리철학에서 제기되는 인과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불교적 인과와 연기사상에서 찾고 있는 논문 등이 눈길을 끈다.

"특색찾기·내적경험 배제 잘못"

◇열암 박종홍과 뇌허 김동화의 불교학 연구 비판: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조성택 교수(뉴욕주립대): 박종홍은 현대 한국 철학의 제1세대로서 전통사상에 머물렀던 불교 유학 동학 사상들을 철학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은 그의 공적이다. 박종홍은 한국사상을 '한국의 특색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불교사상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의 불교사상과는 다른 특색을 찾는 것이 곧 한국 불교연구의 과제이고 나아가 한국철학의 과제라고 생각했다. 특색 찾기를 한국 사상 연구의 중요 목적으로 삼은 박종홍의 태도는 지금도 동양 사상을 연구하는 많은 동서양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이다. 지역적 특색을 주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불교학을 인문학이 아닌 지역학적 연구로 시작한 서양 학자들의 문제의식이다.

김동화의 불교학 연구 출발점은 근대이후의 일본 불교학계의 불교학에 대한 태도이다. 김동화는 저서 〈불교학개론〉에서 불교연구의 분야를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연구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불교의 철학적 연구에서 해탈론 등의 실천 이론들을 제외시키고 있다. 불교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오류가 바로 '수행'이나 '깨달음' 등 내적 경험을 배제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의 근본에는 서양 철학적 개념의 철학만을 철학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불교의 철학적 사상 체계는 결국 수행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실재와 인식의 단계에 관한 것이라 해도 좋다. 또 김동화가 주장하듯이 불교의 진리론이 객관적 철학적 진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불교의 진리는 주객합일(主客合一)의 진리로서 수행의 정점인 깨달음의 경험에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다. 불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불교 텍스트가 깨달음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며, 거기에는 이성에 의한 일상적 체험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실재에 대한 경험이 반영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존재론 대신 법계론 연구"

◇인과와 연기-현남규·양영웅 교수(제주대 물리학과·철학과): 불교의 연기는 '연이어 일어남'과 '함께 일어남'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12연기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심적인 것도 함께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면성은 심리철학의 심적 인과 논의에 있어 참고가 된다.

불교의 육계설에서 식계는 순수한 심적 작용 또는 심적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작용과 함께하는 물적 존재를 지칭하고 있는 술어로 볼 수 있고 이것으로 물심의 불가분리를 강조할 수 있다. 부처님이 존재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우리의 외부 세계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법계'라는 사실의 자각에 기인한다. 불교의 '연기설'에서 심리철학에서의 심신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존재'보다는 '법계'의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심리철학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법계론'적인 문제로 방향을 전환시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부처님이 쉬운 오온설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연기설에 이르기까지 45년을 계속 설법하시는 과정에서 '존재' 대신에 '법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심신이 동일한가 다른가와 같은 심리철학에서의 '존재론'적 문제를 불교철학에서의 '법계론'적 문제로 방향을 바꾸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준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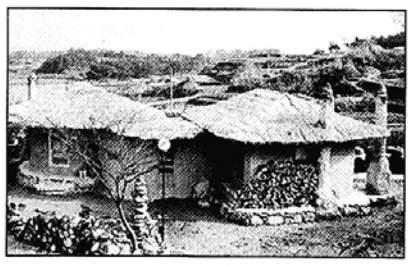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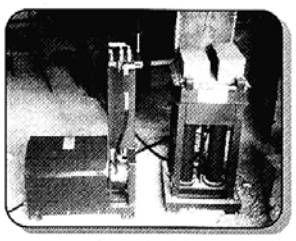
◐ 상담문의 ☎ (02) 3437-8282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예산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조계사 전 주지 진현근 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공개합동조사를 위한 사전 협의의 시기와 방법을 '진현근 측'에서 정하기 바란다.

1. '진현근 측'은 지난 7월 28일 자신들이 제안한 공동 조사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2. 조계사에서 8월4일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하여 그 시기와 방법 등을 공개 제안하였음에도 8월20일 현재까지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는 이유를 '진현근 측'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3. 만일 '진현근 측'에서 진심으로 합동 조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조계사 신도와 종도들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4. 조계사는 '조계사 전 주지 진현근 횡령 사건'에 대한 공개합동 조사의 사전 합의를 위해 '진현근 측'이 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5. 향후에도 '진현근 측'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와 의사가 없다면, 이는 그동안의 일련의 행위가 언론을 이용한 여론호도 행위이며 '진현근 측'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과 허구를 만천하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6. 조속한 시일 내에 '진현근 측'의 공개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있기를 바라며 '진현근 측'이 지난 날 공인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갖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43년 8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홍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02)732-2183/ 전송 02)720-1391

이입사행설 연관에 주목

경전 속의 禪 사상 31

금강삼매경 (上)

원효스님이 최초로 주석서 펴내 강의
'한국찬술 위경' 등 성립배경에 이론

글쓴이

최유진
〈경남대 인문학부 교수〉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선이지만 선 수행도 그 나름의 이론 형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전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여러 선의 이론들이 성립했고 선종이 성립하는 데에도 여러 경전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능가경〉, 〈금강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는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도 이입(理入), 행입(行入)의 이입설(二入說)이 나오므로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설(二入四行說)과의 연관 문제로 관심을 끌어 왔다. 그리고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이 이 경전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이므로 우리에게도 낯익은 경전이다. 먼저 이 경의 성립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선사상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

〈금강삼매경〉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양(梁)나라 시대 승우(僧祐; 445~518)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 나온다. 여기에 도안(道安; 314~385)의 〈양토이경록(凉土異經錄)〉(현존하지 않음)에는 〈금강삼매경〉 1권(역자 불명)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는 없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이후의 여러 경전 목록에는 계속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다가 730년의 경전 목록에서는 현존하는 것으로 나온다. 몇 백 년 동안이나 없어졌던 경전이 새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는 것은 신라에서다. 〈송고승전〉의 원효 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강삼매경〉의 발견 및 그 경전과 원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왕비가 병이 났는데 백방으로 애써도 고치지 못하여 다른 나라로 약을 구하러 뱃길로 사신을 보냈더니 가는 도중에 용궁에 가서 용왕을 만났다. 용왕은 용궁에 보관되어 있던 흐트러진 〈금강삼매경〉을 주면서 왕비의 병을 인연으로 이 경전을 널리 퍼뜨리도록 하라고 하면서, 대안 성자에게 순서를 맞추도록 하고 원효 법사에게 주석서를 써서 강의하도록 한다면 왕비의 병은 반드시 낫는다 하였다. 대안이 경전의 순서를 맞추고 원효가 소의 수레 위에서 주석서 5권을 지었으나 도적을 맞아서 다시 3권으로 주석서를 써서 강의를 하였다. 3권짜리 주석서가 중국에 수입되었는데 나중에 경전 번역하는 삼장법사가 논으로 삼았다."

이 경전은 도안의 목록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730년의 목록에 다시 나타나므로 위경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 특히 이입설이 나와 있으므로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설이 이 경전에 근거한 것이라 하여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1955년에 이 경전은 번역 경전이 아니라 한문으로 찬술된 경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이 경전에 현장의 신역 용어가 나타난다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설에 경전적 근거를 확실히 제공하기 위해서 650~665년 무렵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후에는 위경이라는 학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그 제작자와 제작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설은 없는 상황이다. 당나라 초기 중국에서 종래의 불교학설에 통한 자가 그런 제학설 망라하여 지었다는 설, 우리 나라 최초의 선승인 법랑(法朗)이 작자라는 설, 대안(大安)이라는 설, 대안 내지 혜공(惠空)이라는 설, 원효가 먼저 〈금강삼매경론〉 쓰고 대안이 〈금강삼매경〉으로 정리했다는 설, 거사를 이상으로 하는 인물이 제작했다는 설, 한국에서 거사 비슷한 신분을 가진 사람 그룹에서 만들었다는 설 등의 여러 학설이 나와 있다.

현재의 연구 동향을 보면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찬술되었다는 설이 좀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 경전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송고승전〉의 기록을 보아도 그러하고, 원효의 주석과 함께 이 경전의 존재가 알려지므로 중국보다는 한국에 먼저 이 경전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전의 제작자 문제도 중국 선종과의 연관성 아래에서만 보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 경전이 우리 나라에서 찬술된 것이라면 고려대의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 조선대의 〈염불인유경(念佛因由經)〉 및 우리가 잘 아는 〈천수경(千手經)〉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경전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경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12)

진리의 향기 ④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생활환경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
깨어 있으면 업의 전개과정 알수 있어

우리가 의지라고 믿는 것은 그 하나 하나가 모두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 이 의지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생한다. 우리는 이 반응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삼아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빚는 것은 우리의 것과는 전연 무관계하며,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어 주는 일은 희소하다. 또 그 결과는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며, 서로가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을 때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뿐만 아니라 마음 씀씀이는 우리의 모습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즉 행위를 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 친절한 생각은 우리의 얼굴을 밝고 즐겁게, 심지어는 아름답게까지도 만든다. 성내거나 미워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위는 우리 얼굴에 추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의지가 주변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의 태도면에 끼치는 직접적 결과 이외에도 보다 먼 장래에 끼치는 훨씬 중요한 결과가 또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주변환경에 끼친 직접적 영향의 확대판이라 할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는 그 하나 하나가 전 우주를, 그 질서정연한 진행을 바꾸어 놓는다. 물론 그 변화는 지극히 작은 것이긴 하다. 그러나 전 생애에 걸쳐 짓는 우리 행위의 총체는 우리가 씨뿌린 영향력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익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지한 탓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실제로는 자기 마음이 투사된 것에 불과하며 또 자기가 봉착하는 갖가지 사건이나 사태도 자신이 과거에 지은 행위가 빚은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개개인간에 겹겹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와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수많은 유사성의 욕구와 성향 때문에 갖가지로 색다른 존재들이, 이를테면 한 개의 동일한 세계에 같이 존재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우리의 내면적이며 맹목적인 성향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며, 그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성향이 갈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기 특유의 목표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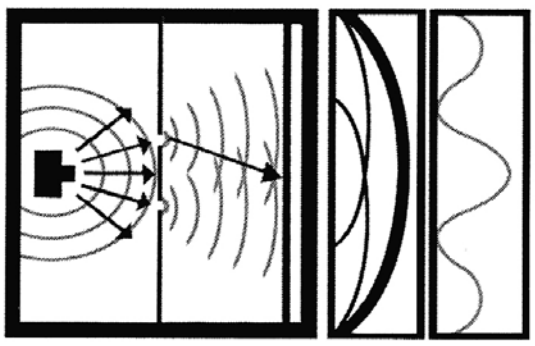
겉으로 보기엔 하나의 같은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각자 나름의 세계관이란 그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며, 사실상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자기네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챙기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상태와 모든 행위를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업의 결과가 현재의 우리 마음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것에 대해 마음이 구체적 반응을 취하는 중요한 순간을, 다시 말해서 의지적 행위가 취해져 업의 전개를 다시 한번 작동시키고 그래서 결국 영속적으로 거듭 되풀이되도록 만들고 마는 그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 학 산 책

양자역학



전체를 봐야 사물 바로본다
음파 · 전자발사 실험 통해
상호간섭 현상 알아내

양자역학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설명한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보어는 "양자역학에 의해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왠지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주제라고 느낀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양자역학의 매력은 양자역학이 체계화되면서 관찰자와 관찰대상과의 연관성과 같은 인식론, 경험론, 존재론 등의 철학적 문제가 과학적 사고에 깊숙이 도입된 것이다. 또한 양자역학은 데카르트와 뉴톤의 이원론, 기계론보다는 종교의 신비적 경험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전체성을 강조하는 사고를 강요한다.

양자역학이 기술하는 원자의 세계가 우리들의 세계와 다르다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실험이다. 이중 구멍(slit) 실험이라고 불리는데 장치의 중앙에 벽이 하나 있고 이 벽에는 중앙에서 약간씩의 거리를 두고 가느다란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이 벽 너머에는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검출기는 실험에 따라 다양한 기계가 쓰인다. 벽 앞면에는 발생장치가 설치된다. 간략히 말하면 무언가를 두 개의 구멍이 뚫린 벽에 쏘아 보내고 벽 뒷면에서 검출기를 이용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총알을 쏘아본다. 두 개의 구멍 중 하나를 막고 실험을 해본다. 뚫린 구멍의 중앙 뒤면에 총알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수가 적어진다. 다른 구멍에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면 역시 같은 결과를 얻는다. 자 이제 양쪽 구멍 모두를 열고 실험을 한다. 결과는 각 구멍을 열고 실험한 결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즉, 검출기가 설치된 벽면 중앙에 가장 많은 총알이 발견되고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총알이 적게 발견된다.

이제는 총알대신 음파를 쏘아보자. 위에서와 같이 한쪽 구멍을 막고 실험을 한다. 한쪽 구멍을 막고 실험을 하면 총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열린 구멍의 중앙에서 가장 많은 음파가 검출되고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음파가 적게 검출된다. 양쪽 구멍을 모두 열고 실험을 하게 되면 총알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즉, 간섭효과에 의해 벽면 중앙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중앙에서 멀어지면서 작은 값을 갖다가 다시 값이 증가하여 중앙보다는 작지만 그 부근에서는 최고치를 갖는다. 이런 경향이 검출 벽면의 중앙에서 멀어지면서 반복된다. 이는 양쪽 구멍을 통과한 각각의 음파가 최대치에서 합해지면 큰 값을 갖게 되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합해지면 적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코고 작은 값의 변화는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이는 초급 몰리 시간에도 배운 내용으로서 음파와 같은 파는 양쪽 구멍 모두를 통과하여 서로 간섭하기 때문이다. 총알의 경우는 음파의 경우와는 달리 한쪽 구멍만을 통과한다.

자, 이제 전자를 가지고 실험해 보자.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라고 여겨지고 있다. 아직까지 전자가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자는 기본입자로 여겨지고 있다. 전자는 총알과 같이 공간상의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므로 위의 총알 실험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자총을 이용하여 전자를 발생시켜 벽면에 쏜다. 한쪽 구멍만 열고 실험을 한 뒤 이 구멍을 닫고 다른 한쪽을 열고 실험을 반복한다. 한쪽 구멍만을 열고 하는 실험은 총알이나 음파가 같은 결과는 내는데 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양쪽 구멍을 모두 열면 결과는 음파의 경우와 같다. 전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양쪽 구멍을 모두 통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음파의 경우와 같은 결과는 내다니!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참배움과 참실천의 보살행
제2기 복지보건 간병봉사자
· 신입생 모집 ·
불교복지보건대학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복지보건 간병봉사자과정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전문화된 보건지식과 간병 실습을 통해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입학안내

구 분	제2기 복지보건 간병봉사자과정
입학자격	간병봉사에 관심있는 19세이상~60세
강의기간	99년 9월 7일(화)~12월 3일(금) 3개월
강의일시	매주 화,금(오후 2~5시)
강의장소	불교복지보건대학
원서접수	1999년 9월 7일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교부 및 접수 처	불교복지보건대학교무실 (☎ 647-6556)
모집인원	80명
입학식	1999년 9월 7일(화) 오후 2시
수강료	50,000원×3 (3개월 교재제공, 분납가능)
특전	유급, 무급 간병봉사자 활동 알선 (유급활동을 위한 상담실 운영)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 학장 혜도스님

뜸.사.랑 부산동문회 결성
『침과뜸으로 승부한다.』의 저자
· 한국 최고의 침구사 ·
『김남수』 원장 초청 강좌 모임
김남수 원장은 …
「침」과 「뜸」에는 중국과 일본의 명의들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경제 인사들의 단골침구사로 활동하시며, 선생님께서는 복지보건 봉사활동 및 무의탁 노인들에게 참인술을 베푸시는 명인 이십니다.
다 음
◇첫 강 좌 99년 8월 30일 (월요일 오후 7시~10시)
◇강좌기간 99년 8월 30일(월)~ 2000년 2월 28일(6개월)
◇강의시간 매주 월(오후 7시~10시) 토(오후 2시~ 5시)
◇접수마감 99년 8월 28일(토) 까지
◇장 소 불교복지보건대학
◇참가대상자 스님,법사, 의료인, 지강인, 명퇴자, 주부, 대학생 등 전통의학 (자연요법, 대체요법, 민간요법)에 관심 있는 분)
◇문 의 051)647-65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건축사협회 빌딩 6층)
문의: 051)647-6556
팩스: 051)647-6554

大道眞人 육신(庚申) 道通 정진 大法會
오는 9월 4일 토요일과 일요일 경신일은 음력 7月 · 달 경신달이므로 동참하시어 대우주에 감춰지고 땅의 큰 비밀을 하늘의 뜻과 본인이 직접 통섭, 권능과 능력을 받아 만인을 제도할 수 있는 천장지비법 대비밀장의 근본인 육경신 도통으로 새천년을 맞는 지도자 및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력 7월은 잔나비달이므로 입문하신 분에게는 영과 혼을 마음으로 통섭 정신,심신,육신의 구천을 평정. 大道心力通天과 심리학적 心의 사상과 六意六根六識으로 천안통, 천리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루진통을 얻어 수마, 인마, 색마들을 항복받아야 도인, 선인, 진인 출현미묘법으로, 유,불,선,천주교, 기독교, 토속종교를 육통으로 포용할 수 있는 대융맹정진 수행으로써, 생애의 영생비법과 영가해탈법과 득도법으로, 병마에 고통받고 신에 고통받는 분들은 ㊙ ㊙ ㊙도법과 본인기도로 성취하는 날인고로 귀신도 알지 못하며, 천복의 음력 7월달 경신일인고로 모든 마장을 이기고 큰 뜻을 가진 분은 태양의 진면목을 채득, 후천증상 인본시대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찬란한 태양의 이름으로 가름합니다.
● 입제 : 9월 4일 亥시,해제 9월 5일 亥시 일요일
● 회비 : 1박2일, 식사제공, 일금 5만원
● 장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0-188호 본원
● 전화 : 02)821-6622/야923-3110 휴 016)239-3110
노선버스 85,25,26,94,95,102,303,33-1,142,26-3
전철1호선 노량진역 하차 버스 2호선 신림동 7번출구 앞 버스정류장
(구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골목 안에 있음)
太日宮六神道通會 대한불교 약사선원장 태일 법사 합장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시방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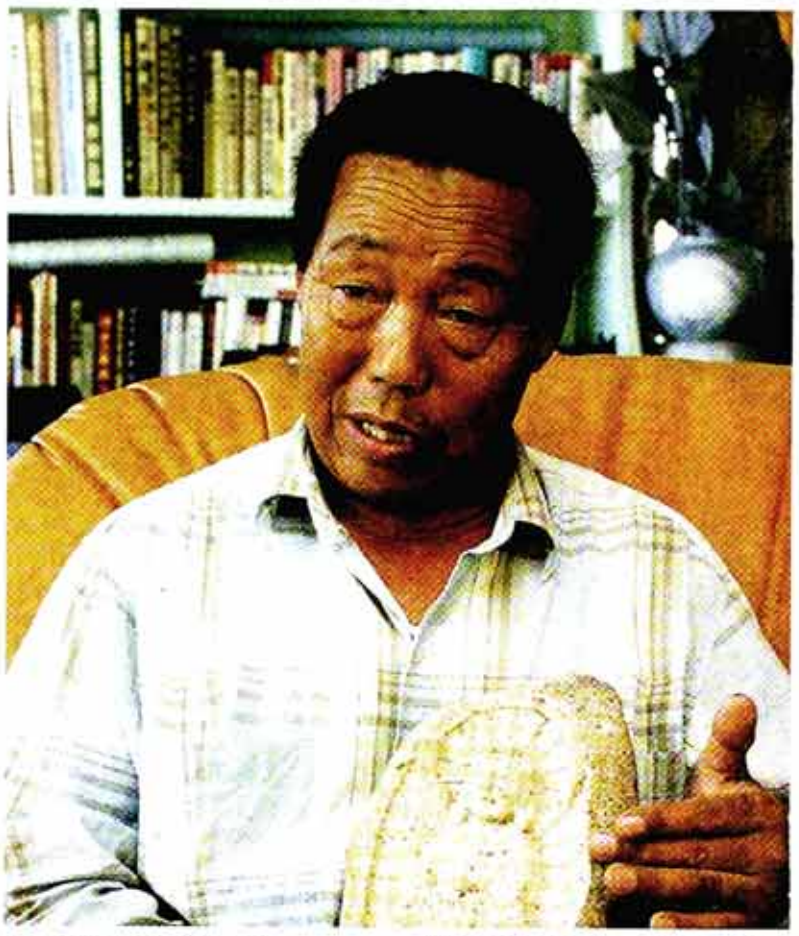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바위속 부처님 나투시려면…"

산문밖의 선禪 석공예 명장 권오달씨

"정성 쏟으면 돌은 부처님이 되고 불국토 염원하는 중생에 미소로 화답"

석불 석탑 조성자는 탐욕 다 버려야 40년간 돌과 함께 산 '제2의 아사달'



'똑 똑 똑…'

커다란 돌덩이가 한 점 한 점 정으로 쪼아지자 서서히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처음에는 그냥 풍그스런 선(線)으로, 차차 눈 코 입과 손이 생기고 마침내 눈동자가 빛을 얻고 입가에는 미소가 원만하다. 누구의 말대로, 석불은 정으로 쪼아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처님이 바위속에 숨어있는 것을 불모(佛母)의 정성과 기예만큼 그 모습이 밖으로 나투시는 것은 아닐까.

38년간 8백여 작품을 만들며 전통석조예술의 한우물을 파온 권오달씨(57세)에게 돌은 돌이 아니다. 차가운 광물체이지만 그에게는 돌속에 들어있는 따뜻한 숨결이 느껴진다. 그 숨결은 처음엔 들릴락 말락 미미하지만 자꾸 어루만지며 세심하게 정성을 쏟다보면 점차 살아나 그가 정을 돌 때마다 박자에 맞춰 화답하는 것을 느낀다.

"돌 하나가 4천년을 간다고 합니다. 거의 영구적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의 작품이 우리나라 전체 역사만큼이나 오래 간다고 할때 어떻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만들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불 보살님일 경우 정말 온 영혼을 바칠 정도로 신심과 정성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40년간 돌을 껴안고 살아온 그에게 96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대한민국 명장(名匠)'을 수여했다. 그전에도 누구보다 깊은 신심과 열정을 가지고 수준높은 작품을 만드는 그를 두고 주위에선 천년전 백제 최고의 장인이었던 아사달에 비유해 '제2의 아사달'로 부르고 있었기에 '명장' 수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사명감을 느끼는 터였다.

그는 30대초반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을 오로지 전북 익산에서 살고있다. 익산은 천년전 신라석조예술을 꽃피운 아사달의 혼이 살아있는 곳이다. 또 미륵사지석탑, 왕궁리석탑, 연등리석불 등 국보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거기에다 미륵산 줄기에는 어느 곳을 헤쳐도 희고 미려한 전국제일의 화강암이 풍부하니 자연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석조 명장들이 있게하는 천혜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다.

권오달씨는 19세 나이에 이종현 장인(匠人) 아래에서 돌일을 시작했다. 3년간의 도제생활 동안 일을 가르쳐주고 밥을 먹여주니 그저 고마워 다른 생각없이 열심히 배웠다고 한다. 당시 돌일의 가장 기본은 불을 피워 정을 다루는데서 시작했는데 도제생활은 정말 인정사정이 없었다. 실수하면 뺨갈게 달구어진 정으로 정강이든 어디든 꽉 쑤셔버렸다. 살이 탈 정도로 벌겋게 데었음에도 아프단 소리조차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고 배워야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러한 혹독한 시련이야말로 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 인내를 다지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3년후 기량을 인정받게된 권씨는 정 20가락과 부속품을 받고 독립하게 되자 돌을 찾아 전북 익산으로 내려왔다. 시간이 가면서 권씨의 남다른 소질은 점차 소문이 나 본격적으로 석공의 길로 들어섰다. 어느정도 연륜도 쌓이면서 주문이 밀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늘면서 그에게 마장이 찾아왔다. 그러나 15년째 되던해 어느순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딱히 이유도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더라구요. 모든 것을 떨치고 걸망을 걸머지고 전국의 부처님들을 뵈러 만행을 다녔습니다. 한 3년을 그렇게 다니자 소식이 오더군요. 젊은 나이에 재주에 취해 오만한 마음이 많았던 나의 작품의 껍데기는 사자상같이 화려할 지 모르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심오한 맛이 없다는 것을" 그는 본격적으로 불교교리를 공부하며 신심을 키우고 전국의 석불 석탑을 연구했다. 조각기술도 숙련만 된다고 다는 아니었다. 변화를 주려면 상당한 진통과 고뇌속에 환골탈태해야 했다.

"4각탑은 사성제, 6각탑은 여섯가지 보살행인 육바리밀, 8각탑은 사탑이 기본적으로 지키고 실천해야 할 팔정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불교적 가르침을 예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낼까가 늘 화두입니다." 그는 82년부터 자신의 작업을 꼼꼼히 일기로 남기고 있다. 자신이 오랜 시행착오끝에 개달은 기법과 재현방법 등을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어서다. 그래서 후배석공들을 위해 8백여장의 설계도면을 그리고 석공기법과 재현방법, 시공한 것을 책으로 펴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은 죄도 짓지말고 업보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재물에 대한 탐욕때문에 짓는 업보이지요.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필요한 것은 가져오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렸지 않습니까. 왕위도 버리고 육심도 버리고 명예도 부도 버리고… 모두다 버림으로써 성불한 것입니다. 석불 조성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떼어내 버림으로써 부처님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글=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전북 익산에 있는 자신의 석재공장에서 조각에 몰두하고 있는 권오달씨.

취재수첩

"전통 석공예의 가치 재평가해야"

돌이 많은 우리나라는 유난히 석공예가 발전했다. 전국에 천여기가 넘는 석탑과 석굴암 등 많은 석불과 부도 등의 섬세한 조각을 보면 그 빼어난 솜씨를 알 수 있다. 통일신라를 정점으로 고려시대까지 석조예술은 명맥을 유지해 오지만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인해 예술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석조예술품은 줄어들고 일제시대를 거치며 석공예의 맥은 거의 끊어지게 된다.

1967년 이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값싼 불교관련 석공예품을 많이 주문제작해 가면서 석공예가 활기를 띠는 듯했으나 우리나라 석공들이 일본식 불상에 젖어 유행처럼 그렇게 제작하다보니 국내불상들도 일본화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일부 그러한 위험을 감지한 권오달씨와 같은 석장(石匠)들이 전통을 이어가고자 단절된 우리 석문화 재현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석공들은 아직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석공예가 우리 전통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추어 불교 중립학교를 비롯 전국대학에 전통석공에 관련학과는 한군데도 없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또 석공예가 무형문화재지정에서 빠져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불교문화 발전차원에서 종단의 관심이 절실한 부분이다.

권오달씨 등은 석문화재 발굴작업시 금석문과 불상등의 경우는 돌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석공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석문의 경우 탁본등을 통해 해석하다보면 글자가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나오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권오달씨는 "금석문의 경우 정으로 글을 새길때 홈 표면에 층층이 1㎝가량 내장돼 있는 만큼 이를 판독해야 한다"며 "문화재 발굴에는 특히 학문적인 것과 기능이 합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애불을 찾아서 삼막사 마애삼존불

눈·입·볼 등 율동감 있게 묘사
칠성신앙과 결합된 조선후기작

삼성산 삼막사 칠성각에 있는 이 삼존불은 자연암벽에 감실을 만들고 거기에 부조한 치성광삼존불로서 석굴사원 유구로 전해오는 중요한 자료이다. 주존인 치성광여래의 머리는 소발에 반달형 계주가 보이며 얼굴은 사각형이지만 눈과 입 볼 등을 율동감있게 묘사, 미소짓게 함으로써 중후하고 자비스러운 인상을 풍기게 한다. 목은 밭아서 더욱 어깨가 움츠려보이고 신체는 두터운 불의에 과묵하고 선각으로 묘사하여 양감을 느낄 수 없다.

좌우 협시보살인 일광·월광 보살은 각각 연화대위에 합장한 모습인데 머리에는 소박한 삼산관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본존과 비슷하지만 환한 미소때문에 활력이 넘쳐보인다. 이 삼존불은 얼굴이나 상체의 활발한 부조로 생동감이 넘쳐 조선불상에서는 과격적인 수법을 보여준다. 그러나 몸의 표현을 생략한 평판적이고 경직된 신체와 하부로 내려갈수록 얇은 기법 등은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불상 아래 건륭 28년(영조39년, 1763년)이라는 명문이 있어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칠성신앙과 다산신앙이 결합한 불교와 민간신앙의 결합상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4호로 지정돼 있다.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삼막사 마애삼존불.



◇용인 한택농원에 피어난 황련.



◇연꽃의 연밥.

희귀한 황연꽃 '보세요'

더러운 진흙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처염상정(處染常淨)'으로 인해 불교에서는 '보리심' '청정무구한 불성'을 상징하는 연꽃. 연꽃이 곳곳에서 만개하고 있다. 연꽃은 7월부터 8월까지 피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홍련(紅蓮)과 백련(白蓮)이고 황련(黃蓮)은 희귀하다. 청련(靑蓮)은 인도에 있다고 한다.

20여년간 연꽃을 주로 찍어온 선암스님(신촌 봉원사)이 7월말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한택농원 연지에서 좀처럼 보기힘든 황련의 만개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우리나라에는 전북 무안, 강진 백련사, 전주 덕진공원, 천안 광덕면, 아산 인취사 등 전국 20여곳에서 연꽃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윽한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사진=석선암(한국불교신문 사진부장)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형은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12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배현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펴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로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헌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팩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 명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⑦

何更求會 若欲求會 便會不得
하갱구회 약욕구회 변회부득
但知不會 是卽見性
단지불회 시즉견성

만약 알려고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며 다만 알 수 없다는 것임을 알면 바로 견성(見性:성품을 봄)이니라.'

問上上之人 聞卽易會 中下之人
문상상지인 문즉이회 중하지인
不無疑惑 更說方便 令迷者趣入
불무의심 갱설방편 영미자취입

물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들은 즉시 쉽게 알겠지만 중하의 사람은 의혹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방편을 설하여 모르는 사람들을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答道不屬知不知 汝除却將迷待悟之心
답도불속지부지 여제각장미대오지심
廳我言說 諸法如夢 亦如呵化
청아언설 제법여몽 역여환화
故妄念本寂 塵境本空 諸法
故妄念本寂 塵境本空 諸法

을 잘 들어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허수아비와 같다. 그러므로 망녕된 생각은 본래 고요하고, 진경(塵境:감각의 대상인 객관세계. 즉 眼, 耳, 鼻, 舌, 身, 意에 비춰지는 대상인 色, 聲, 香, 味, 觸, 法을 말 함)은 본래 공한 것이다.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는 신령스런 지혜가 어둡지 않으니, 이 공하고 고요한 신령스런 지혜의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本來面目: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성품을 말함)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은밀하게 서로 전한 진리(法印)이다.

만약 이 이런 마음을 깨친다면 참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삼계를 초월하고 집에 돌아가(歸家: 본래 부처인 마음자리를 뜻함) 단박에 의심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대비(大悲)와 지혜가 서로 도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므로 하루에 만량의 황금을 소비하듯이 한량없이 귀한 공양을 인간과 천상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대가 만약 이와 같으

"지혜의 마음이 그대의 본래면목 이 마음 깨친다면 삼계를 초월"

고망념본적 진경본공 제법
皆空之處 靈知不昧
개공지처 영지불매
卽此空寂靈知之心 是汝本來面目
즉차공적영지지심 시여본래면목
亦是三世諸佛 歷代祖師
역시삼세제불 역대조사
天下善知識 密密
천하선지식 밀밀
相傳底法印也 若悟此心
상전저법인야 약오차심
眞所謂不踐階梯 徑登佛地
진소위불천계제 경등불지
步步超三界 歸家頓絶疑
보보초삼계 귀가돈절의
便與人天爲師 悲智相資
변여인천위사 비지상자
具足二利 堪受人天供養
구족이리 감수인천공양
日消萬兩黃金 汝若如是 眞大丈夫
일소만량황금 여약여시 진대장부
一生能事 已畢矣
일생능사 기필의

답하다. '도는 알고 모르는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어리석게도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

면 참다운 대장부로서 일생의 할 일을 다 마쳤다 하겠다.'

問據吾分上 何者是空寂靈知之心耶
문거오분상 하자시공적영지지심야

물었다.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공적(空寂)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靈知)의 마음입니까.'

答汝今問我者 是汝空寂靈知之心
답여금문아자 시여공적영지지심
何不返照 猶爲外覓 我今據汝分上
하불반조 유위외멱 아금거여분상
直指本心 令汝便悟 汝須淨心
직지본심 영여변오 여수정심

대답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다.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않고 밖에서 찾는가. 내가 지금 그대의 입장에 의거해서 바로 본래의 마음을 가리켜 그대를 깨닫게 할 것이니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잘 들어라.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도 닦기전에 삼독의

석경스님 〈해인사 용탑선원 한주〉



약 · 1906년 경북 상주生
· 1956년 해인사에서
력 고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84년~98년 〈유가심인 정본수능엄경〉 상 · 중 · 하권과, 〈묘법연화경 주석서〉 상 · 하권 발간
· 현재 해인사 용탑선원 주석

계율 지키지 않으면 겉으로 훌륭한 법문을 해도 껍데기 도인일 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홍수때도 나라의 지도자들은 발빠르게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떠들어댔건만 결과적으로 공염불로 끝나고 재난은 힘없는 보통의 국민들이 당한 것입니다. 거듭되는 어려움은 국민들의 마음을 애국심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지도층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재민들은 낙담보다는 의욕으로 재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레 선업을 쌓게되는 것임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때 병자년으로 기억됩니다만 낙동강에 큰 홍수가 나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가옥과 가축등 전재산이 모두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빈털털이가 되다시피 하자 형님뜻에 따라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만주에는 한국에서 이민온 사람들이 많은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새로 이주해온 사람은 심지뽑기로 거주할 부락을 정해주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이 넘쳐흘렀는데 특히 설날에는 2~30리 떨어진 촌락으로 친지나 동향사람들을 찾아 세배가는 풍습은 여전했어요.

우리 가족은 남만주 바다부근에 정착했는데 해방될 무렵 큰 가뭄이 발생해서 다시 쁄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 농사를 지었는데 한해는 너무 가물어서 바닷물을 끌어다 논에 댔더니 벼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는수없이 이번에는 제철소가 있는 안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산제철소는 미군기의 폭격대상이었는데 제철소 소유의 유휴지를 경작해서 먹고 살던 우리가족과 조선인들은 늘 공습경보에 시달렸지요.

당시 안산에는 예천이 고향인 안국(安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함께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석탄을 실어나르는 화차를 타고 오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서로 검게 얼룩진 얼굴을 쳐다보며 파안대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산전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문득 만주에 들어가기 전에 읽은 〈초발심자경문〉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나? 살아봐야 백년안쪽인데…"라는 생각도 들고 "전생사(前生事) 모르지만 작년 하던일 올해 하고, 올해 하던일 내년에 하게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와같은 고심을 한동안 하다가 마침내 입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속가나이로 50이 넘은때였는데 그때까지의 고생이 다 출가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불법 유여장강수(佛法猶如長江水)
유입 신앙중생심(流入信仰衆生心)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큰 강물과 같아서 믿음깊은 중생들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간다.

〈능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기시를 인간의 몸과 마음이 모두 묘하고 밝으며 참된 본성에서 나타난 것인데 사람들이 이를 전도몽상하여 깨달은 가운데 본성이 아득히 먼 곳에 있는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몸과 마음을 나인줄 착각하는 까닭에 산이나 강과 같은 삼라만상이 다 묘하고 밝은 본성가운데 있는줄을 모르고 헛된 망상에 집착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밝음을 회복하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어두움은 무지함 게으름 애욕 성냄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수행을 하게 됩니다만 본성은 본래 물들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를 닦는다고 하기전에 어둠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지계는 참된 인간살이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계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도를 닦는 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것과 같아서 아무리 오랜 세월동안 정성을 기울여도 밥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를 수지하면서 선정을 닦는다면 지혜는 저절로 밝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대부분 득도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역대 부처를 이룬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독신생활만으로 깨달음을 얻은 분은 드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하기전에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요. 부부도 부부나름입니다. 부부라고 맨날 같이 붙어서 잠만 자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수행의지가 있고 다른쪽은 그렇지 않을경우에 문제가 되는것이지 두사람 다 도를 닦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혼자서 수행할때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아내의 굳건한 신심과 자상한 배려로 깨달음의 길을 순탄하게 걸어간 남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 보다 두사람의 마음이 합쳐질때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사람이 '어떤 방편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할것이냐' 하는 의지와 방법론에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살님들은 절에 와서 남편이나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복이나 비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부처님한테 기대러 오는것이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가정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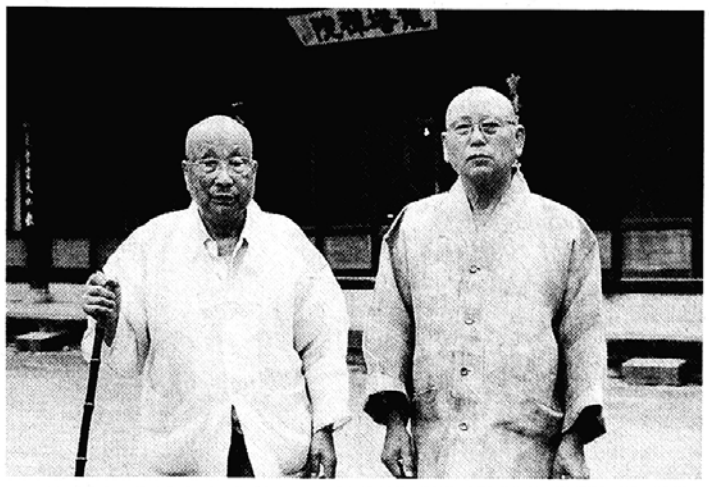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큰스님 수행한담

어둠에 물들지 말자"



◇절친한 도반으로 용탑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제 성호스님과 함께한 석경스님(사진 왼쪽).

지붕을 성글게 이어놓으면 비올때 빗물이 새듯 수행을 게을리하면 곧바로 뚫리고 맙니다

부처님한테 기대는 것 바른 믿음 아니죠 그릇된 생각에서 8만4천 번뇌 나와요

습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것도 서로 기대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한테 기대려는 생각도 좋지 않은 발상입니다.

"여자는 수행해봤자 성불을 못한다더라"는 생각이나 "가정에서는 매일 참선하기가 힘들어서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데서 가정수련은 시작됩니다.

인도의 유마거사나 중국의 방온거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설거사같은 분들은 가정을 가진채로 도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앞서나가는 한쪽이 다른쪽을 이끌어주면서 부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굳이 독신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출가를 하게되면 수행할수 있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는데 반해 재가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정을 수행공간으로 꾸미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지붕을 성글게 이어 놓으면 비가 내릴때 빗물이 새듯이 수행도 철저하지 않아게으르게 되면 탐욕은 곧 이것을 뚫고 맙니다.

요즈음은 말법시대라 혼탁한 반면 참으로 공부하기가 편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큰스님들의 법문이 수시로 열릴뿐 아니라 불교교리강의도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꾸던 일이지요.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불교서적들도 읽기 쉽게 번역되어 있고 사찰수련회도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결심만 굳건하다면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수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천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들면 월요일은 108참회수련을 하고 화요일은 독경과 사경을 하며 수요일은 좌선을 하는 식입니다.

수행의 가장 기초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해도 껍데기 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은 말법시대에는 계율을 잘지키면 생활이 청정하고 밝아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산란해져 폐해가 심해집니다.

오늘날 해이해진 승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스님들마다 바르고 큰 원력을 세워야합니다. 개개인의 원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묘법연화경〉 묘장엄왕 본사품 제27에 보면 한 생각, 한 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나옵니다.

먼 옛날 인도의 한 산속에 4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탁발하러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명상수행을 했는데 마을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루는 그들중 한 수행자가 "내 혼자서 탁발을 해오면 나머지 도반들이 수행에 더욱 전념할수 있을것이다"고 생각하고는 도반들에게 "내가 대신 탁발을 해올것인즉 열심히 정진해서 도를 깨치거든 반드시 나를 제도해주시게"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 내려갔던 이 수행자가 국왕의 행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마차랑 호위군사들, 가는곳마다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엎드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수행자는 "이야! 임금자리는 정말 대단하구나. 가만히 앉아서 도닦아 봤자 부처되기는 글렀고 임금이나 한번 되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품었는데 그 원력의 간절함으로 인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탁발을 나간 수행자가 돌아오지 않자 도반들이 혜안으로 관(觀)해보니 죽은후 왕가에서 몸을 받는 수행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친구를 제도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임금보고 누가 도를 닦으라고 권하겠는가?"

"우리도 각자 왕비와 자식으로 태어나 저 친구를 제도하기로 합세."

이렇게 해서 4명의 수행자들은 모두 왕가에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부처님은 바른 생각, 바른 견해로써 생활해나가라고 8정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생각에서 바른 행동이 나오고 그릇된 생각에서 8만4천 번뇌가 비롯됩니다.

흔히들 귀신을 천도한다고 하지만 바른 마음, 바른 생각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제도하는 것이 진정한 천도라고 하겠습니다.

요즈음에는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근본에서 멀어진 것이 많아 늘 바른생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거나 게을러지고 배가 부르면 음심이 생기기 쉬우니 수행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난 10여년간 〈능엄경〉과 〈묘법연화경〉을 우리 말로 쉽게 풀어쓰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문본을 보자니 어렵고 더뎌서 여러 번 읽기가 불편해 번역하기로 결심했지요.

흔히 알음알이를 일으킨다고 해서 경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곧 법신불인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비유컨데 경학은 큰 농사를 짓기위한 밑천을 장만하는것이라 할만합니다. 경학의 토대가 있으면 참선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스님들께서 경전을 불태워버리라고 한 것은 경전의 글귀에 너무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요, 알음알이를 세워 머리로 수행하지 말라는 뜻이지 경전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입적하시기 전에 '자기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아 쉼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回頭一望 遷鄕路(회두일망 환향로)
順是妄兮 逆是眞(순시망혜 역시진)
南北東西 滄海上(남북동서 창해상)
行船只在 把梢人(행선지재 파초인)
고개를 돌려 고향을 바라보니
곧바로 가는 것은 망령되고
거슬러 가는 것이 올바르다.
넓은 바다위 배의 향방은
키를 잡은 사람에게 달렸도다

자기자신의 본성자리를 찾아가는길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속에 파묻혀 흐르는대로 살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참구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길을 가는 주인공은 바로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홍희표 〈목원대 교수 · 시인〉

유년기 할머니와 절나들이 '불법인연' 고정관념 버리고 '나' 방생하는 삶 서원

나와 여동생은 연년생이다. 젊은 어머니는 두 젖먹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항상 허덕이셨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 젖가슴보다는 할머니 품속에 있을 때가 많았다.

나의 허기진 뱃구레는 젖이 부족해 늘 찡찡거렸다. 그러나 젖먹이 손주의 온갖 투정을 할머니는 솜이불 거둬들이듯 모두 챙겨주셨다. 고향 뒷산 같은 할머니 등에 업혀 있으면 먼저 눈길로 들어오는 것이 커다란 할머니 귀. 그 귀는 함부로 접근 못할 품위와 복성스러움을 지니고 있었다. 훗날 나는 할머니의 커다란 귀가 꼭 대웅전의 부처님 귀같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그런 유년기의 투정에서 벗어날 무렵 할머니의 큰 나들이가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큰 나들이는 절에 다니시는 것. 특히 부처님오신 날이면 며칠 전부터 묵언정진하시며 행동거지를 정갈하게 하셨다. 나는 멋도 모르고 할머니 손에 끌려 종종 절에 갔다. 할머니는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시며 '관세음보살'을 읊으셨다.



아, 그래서 할머니의 귀는 부처님 귀야! 나는 그때 깨달았다.

할머니의 도타우신 음덕으로 우리 집안은 내리물림으로 어머니, 나의 아내까지 지극정성으로 절에 다니며 불자로서 자처하고 있다. 그 불교와의 인연, 내 마음의 처마끝 풍경소리의 첫모습이다.

나는 초등학교 때 육상선수생활을 했다. 그러나 전국대회에서는 입상하지도 못해 최초의 좌절을 겪었다. 그 마음의 생채기로 활발한 성격이 구겨져 내성적으로 변해버렸다. 그 때 유일한 즐거움은 사촌누나가 선물로 준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이었다. 황홀했다. 깊은 형이상학적 불교시를 단지 떠나간 님을 그리는 연애시로만 해석하였던 것이다.

나는 알 수 없는 초월적 님의 마력에 빠져 유치찬란하게 〈님의 침묵〉을 모방한 연애시를 써서 사촌누나에게 바쳤다.

육상선수에서 시쓰기 선수로 바뀌어 불교종립학교인 보문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교장선생님은 용봉 이재복 대법사였다. 용봉선생은 일찍이 갑사에서 출가해 혜화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서정주 조지훈 시인과 함께 시를 쓴 유망한 시인. 열렬한 후원 아래 나는 저명한 학생문사로서 전국고교 문예백일장을 휩쓸게 되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씨줄로 민족의 자존심을 날줄로 민족사학의 이름을 곱게 세워온 나의 모교. 그중에서도 국문과는 우리나라 문학동네를 줄기차게 선도해 왔다.

벌써 문학동네에 나온 지 어언 30여년. 지금와서 되돌아보면 항상 내 주위에 우람한 정자 느티나무 그늘 같은 선생, 선배 시승(詩僧)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시쓰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버팀목 노릇을 해 준것이 커다란 행운이었다.

1980년 고향에 정착하면서 계룡산 심우정사를 집필실처럼 즐겨 찾았다. 시를 애끼고 좋아하는 선승 목초스님이 주석하시고 있기 때문이었다. 촛불 밑에서, 곡차 속에서 나의 '이 뭐꼬' 같은 시쓰기에 매달리기도 했다. 그 목초스님도 지금 내곁에 없다.

일체유심조의 불교적 마음과 윤회라는 불교적 진리 속에서도 아아 생사의 고통은 길고 멀어라.

최근 송기원이 장편소설 〈안으로의 여행〉을 펴냈다. 진정한 '나'의 실체를 찾아 히말라야 산맥 언저리를 찾아가는 일종의 구도소설. '나'가 히말라야에 가서 얻은 인간에 대한 깨달음, 곧 나에 대한 개안이 방생정신으로 나타난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를 방생하여, 만물의 정령들과 더불어 호흡하는 경지, 그것은 수행의 종착점이 아닐까. 나도 연민의 연꽃 위에 고요히 앉아 그 종착점으로 서서히 다가서고 싶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주소 :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일		시간
05	00 아침예보 (송기대 스님)				05
	45 이종훈 박주교 (이영학ANN)				
06	00 교계뉴스 (정수연ANN)				06
	05 경전공부 (일초스님)				
	25 고승열전 (구인 舟)				
	35 교리상해 (배성정사)				
	55 산해365인 (김용덕)				
07	00 뉴스 (정수연)				07
	10 인당씨심니여? 호승기입니다 1부		05 일요교양강좌(최준경ANN)		
	BBS 캠페인 (이성원ANN)				
08	00 BBS뉴스광장(B.N.N/정수연ANN) (08:25~08:30 L)		00 법고와 국악(B.C.M씨)		08
	30 인당씨심니여? 호승기입니다2부 (L)		20 사찰순례(최준경ANN)		
	1분묘교양좌 (이승윤ANN)				
09	00 뉴스 (이종석ANN)				09
	05 차한선의선율 (진명스님) / (금) 가곡한민남(노원스님)				
10	00 뉴스 (이현상ANN)				10
	05 사바의 친화 (최준경ANN/해서, 원경, 분다스님)		00 라디오 법회(이영학ANN)		
	55 반야심경(우리말) (정수스님)				
	기정성보 (김수원REP)				
11	00 뉴스 (이성원ANN)				11
	10 행복스님도 불성있입니다		05		
12	00 정오종합뉴스 (이성원/이현상ANN) (12:15 12:20 L)				12
	20 차영준의 백만가요 1부		10		
13	00 뉴스 (이종석ANN)				13
	05 차영준의 백만가요 2부				
14	00 뉴스 (이영학ANN)				14
	10 리스 대성경 (정홍택, 정수연ANN)		05 우리가락의 향기(홍세진)		
	50 교승열전(계) (구인 舟)				
15	00 뉴스 (최준경ANN)				15
	05 BBS생활상담실 (이현상ANN/권순만, 김용란, (L)		05 김홍탁이지 (이영학ANN)		
	노영숙, 김동호, 선종대, 제갈복성)				
	1분묘교양좌 (이승윤ANN)				
16	00 뉴스 (이영학ANN)				16
	10 은악의아홉 (이성원ANN) (L)		05		
17	00 뉴스 (이승윤ANN) (L)		00 생명의시간 (이현상ANN)		17
	10 무명을 밝히고 (이영학ANN)		20 일요오대의 (김혜성)		
	BBS 캠페인 (이성원ANN)				
18	00 저녁예보 (송기대 스님)				18
	15 생명수칙 실보 가이드				
19	00 BBS저녁종합뉴스(이영학/이선희ANN 보도팀)				19
	25 부동산 경제 (이정대)		10 음악다실(서용스님)		
	55 우리들의 친정가 (정수연ANN/기금빈가합창단)				
20	00 교계뉴스 (이승윤ANN)				20
	05 김명조의 다시는 고성춘노래				
21	00 뉴스 (이선희ANN)				21
	10 선해365인(계) (김용덕)				
	15 경전공부(계) (일초스님)				
	35 반야심경(원문) (정수스님)				
	40 교리상좌(계) (배성정사)				
22	00 교계뉴스 (이선희ANN)				22
	05 정희준악상 (이종석ANN)				
23	00 뉴스 (이선희NN)				23
	05 현대인을 위한 계탁준의 상좌1부(일초스님)		05 그리운동물학나1부(김정희)		
24	00 현대인을 위한 계탁준의 상좌2부(일초스님)		00 그리운동물학나2부(김정희)		24
	45 천수경 (홍법사 스님)				
01	00 한밤의 명상 (이선희ANN)				01
	55 사표시원 (합창단)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8

첨단과학

인류발전-재앙의 근원 '빛과 어둠'

인간게놈·통일장 이론·신과학
우주 존재의 비밀 벗길날 머잖아

불교사상 현대과학 발달에 중요 단서
인간복제 폐해 막을 윤리기준 필요

흔히 20세기를 '과학기술문명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 말 속에는 과학이 이 시대가 이룩한 모든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과학이 이끄는 시대'라는 의미와 함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주요한 고민과 폐해들(공해, 전쟁, 산업재해, 인간성 상실 등)의 뒤에는 과학이 숨어있다는 '과학이 문제인 시대'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내포되어 있다.

19세기의 다이너마이트와 20세기의 맨허튼계획(원자폭탄 개발사업)이 인류문명의 발전과 대량 인명 살상 양쪽에 공헌했듯이 과학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 아니면 재앙의 근원이 되느냐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21세기로 넘어간 과제들

21세기에는 과학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아직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금세기에 집중된 현대과학의 업적은 놀랄 만한 것이었다. 양자역학을 필두로 현대물리학은 전자공학을 탄생시켜 정보통신 혁명을 가능케 했으며, 현대물리학의 또다른 축인 상대성이론은 거시세계인 우주의 베일을 벗기는 든든한 우주선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과학은 인간의 염색체 염기 배열을 모두 알아낸다는 '인간 게놈 계획'이 진행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유전공학 기술로 탄생된 생물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인간복제 등 생명의 존엄성 훼손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 아기가 불임부부에게 뜻하지 않은 많은 행복을 안겨주었듯이 인류에게 건강과 장수, 식량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를 던져주고 있다. 컴퓨터공학을 바탕으로 현대물리학과 생명과학을 양대축으로 한 최첨단 과학기술은 21세기에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까.

●통일장이론(양자중력이론)

거시세계의 중력을 기술하는 상대성이론과 미시세계의 법칙인 양자역학을 통일하는 '모든 것의 이론'이 21세기 과학의 최대 숙제다. 이 이론이 완성되면 '빅뱅'을 비롯한 우주 탄생과 종말의 비밀이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뇌와 마음의 이해

21세기에는 의식·감정 등 인간의 뇌 활동도 철학, 심리학의 영역이 아닌 과학의 탐구영역이 된다. 정밀한 뇌의 지도와 뇌를 닮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개발될 것이다.

●인공지능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기계가 될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광컴퓨터, 양자컴퓨터, DNA컴퓨터가 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 퇴치

인류는 에이즈, 간염, 인플루엔자 등 수백 종의 바이러스와 싸워왔지만 치료제는 단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다. 변화무쌍한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다.

●암 정복

당분간은 정밀한 암 진단 및 예측장비의 개발로 완치율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지만, 암 정복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대체 에너지

석유는 앞으로 60년, 천연가스 등 다른 연료도 200년이면 고갈된다. 무한 에너지인 핵융합 발전이 불가능하다면 인류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현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외계 생명체 탐사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약 1억개의 은하 가운데 만약 100만개의 행성중 하나에만 지능을 가진 생명이 존재해도 1조개의 행성에서 지능을 가진 생명이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과학

70년대 이후 상업주의와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문명을 비판하면서 물질환원론적인 기존의 과학관을 벗어나 전일적(全一的)으로 세계와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뉴에이지(New Age) 과학운동"이라 한다.

신과학이란 기존 과학이론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총칭하기도 한다. 연구대상은 인간의 초능력, 텔레파시통신, 무한동력, 공간이동, 공중부양, 물질변환, 물질창조 등으로 기존의 과학의 틀을 벗어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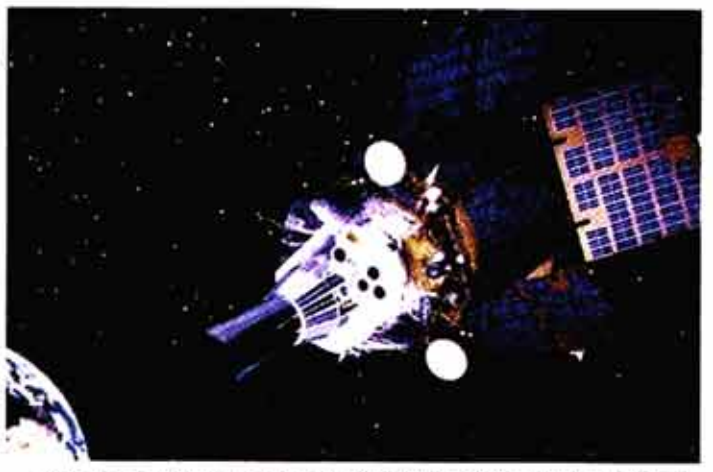
△우주 공간에 무한하게 널린 공간 에너지(氣)를 활용하는 기술 △음악을 이용한 에너지 농법 △과돌을 기억시킨 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술 △방사능 걱정이 없는 상온 핵융합기술 △물을 연료로 한 무공해 자동차 △중력제어기술을 이용한 비행장치 등이 신과학이 연구중인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과학은 기존 과학계의 두터운 벽 때문에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비과학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후의 과학'이라는 희망이 점차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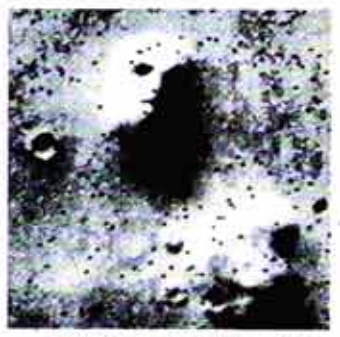


◇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 즉 가상 현실 기술은 분자 및 DNA 구조를 조사하는데 이용된다.

◇G CSF를 생산하는 형질 전환 염소 '메디'.



◇미국 본토로 날아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우주에서 탐지하는 미국의 군사 첩보 위성. 과학기술은 군사기술로 전용되어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바이킹호가 찍은 화성의 사람 얼굴 모습. 외계 생명체 탐사는 계속된다.

■과학과 종교 그리고 불교

존재에 대한 의문들 이를 테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물질이란, 생명이란,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바로내 인류가 그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과 종교는 경험적인 방법과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현대 과학은 존재의 비밀들을 하나씩 벗겨간다는 점에서 점차 종교의 영역으로 다가서고 있는 느낌이다.

아이슈타인은 이런 의미에서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과 불교는 어떤 상관성을 지닐까. 현대과학의 사고체계는 불교의 유기체론적인 연기사상과 놀랄만큼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이 신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한 마디로 현대과학은 나와 세계,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유와 무, 유기체(생물)와 무기체(무생물), 의식과 무의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상호작용에 의해 동일한 실체가 양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용정 〈과학사상〉 편집인(동국대 명예교수, 철학)은 "부처님의 우주관과 인생관이 어느 철학·종교 사상보다도 광범위하고,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잘 해명하고 있는가는 현대과학이 잘 논증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거꾸로 말하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에 불교적 사유 또는 논리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들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종교적 존엄성과 신비성이 훼손되는 반면 불교는 오히려 그 과학성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불교는 미래 과학의 나아갈 바를 비춰주는 또다른 법등(法燈)이 될 수 있기에 불교의 우주관과 인식론, 심리학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첸스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참배후 촛불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남을 탓하면 밖으로 끄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도 없이 서로 토론하고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걸음걸이가 헛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과 헛되지 않게 해야 할텐데 하는 생각을 포함해서 항상 내 가슴에 사무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하고 우리 용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전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스님네들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스님네들도 신도가 잘못되고 잘되고 이쁘고 밉고 그런 걸 보지 말아야 하고, 신도님들도 스님네들이 밉고 이쁘고 또는 잘하고 못하고 이걸 봐서는 안됩니다. 공부하는 마음 자세가 말입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한철 놀러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못 싸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잘 입는 사람도 있고 못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입고 왔든 못입고 왔든, 한 짐자고 왔든 한 짐을 못지고 왔든 우린 놀러왔다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곤 하는 것이죠. 인생살이의 반복된 이 쳇바퀴 돌 듯 하는 이 진리를 우린 파악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이 모순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스님네들이 생각하는 것 또 스님네들이 이 도량에서 행하는 법과, 여러분이 살림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행을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철을 인간의 젊음을 불사르고서 머리깎고 중이 된다는 게 그렇게 수월친 않습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은 숭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남의 모습을 보고 탓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바깥으로 끄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놀러왔던 길에 어떠한 게 조금 잘못됐든 잘됐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어디가 뭐가 떨어졌으면 주워서 얹어놓고, 또 밥을 굶는 사람을 보면 밥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 됐고 옷이 없는 사람은 같이 나누어 입으면 됐죠. 남한테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새 그자리에서 봤으니까, 본 게 인연이니까 하고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남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가는 거 좋아가서 할려고 하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고 오직 공부하는 데는 그저 관하고 정진하는 것, 모든 것은 바깥으로 끄달려서는 안된다는 점,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는데 참 배가 고프고 추웠습니다. 뭣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춥기도 하고 해서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어디서 비둘기 두 마리가 날아오더니 불에 뛰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비둘기는 사냥꾼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살아 생전에 외아들을 길렀는데 참 너무 사냥을 많이 하고 살생을 많이 하니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죄책감에서 그만 비둘기로 화해 가지고서 아들을 좇아다니다가 아들이 배고파서 애를 쓰니까 그대로 불로 뛰어든 것입니다. 구워지면 으레히 그걸로 배를 채우려니 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차이가 나긴 나는데 연쇄적으로 또 받아요. 똑같이 그렇게 되더군요. 그걸 보고 산을 지나가던 어느 스님이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림 · 최주현

남에게 칭찬 받으려 하지말고
가는거 잡거나 오는거 막지 말며
오직 관하고 정진하는게 공부예요

한철왔다 돌아가는 반복의 뜻 알아야
부모 마음과 부처님 자비심 똑같아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화해서 당신 하나를 끌끝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사냥을 하러 다닐때 좇아다니면서 배고플 때는 뭘 물어다가 당신한테 떨어뜨려 주었고 추우면 둥지에 이끌어주었고 낭떠러지에 가게 되면 떨어질까봐 더이상 앞을 못가게 막아 주었고 이렇게 여지껏 보호해줘서 살아나온 그 은공도 바로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인도환생을 못하고 당신을 위해서 비둘기로 환생을 했으니 어머니의 갸륵한 그 자비심은 어떻게 할 거며,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자 부처님의 도리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으니라."하고 그 스님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통곡을 하면서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선 구워졌던 비둘기 두 마리는 산에다가 묻고 묻고 또 묻고는 손으로 두들기면서 " 참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선 그냥 목을 놓아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이제는 인도환생을 하셔서 또다시 그렇게 고생을 하지 마시고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셔서 오직 이렇게 못난 저같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선 "전체의 어머니가 돼주십시오. 전체의 아버지가 돼주십시오."하고 울었답니다.

그뒤부터 그 스님을 좇아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참 어느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가에서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어떤 부부냐 하면요, 남자는 연남이라고 하는 남자구요, 여자는 연년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물 바깥을 못 나오고 사는 연년이와 연남입니다. 그런데 그 연남이와 연년이 부부는 꼭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자고 그랬습니다. 좀 우리를 인도해 달라구요. 그리고 또 어떠한 까닭으로 쳇바퀴 돌 듯 이렇게 여러 해를 돌고 수천 년을 돌아야 하는지, 그 시간과 공간의 초월됨이 어떠한지, 육지와 해안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상세히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둘이 돼도 둘이 됨이 없고 넷이 돼도 넷이 됨이 없고 만이 돼도 만이 됨이 없고, 만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만이 되고 또 그 하나마저도 내 아님이 없으니 하나마저도 세울 게 없다는 걸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왕림을 했죠. 연남이와 연년이를 따라서 그 집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연년이의 사정도 연남이의 사정도 우리 인간들 살아나가는 이 고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보다 나은 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는 걸 보니까 아주 추운 데서 살다가 또 다시 따뜻한 데로 오게 되는 그 길이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추운 데서 오다보면 거슬러 올라오는 게 1/3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반이 조금 못된다고 봐야죠.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새끼를 낳으러 오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와가지고 또 거기에서부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새끼를 낳아야 할 테니까 땅 속을 기어야 합니다. 땅 속으로 기어야 한다는 것은, 만약에 알을 배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오는 도중에 만약에 잡혀먹는다면 다시금 또 한번 일년이 가든지 일생이 넘어갑니다. 해어(海魚)로 봐서는 일생입니다. 우리의 일생처럼. 그러니 그렇게 일생이 다시 한번 넘어가서 다시금 또 환토를 해야하니 그 얼마나 모진 고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새끼를 낳는다는 건 결국 자기가 자기를 낳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먹질 않고 와야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연남이와 연년이 두 부부가 배가 고프면 배를 움켜잡고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쪼금 입에다가 넣었다가 뱉으면서 입을 축여가면서 굶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끼도 낳을 수 없거니와 새끼를 낳고 나서 바로 자기는 그 새끼가 되야 하니깐요. 연어가 되야 하니까. 연년이가 되고 연남이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그 참 고생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데. 땅속으로 기어오는 게 겨우 1/3이고 그 중에서 또 거의 가까이 기어오는 게 1/3이 돼요.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와가지고서 또 바로 물위로 떠야 돼요. 새끼를 낳기 위해 자기가 태어난 곳 즉 깨끗하고 정갈하고 알고 그런 데를 찾아요. 자기가 탄생한 고향을 찾는 거죠. 다 똑같은 땅인데도 우리가 고향을 알듯이, 똑같은 자갈밭이고 똑같은 맑은 물인 데도 자기 고향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광주면 광주, 이북이면 이북,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면 충청도 이렇게 고향을 알죠? 어쩌면 그렇게 해어들도 자기 고향을 잘 아는지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은데도 고향을 안단 말입니다. 그건 어째서 알까요? 거기서 새끼로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나쁜 환경은 곧 나를 가르치려는 배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 경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계가 어디서 일어났든간에 결국에는 그 경계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계들도 우선은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서 겪게 되는데 내가 겪게 되는 경계란 결국 내가 수억겁 전으로부터 지어온 것의 결과로서 나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제의 업이 경계가 되고 오늘의 경계가 업이 되어 내일의 경계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경계 속에서 그것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고, 미워하거나 사랑하고 한다면 그 경계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무게를 보태어 미래라는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나를 향해 안팎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경계를 결코 둘로 보지 말라. 나와 상대, 주와 객으로 나눠 보지 말라.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도 현옥되지 말고 어떤 위대한 것에도 굴하지 말라. 내가 있기에 세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기에 온갖 경계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경계는 필경 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니 우주 일체가 한마음인 때문이다. 결코 동요하지 말라. 부처든 마왕이든 신중이든 모든 것은 나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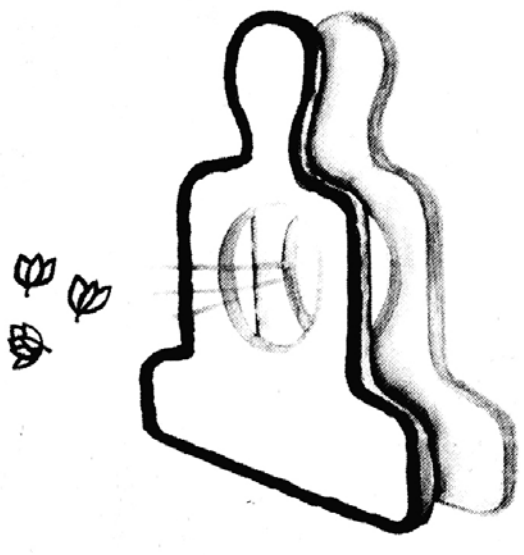
알고 보면 경계가 경계로 되는 것은 바로 거짓 자기 때문이니, '나' '나의 것' 이라는 관념이 없다면 그 어떤 경계도 맑은 거울에 비친 풍경과 같을 것이다. 오직 비춰 보일 뿐 애증이나 호오에 판단이 따르지 않으면 미혹과 번뇌도 붙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다가온 경계에 펄펄매지 말라. 다가온 경계를 불들고 끙끙거리지 말라.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여 두 번 괴로워할 것인가. 경계가 닥치니 괴롭고 그 경계에 얽매이니 또 괴로운지라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자초하려는가

역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하고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야 성숙할 기회를 맞았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곧 자기의 미래를 좌우한다. 결정권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가워하는 것은 바로 간택하는 마음이니 중생심이다. 주인공으로서의 마음은 툭 틔어 밝은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고로 순경에 애착을 두어 주인공과 만나고자 하는 생각은 도리어 중생심은 복돋을 뿐이니 공한 도리를 알지 못함이라, 도에는 군더더기 하나 붙을 자리 없다. 도는 활발하고 드높고 시원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쁜 환경이란 사실은 나를 가르치려는 주인공의 다른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에 치어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 버리는 것이 변명이 될 수도 없고 당연시되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알고 보면 주인공의 배려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가르치려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아니 지나치다 그렇지 않다 할 것도 없지만 역경계가 닥쳤을 때 공부하는 바가 더 많다. 고로 역경계가 닥치거든 공부하는 기회로 알고 넘기도록 해야 한다. 넘기 힘든 고개가 넘고 나면 더 보람된 법이다.



모난 돌을 쪼는데 정을 쓰듯이 경계란 것은 나로 하여금 둘 아닌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나를 둥글게 다스르기 위해 이심전심으로 상대를 통해 나를 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경계가 닥쳐온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니 남을 증오할 것도 배신할 것도 없다. 오직 주인공에 감사하는 환희의 웃음 띤 얼굴만이 공부하는 이의 모습일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순경계가 오면 좋아하고 깨달은 사람은 역경계가 닥치더라도 껄껄 웃어버린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역경계가 닥치면 슬퍼하고 안절부절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순경계가 와도 묵연히 흘려 보낸다. 닥쳐오는 경계는 같건만 그것에 응대함은 어찌 이리도 서로 다르겠는가. 실로 수행자의 도덕은 경계에 닥쳐서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계를 묵연히 수용한다 함은 참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조차도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경계는 자신이 유발한 것임을 알고, 나아가 그 경계란 곧 나를 단련시키는 길잡이로서 나는 그것을 통해 진화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억울하지만 꾹 참고 나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경계를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묵연한 자세인 것이다.

어떠한 경계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번뇌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탐욕, 죄업, 갈애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본래 텅 빈 허공의 환으로 생긴 신기루처럼 일어난 것이다. 흰구름처럼, 번갯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눈병 난 사람이 멀쩡한 허공에 꽃보라가 날리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안팎의 경계는 그러한 것이다.

모든 경계가 필경은 나와 다르지 않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숱한 문제들은 결코 피하려 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결코 둘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놓고 맡길 때 모든 경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그 경계를 통해 불멸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naum

마음을 계발해야 진화할 수 있어요

☞ 15면에서 계속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그 새끼가 알까요? 그건 어미가 새끼고 새끼가 어미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음미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참 50% 미지의 세계와 또 보이는 50%의 유의 세계가 포함해서 회전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 사는 데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해어나 또는 해어 아니더라도 식물들이나 땅 속에서 사는 벌레들도 다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인간될 때까지 그렇게 겪어야 하며 또는 자기보다 좀더 나은 걸로 진화하기 위해 생존경쟁을 하죠. 자기가 진화될 수 있는 마음의 계발이 돼야 이것이 불편하다 하면 좀더 편리하게끔 바뀌고 또 이것이 안됐다 하면 저걸로 모습을 바꿔 태어날 수 있고 육신을 좀더 예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죽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죽지 않느냐"
"저기 낳아 놓은 알들이 나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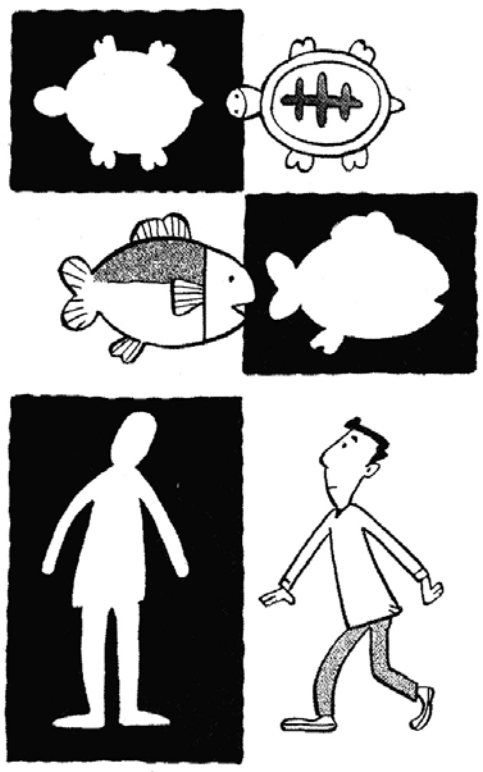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참 맑은 물로 와서는 거기는 아주 얕은 데니까 바닥을 팝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한 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거기에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대목에서 말입니다. 야, 인간은 손이라도 있어서 도구를 들고 판다 하지마는 연어는 손도 없고 도구도 없어요. 도구라는 것이 단지 꽁지밖엔 없어요, 지느러미. 그러면 전체의 몸뚱이 하나가 그렇게 파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한발한발 떼어놓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낳으러 가고, 자기가 자기를 낳으러 간다는 것이 곧 죽이러 가는 거고, 죽이러 간다는 것이 곧 낳으려고 즉 생산하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생산이니 죽느니 하는 말이 안 붙습니다. 예전에 원효스님이 그랬듯이, 이거 두서없는 말 같지만 잘 들으십시오.

신라때 경주의 만선북리(萬善北里)에 한 과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뱀처럼 기어다닌다 해서 이름을 사복(蛇卜)이라고 불렀답니다. 어느날 그 어머니가 죽자 사복은 원효스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經)을 싣고 다니던 암소 한마리가 오늘 죽었으니 나와 함께 장사 지내러 가는 게 어떻겠소." 이 말을 들은 원효스님은 이를 허락하고 사복의 집에 찾아가 시체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세상에 나지 말지어다. 그 죽는 것도 고통이니라. 죽지도 말지어다. 다시 세상에 나는 것도 괴로우니라." (莫生兮其死也苦 莫死兮其生也苦) 하고 말입니다. 이 두 마디를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렇듯이 그 고기도 그렇게 참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했기 때문에 자기가 꽁지로 그걸 다 파서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파고, 또는 자갈을 다 주워모아서 옆으로 옆으로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연년이와 연남이는 바로 죽습니다. 몸을 버리죠. "왜 몸을 버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몸을 버리지 말고 자식들을 낳아 놓고 그 재롱을 보고 살지, 왜 몸을 버리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년이와 연남이가 말하는 것이 뭔줄 아십니까?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많은 고기들한테 잡혀먹히고 살았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내 자리를 아는 것이 웬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 강 속에는 땅 속에 묻혀서 공부하는 고기도 있고 돌 속에 묻혀서 공부하는 고기도 있고 밑바닥에 깔려서 공부하는 고기도 있지요. 그렇게 인간의 참 모습을 좀 보기 위해서 그 구멍도 없는 데서 불빛이 비치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그렇게 공부를 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사람도 그런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연년이와 연남이는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놀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하면 "저기 지금 낳아 놓은 그 자체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가 이 자리를 알고 이 자리를 또 옵니다, 이거예요.

이 말하기 전에 또 한마디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좀처럼해서는 없애지 않는 방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방생을 놀부의 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에만 넣으면 사는 줄 알지 마십시오. 물도 각자 몫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물이면 물, 그냥 다 똑같은 줄 아시지마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도 영등포면 영등포가 있고 종로면 종로가 있듯이 동네 이름이 각기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지게꾼도 지게꾼 구역에 들어가면은 "야, 너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여기 구역은 내 구역이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그렇듯이 자기 자리를 알고 고향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방생을 한다고 고기를 다 집어넣으면 개흙에서 사는 게 있고, 또는 모래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있으니 각자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자기 살던 대로 갈려니까 십리 가서 찾는 게 있고 이십리 가서 찾는 게 있고 백리를 가서 찾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생을 얼마나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 원리를 안다면 그런 고생 안시킬 겁니다. 저는 이런 말만 하면 일제시대 때가 생각납니다.

일본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서 탄광으로 붙잡아 갔거든요. 그랬다가 8·15해방 때 딱 놔주니까는 제 집 찾아가느라고 전부 흩어져서 가다가 2/3가 죽었습니다. 그 짝이야, 딱 아주.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방생은 이름만 방생이지 진짜 방생이 아닙니다. 방생이라는 것은 첫째 어머니없고 아버지없이 고아가 돼서 정말 학교에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고독하게 이리저리 방황한다 할 때 그때 참 보살펴주는 게 방생이요, 둘째 또 사람이라는 것이 먹지 못해 부황이 나고 이럴 때 보살펴주는 게 방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내 형제처럼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도 방생이요, 무의탁 노인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해서 봉양하는 것도 방생이요,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거둬주는 것도 방생이요, 취직을 못해서 살림을 꾸려나가지 못할 때 취직시켜 주는 것도 방생이예요. 사람 방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있다고 내가 이름날려고 남이 알게 갖다 주고 이름나게 하느라고 방송국에 갖다 내고 그러는 것이 방생이 아니예요, 사실은. 물론 고기가 물을 잃고 바닥에 나와서 펄펄뛸 때 그때 물에 집어 넣어주는 게 방생이죠.

방생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하면, 그전에는 비가 올 때에 많은 미꾸라지와 남생이, 뭐 자라, 새우 또는 붕어, 지렁이 이런 것들이 그냥 산중에도 비가 오면 쭉 널렸었어요. 그러면 스님네들이 어떡한 줄 아십니까? 깡통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 흙바닥에서 펄펄 뛰는 거를 담았어요. 미끄러워서 잡기가 힘드는데 어떤 때는 손으로도 잡지만 손으로 잡으면 비늘이 없어져 죽을까봐 체로다가 담아가지고서는 솥고쏟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다 갖다 넣어준 게 그게 아마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진짜 방생이지, 지금의 그게 방생입니까? 생각들을 해보세요, 예? 잘 노는 고기를 산 채로 잡아다가 팔면 그걸 사서 물에 넣고, 물에 넣으면 넣는 그 즉시 또 그물을 쳐서 잡아다 놔요. 그건 방생이 아니라 지옥고를 당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방생이 얼마나 할 데가 없어서 그런 방생으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지. 고기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방생이 되겠습니까? 왜 잘 사는 고기를 잡아다가 잡히면서 죽고 바깥 물이 안맞아서 기다리다가 죽고 거들거들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물이 없는 데서 사는 고기를 물 있는데 갖다 넣는 게 방생이지, 어떻게 물 있는 데서 잘 사는 걸 잡아다가 넣고 또 잡아다가 고생을 시키고 그 중간에 죽는 것도 많을텐데 또 잡아다 놓고 또 건지고, 이게 방생입니까, 어디? 그건 방생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죽이는 것만도 못하죠. 사람은 사람대로 머리가 돌아야 하고 사람값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값을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건 갈대와 같은 그건 허무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연어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먹어보고 맛을 알아야 흐르는 물처럼 살수 있어

고아 장애인 등 어려운이 돌보는게 방생 모습다를 뿐 생명의 묘법은 하나로 돌아

그래서 인제 연년이와 연남이와 같이 그런 얘기를 주고 받다가 참 기특한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금 설해줬습니다. "또 새끼가 될 게 아니라 착을 벗어서, 네가 된다는 그 새끼마저도 벗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이 바깥을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년이와 연남이 생각은 이 몸이 죽는다면, 새끼를 낳고 죽는다면 그때는 내가 어떡할까? 그럼 그 몸속에서 또 벗어나야 될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랬죠. "그러나 당신의 몸만 있어서 내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 허다해, 집이. 이 물 안에 그냥 그냥 셀 수도 없이 많아, 미생물에서부터 집이 이렇게 많은데 집이 없다니?" 하니까 거기에서 연년이와 연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그냥 거기서 그 새끼들을 낳아 놓고 그만 자기는 자기 집을 버리구선 그 새끼들도 다 어디음에 옷을 벗고 아주 착을 두지 말라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구선 따랐습니다.

그러니 몇 식구가 됐죠. 식구가 한 너댓이서 또 한군데 구경을 하고 가자는 겁니다. 어딜 가느냐고 하니까 그냥 따라오래요. 가다가 보니까 큰 집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가오리가 사는데 그렇게 큰 고기는 전 육안으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엘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아주 장치가 잘됐어요. 구정물이 들어왔다 핏물이 들어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벌렁벌렁만 하면은 그냥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살기에 그렇게 구조가 잘 돼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공부하는 게 있고, 공부는 안하고 그냥 하루살이로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명들은 위에서 광선력을 받고서 물 위로 사는 게 반이 있고, 물 밑으로 사는 게 반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구경을 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얘기를 하리까?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전체가 연쇄적으로 다 붙어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뱀장어를 만났습니다. 왜 뱀장어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 큰 집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보니까 지느러미가 이렇게 굵은 게 말입니다. 지느러미가 또르르 말려 가지고 전부 비늘이 돼버렸어요. 비늘이 되고 번쩍번쩍 은빛깔이 났습니다. 수염이 이만큼 나구요. 그랬는데 눈 하나 깜짝 안하는 겁니다. "저건 뭐냐?" 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고기가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상어 선생이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건 장어인데, 장어가 변해서 이제는 아주 용이 돼갑니다."이거예요. 저게 앞으로 천년이 더 있어야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화한다 이거죠. 여의주를 얻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여의주를 얻어야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구경을 하고 보니까 이 집으로 들어가도 그 내막을 다 알겠고, 저 집으로 들어가도 그런 사정을 다 알겠는데 사는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사정이 죄 달라요. 또 생김생김도 다 틀리고 구조도 다 틀리지만 남을 해치지 않고 공부하려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또 위에서 사는 고기들은 연쇄적으로 또 잡아먹고 살고 생존경쟁에 아주 여념이 없었구요.

그런데 한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물 속에 들어와 보니까 회전이 육지보다 빠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3초다 하면은 육지에선 1초가 회전이 되는데, 그 물 속에선 3초가 회전되는 겁니다, 3초가. 그럼 2초가 더 회전이 빠르다는 얘깁니다. 이것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해서 물론 이름해서 견성이라고 합니다마는 견성한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한번 턱 들으면 그것이 홀연히 넓어지면서 확 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2초가 더 회전이 빠른데 그러면 회전이 왜 빠른가 했더니, 육지보다 이 속에는 즉 말하자면 지구 그 원자력 에너지하고 돌아가는 땅두께가 좀 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사람도 머리 회전이 빨리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진리가 빨리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물 안에서 공부하는 그런 해어들은 빨리 돌아가요. 그건 왜냐,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으니까 빨리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식물들도 식물들대로 빨리 돌아가요. 저 물에 있는 거보다는 더더도 이 사람들보다는 더빠른 거예요. 그래서 공기 회전을 빨리해서 포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주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걸 얻어먹어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야 이걸 주고선 사먹겠다 하는 거나 똑 같애요. 이렇게 서로 공식하고 공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봉의 묘법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그 묘법이 그 물 안에서도 돌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전체를 아는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놓으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죠. 사람이 돌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도 둘이 아니고 지렁이하고도 둘이 아니고, 작고 크고, 모습이 다를 뿐이지 움죽거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쇄적으로 이렇게 받아 돌아가는 생존경쟁 이 자체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책을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말을 들어서 귀동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알아서 적든 크든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알아서 경험해 보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먹어보고 맛을 알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리 남이 뭐라든 꿋꿋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물과 같이 눈하나 까딱 안하고 살 수 있죠.

여러분이 헛된 걸음걸이를 하지 않도록 또 제가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둘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은하고, 또는 향기롭고 조화를 이루고 또는 앉아서 호국불교도 하고… 전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있어요. 참 멋있습니다. 여간 멋있는 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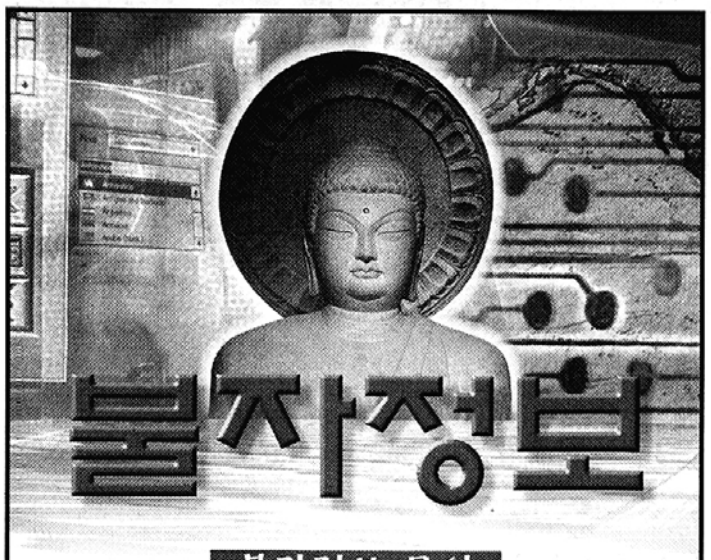
삿갓 쓰고 주장자를 메고 참 한번 푸른 밭을 한발 한발 떼어놓을 때에 피리 소리가, 구멍 막힌 피리 소리가 그렇게 온 누리에 다 들린다 했습니다.

음지양지 없는 땅에 백송 위 대붕은 자유롭게 날으도다.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1)
생활 속의 불법 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6신 410쪽
여시아문 퍼냄
값 5,000원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개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여시아문의 의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갑상선 · 간질 당뇨완치
한국불교태고종 **세운정사**
주지 한진성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
전화 0671)626-4984
팩스 0671)626-4980

귀 비법을 전수해 귀 드립니다
좌골 신경통
오십견(팔에 모든질병)
관절염 / 허리디스크
주름살제거 (살빼는 법)
※모든 통증을 제거하는 법
0342)752-3035 (출가상담)
016)288-3035
향 천 사

강좌

귀 달마사포교원
◆사주 : 대운 · 행운 · 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 ~ 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 ~ 15:00
02)999-5551
02)999-4804
051)418-4804 **달마사**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게부피無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물래야 볼 수 없는 ?을 ?이 본다.
3.?을 보면 병과 운명으로부터 자유
4.팝고해탈/만성난치병/금연 금주/
악습비만체질교정/학습력강화
박민수 침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rsoozen.pe.kr 017)609-9068

사주 명리학 배우실 분
◐개강 : 9월 1일부터 주3회
(월수금) 4개월간
◐강의: 기초부터 간명 실습까지
책임완성
◐수강료 : 월 15만원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장소: 마포구 망원동 474-15
02)323-4050/4480
선주명리원

귀인

비구니 부컨스님 모십니다
02)
359-7766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412)
752-7938

부컨스님 모십니다
◆20-30대 비구스님◆
뉴욕 원각사
001-1-914-497-3787
001-1-914-496-3126

출판사 창업주를 모십니다.
영육이 분리되어 윤회의 고통 속을 헤매는 우리 모두를 참담게 위안하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용기와 사랑을 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은, 분명 삶의 목표로 삼을 만한 보람있는 일일 것입니다.
뉴 에이지,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낡은 가치관을 깨치고 빛과 사랑을 널리 널리 전파할 도서출판 "하늘바람"의 기획에 동참, 1억 이상 투자해 주실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0344)914-9152/016)353-9152

스님을 찾습니다
법명 : 인호스님
강원도 횡성 서석 민가에서 수행하셨던 비구니스님을 찾습니다.
3년전 4월~5월 사이에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해 주었던 불자입니다.
어디 계신지 궁금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8)303-3378

급 구
●경리직 0명 (정보통신졸)
●사무직 0명 (행정직)
●女 18세~23세
침식제공, 급여는 상담후 결정
용모단정 신심 돈독한 미혼녀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등본 지참)
벽화산 용국사 사무실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852-22)
0555)572-0022

직원모집 공고
사무직(여)
◆불교인으로 재적사찰주지 추천 가능자
◆25세이상 35세미만 여성(독신40세미만)
◆PC가능자로 고졸이상
◆급여 : 본회기준에 의함
◆전화문의 사절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우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79-2
한국근본불교 회관 총무부
※ 담당자 총무부장 ※

철학관 수강생 모집
육효점 평생사주
02)962-9871
자비원

모십니다
사찰 암자에서 신도님들 상담 관리하고 평생 불사를 같이 할 신명제자를 모십니다.
사찰에서 공부하며 상좌로 계실 30대 스님을 모십니다.
011)776-4070
(충북권 노스님)

동양 철학 수강생 모집
◆강 사 : **최봉수박사 직강**
◆교 재 : 심명철학 1. 2. 3.
◆교육기간 : 초기과정 8개월
◆개 강 : 9월 1일
◆수 강 료 : ₩100,000
02)763-3525/745-3525
(낙원동)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 기운보강 · 스트레스해소 · 노화방지
· 면역성강화 · 질병예방 · 순환기장애에…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난치병 치료에 신비!
쥬천 玉山家 (02)777-010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832-0742 / 011)381-8157

우리 몸에 氣 를 충전시켜 주십시요!!
"피라밋 속에서 신비의 공간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氣功훈련 ◆명상수련
◆학습능력향상 ◆질병치유촉진
"10分내에 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氣를 체크해 드립니다.
KBS-TV시로 氣제품 카다로그 무료수송
고혈압, 당뇨, 간, 비만, 변비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미국 일본에서 최근 유행하는 면역요법 성인병 상담해 드립니다.
※ 책자 무료 우송 ※
韓國 氣健康 硏究院 02)455-6944/453-5851 FAX02)454-0646

간 병 신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불쌍한 불자간병인
전화 : 02)363-7884
팩스 :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인천부평(상업지역)**
◆부지 : 약 70평
◆건평 : 건물 2동 약 130평, 법당 50평, 요사 및 공양채 50평, 요사단독 26평
◆가액 : 5억
◆특징 : 인천 부평의 주요상업지역에 위치하며 대형 백화점과도 200m 거리에 인접한 포교에 적합한 도량입니다.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양도합니다.
해동불사 이처사 합장
02)389-7880/ 019)390-6110

사 찰 안 내
◆위치 : **공주 근교 읍소재지**
◆대지 : 200평
◆법당 : 20평 ◆요사 : 30평
◆가액 : 9,500만원
※깨끗한 주거환경과 완벽한 조경시설을 겸비한 포교도량입니다.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 연락 바랍니다.
多寶佛事 02)3545-056
019)234-5506

사 찰 안 내
◇위치: 경 북
◇법당: 24평
◇요사: 35평
◇부지: 4,000평
◇가액: 7억(교환가)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 안내
◆서울포교당 30평
◇가액 : 전세 5천만원
◇시설비 없음
◇아파트 대단지앞(급매)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포교원 (급) 안내
◆위치 : 장안평 사거리 전철역 앞
◆규모 : 총45평, 법당15평, 시설최상급, 거실1, 주방1, 목욕탕, 화장실1, 대중화장실 별도, 살림방 3, 상담실 1-살림펀리, 5층건물의 5층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3천만원(총3,500만원)
011)660-4631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경남
◆가격 : 전세 2천5백만원
매매 3800만원
0591)758-4895

사찰 안내
◆위치 : **경기 파주**
◆대지 273평,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방6, 주방3, 욕실3, 화장실3, 주차장 완비
◆특징: 산세좋고 물좋고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운영하실스님께 양도)
◆가격: 4억 2천(답사후 결정)
0348)952-7905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남 남해 봉화리**
◆부지 7필지, 대지 및 임야 준농림 약 4만 5천평, 주택 2동, 현재 유실수 농장임.
◆특징: 경관수려, 약수有, 사찰 수련원 및 실버타운, 납골당 · 절터 최적지임.
◆가격: 11억 2천만원
011)551-3535
0591)758-7370

사찰 안내
◆위치 : **대전 논산 국도 중간지점**
◆산속에 위치하여 기도도량으로 적합
◆법당 : 35평(목조건물 외 5포 내 7포)
◆삼성각 : 5평(목조건물)
◆요사채 : 35평(현대식 건물)
◆대지 : 602평
◆가액 : 답사후 가격절충
0461)733-3048/011)458-3048

포교당 안내
◆위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평수: 35평(포교 최적지)
◆가액: 5천만원(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 ※
02)307-2616
011)416-2782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무한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
◆평수 : 약 2500평
◆특징 : 고성읍서 10분거리, 약사전 법당안에 석간수가 흐르며 약수물 유명, 경관수려, 불사에 필요조건 구비, 주차장 완비
◆가액 : 4억 (절충가능)
0556)674-7598/0556)674-0392

사찰 안내
◆위치 : 영덕과 영해사이
◆규모 : 임법당 총면적 1907평
대지207평, 요사채35평, 밭 1700평
◆특징 : 야산밑 큰 고래산 있음
3층제단 조성
◆가격 : 9천만원
011)653-8375/011)655-3883

사찰 안내
◆위치: **장호원 경기 이천**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만원(스님양수시 대폭 절충가)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

사찰 안내
◆서울 경기지역 사찰 암자터
◆매입 운영하실분이나 양도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찰 토목공사 불사상담
◆성실책임 비밀보장합니다.
011) 8901-5779

사찰부지 안내
곤지암 근처 사찰명당
◆위치 : 경기 광주 태화산 입구
◆부지 1500평(토목공사완료)
◆서울에서 40분거리, 교통편리, 태화산 입구, 산세가 좋고 계곡물이 좋은 수양도량
032)466-4867/011)9775-4867

사찰 안내
◆위치 : 경주
◆부지600평 대지400평, 200평은 논, 요사채70평, 산신각6평, 화장실스라브, 독신각 공사중 법당은 임법당임.
◆특징 : 위치가 좋음.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음.
◆가격 : 2억 5천
0561)746-3510/0562)273-4833
※ 야간 연락요망 ※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마산
◆법당 약20평, 요사채 3동, 수세식 화장실, 시설 일체 기증
◆가액 : 9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11)859-2252

포교원 안내
◆위치 : 경주시내
◆규모 : 건물 2층, 60평
방 3개, 주방, 욕실
◆가격 : 전세가 - 보증금 5백만
(월세 80만)
◆시설비(주방용품 등 일체) 800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7)334-2581/016)805-2581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시내에서 2분거리)
◆대지 : 100평
◆건평 : 110평(다용도실1,2층 약20-30평 별도)
1층 30평 (방3칸 거실큼) 1동
2층 30평 (방3칸 거실큼)
1층 25평 (방2칸 실평수) 2동
2층 25평 (방2칸 실평수)
동으로 사용가능
◆ 전망좋음, 전원주택처럼 트트하게 아주 잘지었음.
◆가액: 전세 5500만 + 은행융자 8천 = 3억5천
◆받을금액: 2억1500만(가격절충)
0348)959-1997/011)399-7981

사찰 및 실버타운 부지
◆위치 : 밀양시
◆면적 : 1.준농림 1만8천평
2.대지 1천평 상대농지 8천평
◆특기 : 4차선 도로확장 및 시외버스 정류소 개설, 전원 주택지 적합
0527)351-1008
011)596-5028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 7층 석탑에 관해 관심 있는 분 문의(스님에 한함)

사찰 안내
(비구니스님 · 보살님)
◆위치 : 충주시
(충주댐 강변도로변)
◆평수 : 현 사찰150평 부지외 수천평 분할가
◆내용 : 석굴암 및 법당, 요사채, 오층탑, 관세음보살상 아미타불상 산신각 칠성각 제2석굴암지와 미륵보살 성지 300평완성, 도로포장완성, 재력투자 한분에게 사찰 양도가능, 주차장 450평 허가 방생최적지
0441)848-1766/019)485-1766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층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 011)885-2876

사찰 안내
서울 · 부산지역
사찰구합니다.
서울 · 부산 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합니다.
한국불사 018)273-939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20분거리
광릉 수목원 근접
◆ 부지 580평, 임법당, 요사채, 방6개, 건평63평
◆특징 : 소나무로 둘러친 산 중턱 소쩍새와 온갖 새가 지저귀며 작은 계곡물이 흘러 내리는 서울 근교의 명당터 풍부한 식수와 산 정상까지 살림목과 약수가 있으며 주차장 연못, 조경완비
◆ 가액: 3억 5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은해사 근접
◆부지 약 1천평
법당 15평, 요사 20평
◆산세좋음
◆가액: 6천 5백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
◆부지 : 2113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2동)
◆매매희망기간 : 백중전후
◆가액 : 1억 8천만원
※집은 소박한 한옥이나 산세가 편안하며, 넓고 조용한 수양도량으로 식수가 아주 좋음. 도량까지 차량진입가, 주차장 있음.
053)651-9363/0596)973-0305

암자부지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대지 250평
(즉시 건축 및 등기 가능)
◆가액 : 3천 5백만원
◆호수가 보이는 조용한 곳, 현주택 1동 유실수 다수
◆목조법당 희망할시 최저가 건축 보장(주인이 건축 기능보유자임)
0563)336-4480 박허운 합장

사찰(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대 지 : 85평
◆ 건 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 가 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 특 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웅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수도권 공원 예식장 개방

(생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원이나 체육시설 야외전시장 등을 야외결혼식장으로 개방 인기를 끌고 있다. 성남시는 중앙공원내 광장 등 6곳을(0342-729-5704), 하남시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야외잔디밭 등을 이용할 수 있다.(0347-791-1524) 고양시는 호수공원내 마련된 야외결혼식장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0344-906-4557)

무궁화 꽃길 10곳 조성

서울시는 광화문 열린마당, 종각 등 10곳에 무궁화 꽃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궁화 꽃길이 조성되는 곳은 광화문 일대, 종각,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등으로 31일까지 모두 1천70개의 무궁화 화분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염병 인터넷 정보망' 개통

(정보) 국립보건원은 전염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전염병 인터넷 정보망'을 13일 개통했다. 전염병 정보망홈페이지(http://dis.mohw.go.kr)는 계절별 유행 전염병정보, 해외전염병 발생현황 및 여행자 정보, 전염병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등 전염병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1369'로 수표조회 하세요

(금융) 금융결제원은 오는 9월부터 '1369'번으로 전화하면 사고수표 조회 및 신고·당좌거래정지(부도) 여부·예금잔액·무통장거래내역·신용카드거래내역·환율정보 등 각종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면부족 위궤양·위암 유발

(건강) 수면부족이 위궤양이나 심지어 위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12일 나왔다. 홍콩대학 약학과 연구진이 수면과 위의 건강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쥐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7일간의 수면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한 쥐들에게서는 위벽에 정상세포를 종양세포로 전환시키는 종양 형성 유전자가 나타났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안

(가정의례) 보건복지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의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이 제정안은 약혼시 직계가족만 참석해 상견례로 간소화하고 혼수시 예물 증여대상은 당사자 부모로 한정했다. 제사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했으며, 신문에 부음 게재시 공공기관·단체명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진화론은 연기론에 포함"

美 캔자스주 과학교과서 '진화론' 삭제
국내 기독교계 창조과학교사련 창립

진화인가 창조인가. 지난 11일 미국 캔자스주 교육위원회가 과학교과 과정에서 진화론을 제외시키는 자침을 확정하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독교계도 세계 각국의 진화론 교육이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지난 9일 창립된 창조과학전국교사연합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창조론을 소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영국 과학자 할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지 140여년이 지났지만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은 계속돼 왔다. 특히 보수적 기독교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창조론 그룹과 진화론 그룹간의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극우보수파 기독교계는 끊임없이 정치와 교육에 영향력 확대를 꾀해왔고, 이번 캔자스의 결정도 한 보수적 기독교 단체가 맹렬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미국생물교사협회와 미국의 종교감시단체인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들'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적인 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이 국내에서 재연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진화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태에서 창조론이 옳다는 주장은 학문의 보편성 차원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이듯이 창조론도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초기에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그후 갈릴레오도 다시 지동설을 주장해 종교재판에 회부돼 파문당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파문당한지 340여년만인 1992년에 복권됐다. 지구가 돈다는 진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황 바오로 2세는 96년에 진화론을 '진지한 가설'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불교는 우주와 인간의 태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불교는 역사 이래로 진화론이나 창조론 어느 쪽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어떻게 생겨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욱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불교는 연기론을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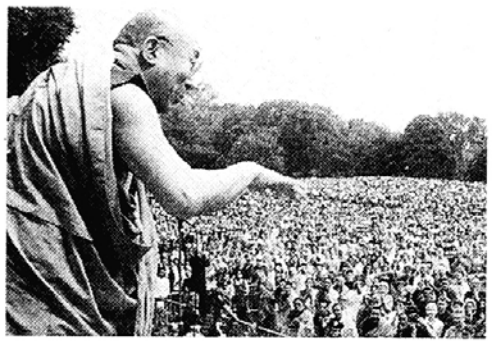
호진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불교는 창조주와 같은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업력'이라는 에너지의 작용에 따른 연기법으로 보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과학사상〉 편집장인 김용정 명예교수(동국대 철학)는 "우주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그 구조 속에서 각기의 생명속에 또다른 생명이 발생한다는 연기론적 관점에서 볼 때 진화론은 연기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생명태동의 근원을 연기에 의해 스스로를 조직한 '자기조직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성규교수(영남대 의대)는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명태동의 근원은 연기론으로 보는 것이 옳다"면서 '연기론=존재론+진화론+창조론'이라는 공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 학자는 "확실한 입증이 있기까지는 어떤 가설도 배제돼서는 안되며, 특히 초과학을 지향하는 종교가 비과학적이 된다면 종교와 과학의 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뉴욕강연회

미국을 방문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5일 뉴욕시 센트럴파크에서 4만여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강연회를 열고 평화와 인내, 비폭력 등에 대해 설과했다.

정부 '부패방지 기본법' 연내 제정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앞으로는 1천명(시·군 지역은 500명) 이상의 시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시민 감사청구제'가 실시되며, 시민을 감사관으로 위촉해 감사에 참여케하는 '시민감사관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내달중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을 18일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본보 제232호 18면 참조〉

'부패방지종합대책'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비리고발자 보호 및 보상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부패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로 물러난 공무원은 면직후 15년 또는 형집행 종료후 10년간 공직에 재취업하지 못하며, 내부비리를 신고한 고발자나 고발기관은 비밀보호는 물론 비리고발에 따른 정부 수입금(추징·몰수액)의 5~15%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02년-화석연료시대 마감
2004년-복제인간 첫 탄생
2009년-북한서 원자탄 폭발

미래학자 클라크 예측

21세기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계적인 우주과학 소설가이자 미래학자인 아서 클라크가 아시아 위크 최근호에서 새 밀레니엄 첫 1백년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사건들에 관해 기고, 관심을 끌고 있다. 클라크는 50년전에 위성통신의 실용화를 내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10년전에 Y2K 문제를 예측한 인물.

클라크가 예측한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2002년=저온 상태하의 핵반응을 이용한 최첨단 동력장치의 개발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 예고됨 △2004년=관련당국의 공식 허가아래 복제인간이 최초로 탄생 △2005년=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금의환향함 △2009년=북한에서 원자탄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비상소집된 유엔안보리에서 모든 핵무기를 폐기키로 결의 △2012년=우주여행의 상업적 서비스가 개시됨 △2021년=유인우주선이 화성에 첫 착륙

시론

왜 우란분절인가

가령 누군가 글을 이렇게 시작했다 하자.

"세상 인심은 날로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극도의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가치관은 혼란에 빠져 가정은 붕괴위기에 있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독자는 "새삼스레 무슨…"하면서 읽을 생각도 않고 외면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인심이 각박해지고 있는 것을 독자들이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이런 서두 뒤에 반드시 따라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복고조의 '성현들 말씀'이 그다지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등의 전(前)세대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글이 나온다면 차라리 솔깃해 한다.

몇년전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초중등생의 도덕교육 교재로 쓰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이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았다. 〈명심보감〉의 논리에는 오늘날에 필요한 가치관,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시민사회, 평등의 실현에 반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고 더욱이 비판정신을 높이 사야 하는 그런 시대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명심보감식 도덕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적은 백번 옳다.



김 징 자
〈칼럼니스트·본지논설위원〉

> "세상만물을 부모처럼 위하는 평등심 새기자"

그뿐인가. 현대사회는 시장의 논리를 마치 성전처럼 신봉하고 있다. "개개인의 사익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회전체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므로…"라는 시장논리의 핵심은 개인의 끝없는 사익추구와 적자생존의 정글법칙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 준다. 나 아닌 남을, 그리고 부분 아닌 전체를 생각해야만 성립되는 도덕개념이 여기에 끼어들 틈은 없다.

현대과학이 말하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이기의 극대화라고나 할까. 과학자들은 사람을 단순히 '유전자'라는 이기적인 분자를 보존키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돼 있는 움직이는 로봇, 일종의 생존기계로 설명한다. 동물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인간은 가장 뛰어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가장 이기적인 동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오늘에 와서야 발견된 것일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든가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등의 속담이나 이를 이야기로 꾸민 민담 설화들의 밑바탕에는 이미 냉혹한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근원적인 관찰이 깔려 있다.

그러면 그동안 '이기적인 유전자'의 광폭한 질주에 제동을 걸어온 옛 성현(聖賢)들의 뛰어난 가르침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유전자(gene)를 발견한 과학자들은 그 이기성의 제동장치인 밈(meme) 또한 밝혀냈다. 밈은 문화적이고 종교적이며 전파력 또한 크다. 사람은 밈을 발전시킴으로써 더욱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밈의 일종인 패션이나 유행가 등도 그 빠른 전파력 덕을 보지만 수명이 길지 못하다. 왕조시대의 가치관 역시 왕조시대와 수명을 같이한다. 그러나 밈에도 영원성을 지니는 것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부처님은 탐진치(貪瞋癡) 삼독(gege)을 계정혜(戒定慧) 삼학(meme)으로 다스리라 가르치신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효(孝) 또한 현대라 해서 빛을 잃을 종류가 아니다. 우란분절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제도한 날이지만 〈부모은중경〉에서 부처님이 길거리에 쌓인 해골더미에 절하면서 가르치신 것은 그 뼈들이 과거다생의 부모였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어느 한가진들 나의 다생부모와 무관한 것이 있으랴.

우리가 우란분절을 기리는 것은 이생 부모에 대한 '효'도 그러하지만 세상만물 모두를 부모처럼 위하고 그 은의를 깊이 새기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효', 그 경등심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안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고구려·발해 숨겨진 불교유적찾기

BBS 추석특집 다큐 '민족의 뿌리를…'

국내방송 최초 중국 졸본성 취재

광개토대왕비·발해 흥륭사 등 소개

우리 나라 역사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화두를 안고 고구려 역사의 첫 시발점 이었던 졸본성에서부터 발해 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의 돈화까지 숨겨진 불교문화의 발자취를 찾아 불교방송이 라디오 순례특집 프로를 기획제작한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뿌리를 찾고, 잃어버린 역사를 계승하고자 추석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역사기행 다큐멘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가제)가 바로 그것.

특히 이번 방송에는 현재 성터와 천지(天池) 연못만 남아있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언론의 취재가 철저히 금지된 고구려의 첫 도읍지 졸본성에 국내방송 사상 처음으로 잠입 취재한 내용도 들어 있어 고구려 역사와 그동안 소개 되지 않았던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부작으로 방송될 이 프로에서는 발해의 불교 유적인 흥륭사와 영광탑,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졸본성, 광개토대왕비, 고구려 고분인 5회분 5호묘 등이 소개된다. 또 발해의 유적인 동모산성, 팔련성, 왕궁터 등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방송된다.

고구려와 발해 및 독립운동 유적지의 순례를 통해 불교 유적은 물론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조명한 이 프로는 방학봉교수(연변대)의 안내로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과 불교방송의 박상필 PD가 8월7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심양·집안·연길·용정 등을 돌며 취재한 것을 토대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현장을 함께 다녀온 법륜스님은 "삼국중 가장 먼저 불교가 전래된 고구려와 불교 문화가 한때 번성했던 발해의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 두시대의 역사 연구는 21세기 현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형식에 순례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미한 '민족의…'는 청산리 전투의 현장이었던 청산리 계곡의 물소리와 흥륭사의 독경소리 등 현지에서 녹음한 자연 음향을 최대한 살려 마치 청취자들이 현장을 순례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

안내를 맡은 방학봉교수는 "현재 중국 집안(集安)에서 확인된 20기의 고구려 벽화 고분중 하나인 5회분 5호묘를 살펴보면 부처님의 모습과 불교 그림과 문양 등을 발견 할 수 있다"며 "이처럼 고구려나 발해의 유적들 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불교 유적들이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족의…'는 송기호교수(서울대 국사학과)와 서병국교수(광운대 인문과학대) 등 국내의 정통있는 고구려·발해사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방송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방송은 숨겨진 고구려와 발해의 불교 문화 유적을 조명한 역사 기행 다큐를 추석특집으로 방송한다. 사진은 발해 불교유적인 흥륭사 전경.

명사들의 건강비결 ⑭



박 정 자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고문〉

"부처님 법을 그대로 생활화하는 그 자체가 건강비결입니다."

박정자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 고문(79)은 오늘도 예경제불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모든 것에 대한 예경과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인연된 모든 것을 긍정하는 마음이야말로 건강관리의 근본이라고 믿는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열고 사는 것 외에 몸을 특별히 챙겨본 적은 없다고 했다.

특히 박고문은 대자연과의 교류를 강조한다. 하루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끼만을 먹는데 밥 한숟가락 분량정도로 소식하고 감자, 당근, 솔잎 등의 자연식을 상용한다. 그리고 되도록 제철에 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유지의 비결이라고.

하루 두끼 소식… 매사에 감사

108배·사경 생활화 건강 한 몫

박고문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정신만을 새긴다면 아만과 탐욕이 저절로 사라져 이기심으로 몸에 이로운 것을 탐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108배와 3~4시간의 〈법화경〉 사경. 그것은 몸의 건강을 위한 운동 대신이기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속에 머물고자 하는 수행이기도 하다.

부산 불교계 어린이 포교의 대모라 불리는 박고문은 어린이 포교 분야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인물이다. 교사 초창기부터 어린이 포교를 세세생생의 서원으로 삼고 6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시도 그 중요성을 잊은 적이 없다. 지금도 어린이 포교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린이 불교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가 없다는 박고문은 부처님 말씀 전할 때면 에너지가 넘친다. 몸의 건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반증인 셈이다.

지금도 교양대학 강의와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시간을 쪼개며 전력을 다해 생활하는 박정자고문. 부처님 법대로 살고, 전법하는 사람에게는 병도 고통도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음 7월15일 우란분절

목련존자가 어머니 지옥서 구한 날

전국 사암 25일 영가천도법회 봉행

'孝' 선양등 현대적 문화행사 펴야

음력 7월 보름날인 우란분절 사찰에서는 법회를 마련하고 선망부모와 누대조상들의 천도를 기원한다. 이날이 불교의 명절이 된 것은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를 아귀도에서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음력 7월 15일 하안거가 끝나는 자자일(自恣日)에 여러수행승을 공양했다는 고사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왜 꼭 이날 천도재를 봉행하게 되었을까? 〈목련경〉에 목련존자가 부처님에게 "어머니가 개의 몸이 되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개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하고 묻자 부처님께서 "오직 7월 보름날에 우란분재를 베풀면 어머니가 개의 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하셨다. 이에 다시 "무슨 까닭에 꼭 15일을 택하십니까?"라고 묻자 "목련아, 7월 15일은 스님들이 하안거를 마치는 날이므로 스님들이 기뻐하면서 한곳에 모여 너의 어머니를 건져내어 정토에 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내려오면서 우란분절을 기해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천도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지 불전에 모여서 우란분재를 지내거나 불공을 하고 천도의식을 거행하는 것만으로 조상들의 천도가 이루어진다고 만족해서는 안된다. 형식에 앞서 먼저 진심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부처님에 대한 바른 신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생전에 선업을 부지런히 닦고 악한행을 멀리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란분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조상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다.

봉은사는 우란분절을 맞아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 초청 지장경강설대법회를 21일~25일까지 연다. 이밖에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25일 49일간의 기도법회를 회향한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천도재 봉행 뿐 아니라 우란분절 본래의미를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현대적인 문화행사, 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포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천 석왕사의 백중맞이 지역노인 초청 경로잔치, 불광사의 지역내 효자효부 가정 선정 시상하기 등이 우란분절의 의미와 가르침을 오늘에 되새기는 본보기라 할 것이다.

이은자 기자

"논산 입소대 법당 세우자"

불교어머니회 발원 화주

불교어머니회(회장 김반야성)가 논산훈련소 입소대 법당 건립에 나섰다.

90년 2월부터 논산훈련소에서 근불자장병 양성에 힘써온 불교어머니회는 요즘 입소대 법당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입소대는 신병들이 군 입대후 정식 군인이 되기전 7일~10일간 머무는 곳으로 타종교의 경우 이미 종교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불교만이 아직도 법당을 마련하지 못하고 군의 신체검사실을 빌려 탁자위에 불상을 놓고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산훈련소는 우리나라 국군의 절반을 배출해 내는 곳으로 매월 2600명이상의 장병이 수계를 받는 포교현장이다.

불교어머니회는 이미 97년 논산훈련소 원법당 호국연무사 중창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8백명수요의 법당을 3천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설법전으로 여법하게 이뤄놓은 것. 대법당 건립을 위해 불교어머니회 회원들이 전국의 각종 불사와 법회현장을 찾아다니며 눈물겨운 모금활동을 벌인 결과였다. 이곳 논산훈련소에서 수계를 받고 불자로 태어난 군장병수는 지난 10년간 17만명이 넘는다는 것이 회장 김반야성보살의 설명이다.



◇수계법회현장의 군장병과 불교어머니회 회원.

김회장은 "차 한잔 마시는 돈을 아껴 입소대법당건립기금마련에 동참한다면 아들같은 우리의 군불자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불자와 스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불교어머니회는 오는 29일 논산훈련소에서 신규입대 장병을 위한 수계식을 갖는다. (017)205-9292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대전 청소년불자 농촌봉사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종실)는 11일~13일 3일간 '99 청소년 농촌봉사활동(人·진)을 실시했다.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소재 날망집 농원일대에서 펼친 이번 봉사활동에는 총 58명이 참가해 과수원 잡초제거, 낙과일 줍기,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식량과 농촌문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환경 특강과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사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청소년 포교 활성화' 간담회

조계종 28·29일 안성 문화마을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28일~29일 경기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포교원 연구실에서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를 발표하고,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교육정책변화와 청소년 포교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또 교법사단이 '파라미타 창립배경과 활동과정 평가'를, 파라미타 중앙사무국에서 '파라미타 활동계획'에 대해 발제한다.

96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창립이후의 청소년 포교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활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파라미타 운영위원과 청소년포교현장에서 활동중인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중앙임원 및 지부장, 교법사, 사찰학생회 지도법사, 포교사단 청소년포교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 신

파라미타 소식지 창간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청소년소식지 월간〈파라미타〉를 창간했다.

창간호에는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등 생각하며 읽을 수 있는 이야기와 그림, 청소년의 고민상담과 파라미타의 활동사항들을 소개하고 있다.

〈파라미타〉는 학생기자와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02)723-6165

청소년 영상창작 캠프

양정청소년회관은 24일~26일 2박3일간 경주 산내면 보광암에서 '작은 영화만들기' 청소년영상창작캠프를 연다.

이번 영상창작캠프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자신의 관심분야와 욕구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영상제작실습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제작기초교육과 카메라구조이해교육 및 작동실습 등의 교육을 통해 조별 기획과 촬영, 편집 등의 실제 경험도 한다. (051)868-0750

우리는 선우 도서관 운영

우리는 선우에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준비중이다. 선우사무실내에 마련되는 청소년 도서관에는, 현재 청소년관련도서 100여권이 마련돼 있다.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후원을 받는다. (02)2278-8672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卽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金가피")에 다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묘목
▮ 주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3~4
▮ 인터넷 홈페이지:http://myhome.netsgo.com/baeghj/

레이키(REIKI靈氣)능력 · 전수합니다 ·

레이키와 氣가 같은것이냐 다른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대답합니다. 레이키와 氣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에너지〉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에너지의 진동수가 다릅니다. 레이키는 높은 진동수를 가진 고급생명 에너지입니다.

레이키는 우리가 〈관무량수경〉의 일상관(日想觀)을 행할 때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불타는 저녁놀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무상감과 함께 뭉클하게 솟아올라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동정심과 자비심을 느낄 때의 그 생명 사랑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뿌리깊은 고뇌와 중한 병을 제거하고 행복하고 환희에 찬 생활을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생명에너지의 꾸준한 작용이 필요합니다.

또 레이키법과 기공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대답합니다. 기공은 오랫동안 힘들게 수련을 해야 능력을 얻게 되지만 레이키법은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어튠먼트라는 절차만 받으면 바로 능력을 얻게 되는 법이라는데서 기공과는 다른것입니다.

한편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목적으로만 하는 기공을 소(小)기공이라 한다면 레이키법은 사회구제와 인류구제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라는 데서 대(大)기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나 질병치료에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의 회복, 지구환경의 개선, 인류재해의 예방에도 쓰일 수가 있어 대기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3단계까지 전수를 받은 레이키요법가는 누구나 이런 보살도를 실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구환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 피어선빌딩
전화 : 02)720-5682 / 725-2311
지도자 박희준(레이키마스터 /티쳐 . 번역전술가)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 피라밋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²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 황토주택시공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元 기와 元



■전남 순창 고추장 단지

- 30년동안 기와를 생산, 시공하였습니다.
- 30년전에 판매한 기와가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 사찰. 제각. 주택의 지붕은 책임지겠습니다.
- 최신 자동화 시설로 품질이 더욱 좋아졌고 가격이 저렴해 졌습니다.
- 연락주시면 거리에 관계없이 상담과 견적올리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1015-34
(주) 정 화 스 톤
TEL. 0693)473-3969 / 473-2475
H.P 011)783-2497 FAX 0693)472-5754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마하 쇼핑몰 선정
기획 상품 특판전

부다피아 티셔츠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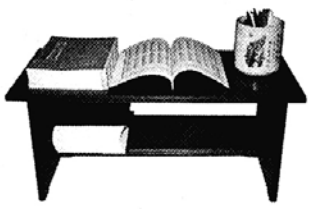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나팔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 ₩7,000

10장 이상 주문시 소매면, 넥크, 색상별 인쇄해 드립니다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지루한 집진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읽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 ASH(느릅나무)완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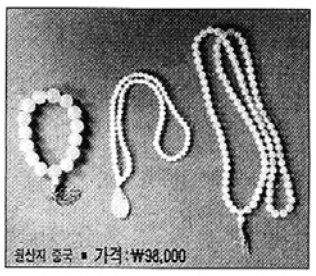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잣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뜬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쾌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영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골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56,000(2개 한세트)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 가격:₩3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초산옥(호북,삼양),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은 2300여년전 부터 내려와 그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벽옥구패'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여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있다.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여따 부위에 올려 찧으시면 여러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발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발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가격:₩35,000

달마도 순금판 액자

신상품



상반신



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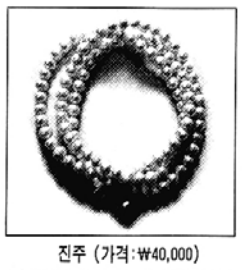
달마도의 대가 매헌 옹중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끼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66 호

- 가격:₩120,000

108진주 목걸이

신상품



진주 (가격:₩40,000)



흑진주 (가격:₩50,000)

천연 담소진주를 이용하여 만든 목걸이

바라밀 건강 칫솔 (어린이 선물용)

신상품



- 가격:₩3,900

치약을 내장 시킬수 있는 칫솔로써 칫솔과 치약이 분리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치약을 떨어 뜨리거나, 과다사용)을 말끔히 해소시킨 아이디어 상품

제품의 특징
1.미국 듀폰 타이넥스사의 부드러운 양질의 모를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보호
2.치약 1회 주입으로 12~15회 사용
3.치약 떨어 뜨림, 과다사용 방지
4.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양치 습관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줌

사용방법
· 피스톤을 분리 후 칫솔 몸통을 꺾고 치약을 짜 넣습니다.
· 필요에 따라 적정양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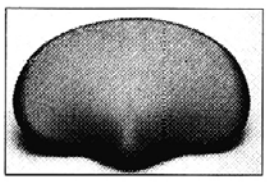
어린이 선물용으로 다량 주문시 할인해이 드립니다

실용신안 제18263호 / 의장 제16339호 / 상표 제28424호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빠른 서비스 고급화된 매장, 부담 없는 가격을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에서 만나십시오.
아울러 고객 여러분들의 보다 쉽고 빠른 접속을 위해
새로운 도메인 주소인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로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 서비스, 고객중심 매장 서비스 및
저렴한 가격의 마하몰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마하(摩訶)는 범어 mah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크다는 뜻과 많다, 초월한다, 신묘하다는 뜻으로 경전의 이름이나 불교용어의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주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용어 입니다.)

참선 명상 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균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지면스럽게 펴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신행단체, 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브론즈 코팅형



개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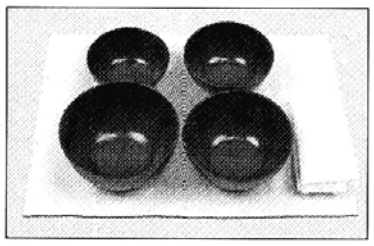


골동품형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40.5cm
- 가격 : ₩350,000(코팅형,골동품형) ₩580,000(개금형)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 와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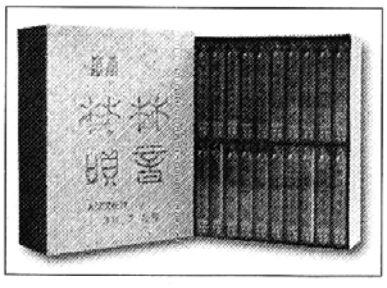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야 할 도구의 하나로 밥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빌다라(鉢多羅-patra)인데 재료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앙에 맞는 그릇(應量器)' 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 와발우(4합) - 가 격 60,000원 무게 2.7Kg
- 와발우(2합) - 가 격 30,000원 무게 1 Kg

(2합은 재가 불자를위한 발우 입니다)

문구암스님 법음 · 범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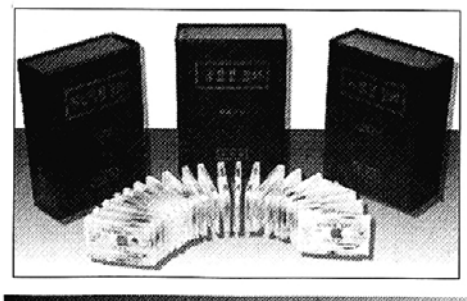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심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심신이운 3.신장청 · 손증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외식 II 8.대령 · 관욕의식 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 I 11.영산작법 II 12.영산작법 III 13.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해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명전점안 20.종성 · 천수직법 · 요잡

- 가격 : ₩60,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환절한 마음을 조응히 하고 꼭 들어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믿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 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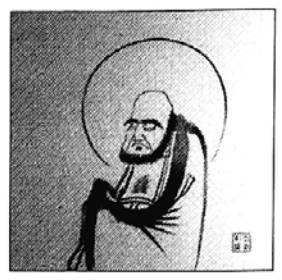
〈제작〉 대정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감독-황기태
상영시간 :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 가격:₩13,000

달마 양면 자수

머리카락 크기의 실크를 이용하여 오랜시간 불자님 손안에서 수만 수십만번의 섬세한 자수 작업으로 한올 한올 수놓아져 세겨진 놀라운 작품 신심이 바탕이 된 기술로 심혈을 기울여 세겨놓은 불교 예술품에서 자수 미술의 극치를 경험하십시오 수 놓은 면 앞 뒤를 유리로 투명화하여 전등 빛이나 촛불이 어우러질때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운 감동이 함께 할 것입니다 흔치않은 달마도 명품의 소장자가 되십시오 작업시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공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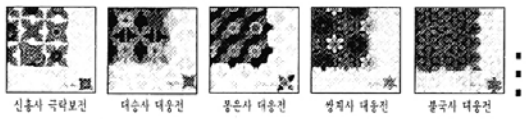
양면수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세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수 기법(앞뒤를 보아도 똑같은 형체가 나타남)



- 가격:₩500,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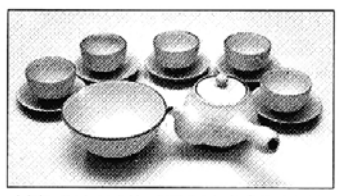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해여 드립니다

고산다기



고산 이규탁 선생은 의친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산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산의 십일대손인 고희정산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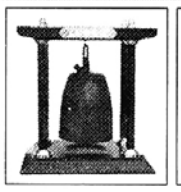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무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삼신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성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 가격:₩120,000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대 ₩63,000(11×25cm)
중 ₩47,000(8×16cm)
소 ₩31,000(6×13cm)



대 ₩219,000(15.5×25cm)
중 ₩89,000(10.5×16cm)
소 ₩69,000(9×13cm)



대 ₩37,000(11.5×18.5cm)
중 ₩25,000(8.5×14.5cm)
소 ₩17,000(6×10cm)

신라의 이 하면 가장 먼저 성덕대왕신종. 속명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봉덕사 선덕대왕신종 은 구경(D.은) 2.227mm, 진고(全高) 3.663mm, 두께 203mm, 음통고(音筒高)643mm의 거종으로서 중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동양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유산을 재현하여 100% 청동의 100%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다

반야 불교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득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慙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총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 제질 금류박(18k,14k-1.5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환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자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저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녀,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저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달이지도 않고 분쇄후 풀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부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부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풋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법성게 걸망



법성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용 사용 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 크기 : 500×460(mm)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법회안내

반야심경 강해법회



호명스님(통도사 한주)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통도사부산포교원 〈반야심경〉강해법회. (051)816-2241

여름불교대 회향법회



종범스님(중앙승가대교수) 29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삼보회 여름불교대학 회향법회. (02)913-2859

'참나를 찾아서' 법문



혜국스님(제주 남국선원장) 31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문화회관 개관 8주년 기념 '참 나를 찾아서'주제 법회. (042)624-6555

서불청 '금강경' 법회



자명스님(관음정사 주지)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불교청년회 정기법회 〈금강경〉법회. (02)730-910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8월25일 (수)

■생명나눔 8월대법회=생명나눔 8월 대법회가 오전 10시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된다. 헌혈, 화장유언, 사후장기기증서약을 한다. (02)392-3008

8월26일 (목)

■포항운전기사불자회 정기법회=포항운전기사불자회는 오전 10시 보경사에서 개인택시 불자운전기사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562)277-9943

8월27일 (금)

■전통사찰음식 및 유기농사 현장탐방=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오전 6시 강원도 정선 두타초암으로 전통사찰음식 및 유기농사 현장탐방을 떠난다. 전통된장 만들기와 우리먹거리의 우수성을 배운다. (02)355-5961

8월28일 (토)

■부석사·개심사 성지순례=덕숭총림 수덕사 부설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은 29일까지 1박2일간 서산 부석사와 개심사 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02)541-0002

■월정사·상원사 순례=옛돌은 강원도 월정사와 상원사를 찾아 순례를 떠난다.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을 감상하고, 돌아오는 길에 봉평 메밀밭을 둘러본다. (02)

■청소년포교 간담회=조계종 포교원에서 청소년 포교와 파라미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9일까지 안성 너리골수련장에서 열린다. (02)720-7060

■봉암사·김룡사·대승사 성지순례촬영=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는 밤 11시 문경 봉암사, 김룡사, 대승사로 무박2일 성지순례촬영을 떠난다. (02)2266-0302

8월29일 (일)

■서울불교청년회 소쩍새마을 자원봉사=서울불교청년회는 오전 7시 20분 소쩍새마을 자원봉사를 떠난다. (02)730-9108

■청량사 철야 및 구인사 참배=용진신행회는 봉화 청량산 청량사에서 철야법회를 갖고, 구인사를 참배하는 순례법회를 떠난다. (02)2279-1191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불교세계화 위해 영어 배우자

화계사·백련학당·무불선원등 강좌개설 붐

"영어로 불교를 공부합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최근들어 교계에 영어공부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3월 법화정사가 현각스님(화계사 국제선원)을 초청해 3개월간 매주 일요일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 강독을 했으며, 4월에는 한국불교선학원 무불선원에서 역시 현각스님과 함께하는 불교영어강좌를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다(02)541-0002. 또 강남포교원에서도 매주 일요일 법회가 끝난 후 부처님 말씀을 영어로 공부하는 시간을 8월부터 열었다(02)539-2631.

오는 9월에는 성철선사상연구소 백련학당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금강삼매경〉의 영어 원전 강독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교영어 강좌를 시작한다. 백련학당은 불교일본어와 한문기초등의 강좌도 함께 진행한다(02)744-1544.

이들에 앞서 화계사 국제선원에서는 96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영어법회를 외국인 스님들이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02)900-4326,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도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교영어강좌를 열기도 했다.

이밖에 PC통신 하이텔 불교동호회의 영어경전방에 들어가면 통신도 하면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 98년 11월 개설된 영어경전방에는 경전원문과 해설을 영문으로 실었다. 하이텔불교동호회 화면에서 26번으로 들어가면 된다.

올 가을에는 영어공부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도 배우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어강좌에 동참해 보자.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게 시 판

알림

▲한방무료 진료소 상설 운영=봉은사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한방 무료진료소를 상설 운영한다. 양방진료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치과진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다. (02)511-6070

▲노인 무료영화 상영=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25일 오후 3시 3층 강당에서 노인 무료영화 '불효자는 웁니다'를 상영한다. (02)852-0525

강좌

▲불교문화센터 제28기 강좌=불교문화센터는 제 28기 강좌를 9월 1일~11월 31일까지 연다. 불교란 무엇인가, 불화그리기, 경전강독, 불교전통꽃꽂이, 생활역학, 건강기공, 요가, 어린이 유아강좌 등 42개 과목, 59개 강좌가 마련돼 있다. (02)703-0108

▲조계사 〈초발심자경문〉강좌=조계사는 3개월 과정의 〈초발심자경문〉강좌를 실시한다. 계초심학입문, 발심수행장, 자경문 등을 공부하며 수강료는 4만원이다. (02)720-1390

▲불교교리강좌=능가선원은 제 1기 불교교리강좌를 연다. 9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며, 3개월과정이다. (02)408-1866

▲봉은불교대학=봉은불교대학 제31기 및 야간 14기 강좌가 9월 1일부터 개강된다. 주간은 매주 수, 목요일 오전 10시, 야간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실시한다. (02)511-6070

▲교양강좌=낙동복지관은 양식조리사, 가족머리손질반, 컴퓨터교실, 수지침교실, 홈패션 등의 교양강좌를 개설했다. (051)271-0561

▲불교복지보건대학 침·뜸 강좌=불교복지보건대학은 김남수 선생 침, 뜸 부산동호회를 결성하고, 매주 월, 토요일 침뜸 강좌를 개설한다. 첫강의는 31일. (051)647-6556

▲동산불교대학 불교교리강좌=동산불교대학이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를 9월 1일부터 연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산법당에서 실시한다. (02)732-1206

▲집중하는법 강좌=박민수 참선교육원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광주 두암동 청아맨션에서 현자하는 일과 공부에 집중하는 법 강좌를 연다. (062)251-2733

모집

▲꽃꽂이 강습회원=봉은사 신도회는 9월 6일부터 시작될 꽃꽂이강습회원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3시에 실시하며 3개월 과정. 회비는 5만원이다. (02)516-6630

▲어르신 생신잔치 후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월 1회 실시하는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어르신생일잔치 후원을 기다린다. 떡, 전, 과자, 음료수 등. (0342)716-4215

▲정신대연구소 후원=정신대연구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교육과 홍보활동을 후원해줄 후원자를 기다린다. (02)814-9207

▲무료급식 후원=맑고향기롭게는 결식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후원자를 모집한다. 밑반찬 나누기, 쌀나누기에 동참하거나, 금액으로 후원하면된다. (02)741-4696

▲독거노인 자원봉사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가정방문 가사지원서비스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유료자원봉사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9월부터 본동초등학교에서 종이접기, 풍물교실, 영화모니터, 댄스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료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17-8052

▲장애인무료합동결혼식 후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월 9일 실시 예정인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의 후원을 모집한다. (0443)652-0900

▲장애여성 목욕자원봉사자=강북장애인봉합복지관은 여성장애인 목욕서비스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구한다. 매주 화, 금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에 활동해야 한다. (02)989-4215

답사

▲지리산 자락 답사=답사여행의길잡이 터사랑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으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대원사에서 덕천선원, 산천재, 단속사터, 정여창 고택, 허삼둘가옥, 농월정, 거연정 등을 돌아온다. (02)725-1284

중 단 소 식

조계종

보림사 무명원혼 천도재

6·25 전쟁당시 전남 서남부지역 최대의 격전장이었던 장흥 보림사(주지 현광)는 28일 오전 10시 무명원혼을 위한 천도재를 연다. 보림사는 빠른시일내 무명인 추모탑 건립위원회를 구성, 내년에는 무명인추모탑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0665)862~2055

전북승가회 전체회의

전북사암승가회(회장 도영)는 30일 오전 10시 금산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의 대중화, 토착화를 위한 참회법회인 점찰법회와 매향 기념비 제막식등 하반기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행사 개최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0658) 548~4441

쌍계사 주지선출 산중총회

하동 쌍계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새 주지를 선출하기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태고종

수계 신청자 소양시험

9월7일 오후 1시 서울 종무처에서 제23기 합동득도수계 산림 참가신청을 낸 행자를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소양시험은 불교기초교리와 초발심자경문 습득 정도를 알아보는 필기시험과 반야심경 천수경 조석예불 등 행자의 기본 습의정도, 승가의 화합관, 종단관, 불교관 등을 알아보는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연흥사 무료 한문교실

부천 연흥사(주지 법경)에서 개설한 여름방학특강 제2회 무료한문교실이 1개월간의 일정을 마치고 4일 종강됐다.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교재로 실시된 이번 한문교실에는 초·중·고생 80여명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주지 법경스님은 종강법회에서 정재환군을 비롯 6명에게 우수상을 수여했다.

천태종

29~31일 신도회간부 교육

제49차 하계 전국 신도회 간부교육이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총본산 구인사에서 실시된다. 전국 사찰 신도회 임원 1천5백여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부서별 보고와 특강이 있다.

진각종

아사리 교육 실시

교육원(원장 일정)은 26, 27일 양일간 성북구 총인원에서 아사리교육을 실시한다. 스승들 재교육과정중 최고과정인 이 과정을 수료해야 종사자격이 주어진다.

법륜종

제1차 포교·교화사 연수

총무원(원장 효성)은 제1차 포교사 및 교화사 연수교육을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종로구 수송동 총무원 건물 3층 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불교교리 및 포교사와 교화사의 의무 △예불의 통일과 우리말 의식 △21세기 미래지향적 불교관 등의 교육이 있으며 동참금은 5만원. (02)733-4445

미타종

제 199회 임시중앙종회

31일 오전 11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199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에서는 7월 30일 밀양에서 개최한 경제난 극복과 극민대화합 기원 영산재에 대한 결산보고와 함께 종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

총화종

수재의연금 531만원 전달



총무원장 남정스님〈사진〉은 19일 종단에서 모금된 수재의연금 5백31만원을 조선일보사와 창원 KBS에 전달했다.

해동종

종단간부·대의원 교육

총무원은 30~31일 경남 사천 백룡사에서 종단 간부 및 대의원 연수교육을 갖는다. 30여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교육에서는 △종조 원효대성 화정국사 사상강연 △사찰관리법 및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0331)262-1577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경주 불일암 지호스님 원력세워

'가정폭력 상담소' 개설

교수 · 의사 · 신부등 상담…청소년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청소년문제를 안타깝게 여겨 관련교육 및 수련기관을 찾아 다니며, 청소년 상담요원을 양성하는 등 열정을 쏟아온 비구니 스님이 가정폭력 및 청소년 상담소를 개설했다.

경주시 불일암 주지인 지호스님은 12일 성타 불국사 주지스님, 이원식 경주시장, 최규수 경주시장 등을 비롯한 각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성건동 176-8 경주보훈지청옆 건물에 '경주 가정폭력 및 청소년 상담소'의 문을 열고 상담을 시작, 하루평균 5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사찰에서 주부 신도들을 대하면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게 된 지호스님은 가정폭력상담을, 동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상주씨(36)는 청소년 상담을 맡았다.



◇지호스님

또한 종교를 초월해 정성해 신부(성조동성당), 김준철 목사(샛별교회)를 전문상담가로 초빙했으며 동국대 김용택(사회복지학) 교수 등 교수진과 변호사, 동국대 경주병원 정신과의사들도 참여해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

스님은 "가정폭력은 단순히 매맞는 주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자 사회문제"라면서 "앞으로 쉼터를 개원해 가정폭력으로 설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활에 힘쓰겠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10여년전 가정법회를 가진 인연으로 8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영남대의료원 법당 및 영천 마야정신병원 종교상담, 이·미용, 목욕 자원봉사 등 활발한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 온 지호스님은 상담소 개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복지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가정폭력(0561)749-1366, 청소년 상담(0561)749-1318.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지호스님은 경주시 성건동에 12일 가정폭력 상담소를 개설했다.

우리절 불사 서울 원각사

소년가장 · 노인 요사채 건립

대웅전 · 명부전도 추진 불사위해 1만배 기도

서울 관악산이 서쪽으로 뻗어내려가다 도심과 만나는 곳에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아담한 사찰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남현동에 위치한 원각사(주지 활현)가 바로 그곳. 2001년까지 진행되는 원각사 종합불사의 첫단계는 대웅전 건립이다. 원각사는 2년전부터 협소하고 낙후된 대웅전을 헐어내고 천막법당에서 법회를 보고 있다.

원각사는 현재 7백50여평의 대지에 35평 규모의 대웅전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천불이 봉안될 대웅전은 자연친화적인 법당 건립을 위해 국내산 목재만을 사용하고 있다.

원각사는 금년말까지 대웅전 불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요사채 명부전 산신각 등 2단계 불사에 착수한다. 이 불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요사채이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는 요사채는 다른 사찰과 달리 방사를 최대한 많이 만든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독거노인을 위한 조치이다. 주지 활현스님이 후원해오고 있는 7명의 소년소녀가장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 물론 지역 불우독거노인들 가운데 집이 없는 노인들도 절로 모실 계획이다. 이 요사채 건립은 주지스님이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비단계이다. 소년소녀가장과 불우독거노인들을 요사채에 모시면서 경력을 쌓아 향후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이 들어설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스님의 가장 큰 원력이다. 스님의 원력이 요사채에서 부터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원각사는 종합불사를 진행하면서 신도들의 신행지도에도 적극적이다. 비록 천막법당이지만 전법과 신행의 열기는 비닐천막안의 찜통더위를 무색케한다.

원각사는 원만한 불사회향을 위해 28일부터 1만배 기도에 들어간다. 또한 오는 9월10일까지 부처님진신사리친견법회를 열고 있다.

주지 활현스님은 "사찰이 신도들의 기도 신행 등에만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대사회적 활동에 적극나서는 것이 바로 새천년에 불교가 올곧게 설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서울 원각사는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요사채를 중점으로 건립하고 있다. 사진은 대웅전 건립 모습.

초의선사 생가복원 개방

27~31일 무안 연꽃축제 맞춰

추모비 · 녹차단지도 완공

초의선사 생가가 제3회 무안 연꽃축제 개막과 함께 27일 첫 개방된다.

무안군은 조선후기 높은 인품과 다승으로 널리 알려져 중국과 일본 등 에서도 추앙을 받아온 초의선사의 덕을 기리기 위해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생가복원을 해왔다.

1만5천평부지에 생가및 추모각 추모비 기념전시관 다도체험관 청소년수련관등 7동의 건물을 2000년 말까지 건립하는 무안군은 현재 1차로 생가와 추모각 추모비 녹차재배단지를 완공했다.

무안군청 문화관광과 배홍석씨는 "초의선사는 시 서화 다 선에도 뛰어나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등 당대의 훌륭한 석학들과 폭넓게 교류하여 우리문화사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스님이다"며 "초의선사의 얼을 되새기고 녹차단지를 통한 녹가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 3회 무안 연꽃축제가 27일부터 31일까지 전남 무안 회산방죽에서 열린다.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에서 열리는 이번 연꽃축제는 풍물길놀이, 방생및 연등행사, 연향차 봉차의식, 연꽃춤, 연꽃장사 씨름대회, 품바공연, 법요식, 방생연등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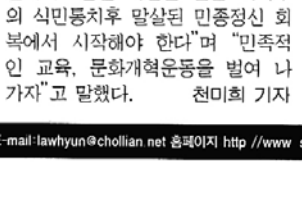
전북불교 21세기 기획단 만들자

전북불교련 간담회

전북불교연합회(회장 도영)는 11일 전주 목원예식장 백악관에서 도영(금산사 주지) 지광(중앙종회의원)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 40명과 불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 전북불교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기조발언을 통해 "그동안 전북불교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미래에 대한 불교 내부의 대책이나 준비가 덜 된 까닭에 타종교에 비해 역할이나 지명도가 밀리고 있다"며 "2000년과 21세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무(17교구 신도회장) 성광문(군산불교신도연합회장) 고정관(대불청 전지구회장) 김종엽(전주 완산구청장) 임철종(공무원불자 전북연합회장)씨 등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불교적 조직력을 다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승가와 재가가 함께 모여 불교기획단이나 21세기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진로를 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종파초월 화합해야"

종교인 평화회의 8 · 15 강연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는 13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광복 54주년 기념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불교를 비롯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유교 등 6개 종교 지도자가 참석했다.

천도교 동구 교구장 김성수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각 동단대표의 기념사, 3·1정신 현창 선언문 낭독과 김지하 시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기념사를 통해 덕수스님은 "3·1운동 당시 33인의 민족지도자는 거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이들이었다"며 "종단과 종파를 초월 화합된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족정신회복 시민운동연합 대표인 김지하시인은 3·1정신의 상고사적 고찰과 현대적 계승이라는 주제강연에서 "현실 개선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후 말살된 민종정신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족적인 교육, 문화개혁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캄'에 한국어 알리자

전북불교회관 교과서 보급

전북불교회관(원감 수진)은 캄보디아에 한국어 보급을 위한 교과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내전을 종식하고 민주사회로 발돋움을 시도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최근 외국어 선호도에 있어서 한국어가 영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불교회관은 1차로 관광가이드와 상인들에게 보급할 초등학교용 교과서 모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0652)251~4942

삼광사 초심자 교육 사찰예절 의식등 지도

삼광사(주지 덕수)는 천태종에서는 처음으로 새롭게 입교하는 신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매월 기도주간 중 5일을 정하여 삼광사 안내, 천태종요, 기도요령, 사찰예절, 기초의식과 구인사 참배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천미희 기자

조동종 운파종정 입적



조동종 종정 운파 스님이 14일 오전 9시 용천사에서 입적, 16일 오전 8시 용천사에서 영결식이 거행됐다. 세수 73세 법납 37세. 운파스님은 1962년 화엄사에서 경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66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으며 73년 용천사를 창건했다. 1983~86년 법화종 감찰원장, 1992년 조동종 제1세 종정에 추대됐다. 이경숙 기자

해인사 사찰음식 관광상품화

합천군, 전문식당 지정 21종 개발

오부치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방한했을 때 해인사에서 맛보았던 전통사찰음식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돼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합천군은 오부치총리 방문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인관광객을 위해 구절판, 탕수이, 탕평채, 곤약쫄임, 더덕구이 등 전통사찰음식 21가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합천군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전통사찰음식 전문가인 선재스님을 초청해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이틀동안 사찰음식전수 강습회를 개최한데 이어 고바우 부산 감로향원식당 등 해인사 인근에 있는 8개 음식점을 전통사찰음식점으로 지정했다.

이들 음식점에는 오부치총리가 해인사에서 식사하는 장면과 팔만대장경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액자가 메뉴판과 함께 걸려있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식단에는 광이,표고,석이버섯등을 오이 당근 무등과 함께 밀전병에 싸서 먹는 구절판등 21가지 사찰요리가 그림과 함께 한글과 일본어로 소개되어 있다. 풀코스로 차려지는 전통사찰음식은 1인 2만원선.

전통사찰요리는 고기와 오신채(파 마늘 생강 부추 흥거), 인공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맛이 깨끗하고 담백한것이 특징으로 특히 옛날 임금님만 들던 벌식 탕평채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고바우식당 주인 이중호씨(57세)는 "일본인관광객은 물론 관공서에서 외국인 접대를 위해 찾는 분들이 늘어나 매출이 경충뛰었다"고 말했다.

해인사를 찾는 외국인은 7월말 현재 4천8백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천3백44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오부치총리가 다년간후 일본인관광객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행복 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서울 마포구 아현3동 627-5 전화·365-5051~6 팩스 313-2729 하이텔 ID hyunam 천리안 lawhyun E-mail:lawhyun@chollian.net 홈페이지 http://www.sophie.co.kr *전화주시면 도서목록을 보내드리고 회원으로 등록해 드립니다.

영혼을 울리는 샘물 같은 고전

장자 오강남 풀이 / 값 12,000원
『장자』의 심오한 세계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해설한 풀이서.

莊子 안동림 역주 / 값 25,000원
인간이 숙명적으로 짊어진 부자유의 질곡에서 해탈을 추구하는 장자철학. 전편 완역, 상세한 주석!

도덕경 노자 원전 · 오강남 풀이 / 값 9,800원
시처럼 잠언처럼 들려주는 81편의 짤막한 글 속에 진정으로 자기를 완성하는 道의 길, 진리의 길을 담고 있다.

퇴계선집 이황 지음 · 윤사순 역주 / 값 15,000원
성리학의 최고봉인 퇴계의 인간과 사상의 전모를 밝히는 국학서.
『自省錄』, 『論四端七情書』, 『聖學十圖』 수록!

명심보감 안병욱 외 해설 / 값 9,800원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여 주듯이 생활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조목조목 담고 있는 修身書!

벽암록 신간
안동림 역주 / 값 18,000원
역대 고승들의 기상천외한 일화를 화두로 한 선문(禪門) 최고의 책!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세계관을 장대한 스케일과 풍부한 문학적 상징을 통해 여실히 보여 준다.
유려한 번역, 상세한 주석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채근담 홍자성 지음 · 조지훈 역주 / 값 9,800원
자연과 마음, 수신과 성찰, 세상 사는 법도에 관한 금과옥조의 지혜를 담은 책.

唐詩 이원섭 역해 / 값12,000원
당 비파의 울림처럼 우리 가슴을 애틋하게 적시는 唐詩의 운율과 뜻을 우아하고 유려한 우리말로 재현한 詩書의 완벽한 고전!

불교대전 만해 한용운 편찬 / 이원섭 역주 / 값 19,500원
만해 한용운 선생이 편찬한 불교 경전의 정수!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방대하고 어려운 대장경에서 깨달음이 투철한 눈으로엄선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꿰뚫어 보게 한 역작!

불교성전 석해운 옮김 / 값 9,800원 부처님의 생애, 가르침, 정진(精進), 법우(法友) 등 네 장으로 나누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읽을 수 있게 한 성전.

불교 개론 마쓰야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6,500원 불교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이론서.

반야 유마경의 지혜 이시다 미즈마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5,000원
공(空) 사상, 실천 이념, 사회와 인간 구제 등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

화엄경의 세계 다마키 고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6,500원
대승불교의 웅대한 세계관과 석존의 깨달음에 이르는 안내서.

아함경 이야기 마쓰야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6,500원
붓다가 여러 사람과 나눈 문답과 실천적 가르침.



미란타 왕문경 이시카미 젠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5,000원
그리스 왕 미란타와 승려 나가세나의 대화 기록.

열반경의 세계 다무라 요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5,000원
붓다의 죽음을 중심으로 그 경과를 서술하고 죽음 너머 영원의 문제를 밝힌 책.

법구경 김달진 옮김 / 값 9,800원 네 가지 苦에서의 해탈과 인류 구제를 부르짖던 붓다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

부처님 말씀 성엽 엮음 / 값 15,000원 중생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에 관해 명쾌한 답을 내려준 아함경 이야기.

붓다 루사고지 시네아츠 지음 · 박경훈 옮김 / 값 9,800원 가비라 성(城)의 왕자에서 보리수 아래 고행을 거쳐 해탈, 열반, 극락에 이르기까지 붓다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전기.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인간 붓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결식아동돕기' 교계 관심 확산

사찰·단체·복지관등 잇달아 동참
새불교승가회 등 1500명에 자비손길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몇몇 사찰과 복지관에서만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것이 올해들어서는 복지관을 주축으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 현재 전국의 결식아동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15만명. IMF 이후 저소득 가정이 늘어나면서 결식아동 또한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중 불교계가 돕고 있는 결식아동은 모두 1천5백여명에 이른다.

지난 7월부터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결식아동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대표 석담·진욱)는 이달들어 법주사 봉정암 등 17개 사찰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포스터 및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조계종 사회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등 종단차원의 모금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 중앙(서울)모임은 매달 한차례 47개 가정에 밑반찬 등을 제공해 오던 것을 이달부터는 매주 74개 가정으로 확대했다. 또 광주모임은 매주 월~금요일 22개 가정에 '자비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으며, 대구모임은 10 가정을 선정해 쌀과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8월분 결식아동돕기 쌀 200kg을 덕수중학교에 전달했으며, '자비의 쌀독'에 모여진 쌀은 자양복지관과 파랑새나눔터의 결식아동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도 지난해부터 관내 결식아동에게 장학금과 쌀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불교신도연합회(회장 한철웅)는 지난 5월 제천시를 방문해 성금 1백만원을 기탁하는 한편, 관광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펼쳤다.

교계 복지관 역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급식 지원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습지도까지 함께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옥수종합복지관은 지난 7월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해 결식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학습지도까지 해주고 있다. 구미복지관도 6월부터 40명의 결식아동에게 학교로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으며, 방학중에는 영어학습과 봉사활동 등의 소그룹활동을 펴고 있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월~금요일 매일 점심 도시락을, 부산 용호복지관은 성금을, 삼전복지관은 장학금과 도시락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과천복지관, 구로복지관, 부천 덕유복지관, 속초복지관 등 모두 25개 교계 복지관들이 모두 8백여 결식아동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어린넋들 극락왕생하소서"

화성 씨랜드 참사로 희생된 어린이 13명의 49재 천도재가 1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관욕과 불공 영기법문 순으로 진행된 이날 천도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비롯한 유족과 신도 등 3백여명이 참석해 어린 넋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진=고영배기자

조계종, 문화재보호법 개정 나서

문화재청에 의견서 제출…자연공원법 개정도 요청

조계종총무원이 비지정문화재 도난방지와 신도증 소지자의 국립공원 무료입장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6일 비지정문화재 도난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의견서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년 이상(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을 문화재보호법 81조(손상 또는 은닉의 죄) 3항에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박물관의 도난문화재 구입방지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한편 18일 공원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에 종교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관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조계종은 이날 환경부에 무료입장 대상자를 규정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15조 4항 8호를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사찰 또는 당해 사찰의 소속대표단체가 발급한 신도증 소지자'로 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달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는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 돼있어 신도증 소지자의 무료입장을 추진하는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부천원종복지관 개관
'청소년 쉼터' 등 운영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이 31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거행한다. 개관식에는 지역내 각급 기관장을 비롯한 지역민과 불자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부 개관식에 이어 2부 주민가요제를 중심으로 한 축제한마당이 펼쳐진다.

지난 5월 부천시로부터 조계종 복지재단이 위탁받고 부천 석왕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연건평 728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가출 청소년 단기보호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위탁교육, '왕따' 치료 및 금연·약물남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청소년 쉼터'를 개설해 지역 청소년 선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자비 실천해야죠"

남아공에 간 NGO 해외봉사단원 혜성스님



"봉사활동이라곤 하지만 빈민촌을 방역하고, 결손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한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는 등 부처님의 자비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 뿐이죠"

스님으로선 최초로 '한국NGO해외봉사단원' 자격으로 25일 남아공화국으로 떠나는 혜성스님(전남 대원사)은 그곳에서의 역할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동국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던 혜성스님인 중앙일보사에서 공모했던 '제1회 한국NGO해외봉사단' 모집에 응모했던 것은 세계 인류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당찬 포부 때문. 스님은 6개월간 남아공화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NGO란 핵·기아 등과 같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종교인으로서 NGO에 관심을 가져야 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NGO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재삼 강조하는 스님은 또 12월에는 남아공화국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종교의회(CPWR)에 한국불교계 대표로서 참가한다.

혜성스님은 "종교계 NGO 가운데 하나인 세계종교의회에 한국불교계의 첫 출사표를 들고 참여하게 되었다"며 "그 자리에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불교계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신원사 중악단 '보물관리 엉망'

곰팡이 끼고 나무 썩어 흉물스럽게 방치

지난 4월 보물로 지정된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보물 제1293호)이 곰팡이가 끼고 목재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등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중악단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산신제단으로 궁궐 건축양식을 브여 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됐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1차적인 보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반해 중악단의 경우 보수작업 및 보수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부분은 소홀했다. 이에 따라 중악단 곳곳에 거미줄이 즐비한 것은 물론 곰팡이가 끼고 목재부분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 도굴범

대구지검, 20명 적발

대구지검 형사4부는 영남과 충청권의 비지정문화재 수백여점을 도굴한 혐의로 성삼봉씨 등 5개조직 20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조선시대 인수대왕대비가 간행한 불경언해본인 〈진언권공언해본〉과 경남 함안군 주리사지 삼층석탑의 석사자상 등 문화재 102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노사화해 적극중재"

조계종 btn특위
정휴스님 위원장 사퇴

조계종 btn특위는 18일 9차 회의를 갖고 노사 화해를 위해 적극 중재키로 했다. 또 허문도사장 등 불교TV 현 경영진과 만나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특위 위원들은 불교TV를 방문해 허사장과 노조원들을 각각 만나 노사가 하루빨리 화해한다면 종단도 불교TV 경영정상화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 되지 않았다.

특위 위원장 정휴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주일 기자

뉴스 & 뉴스

조계종 수계산림 공고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은 제20회 단일계단 구족계와 제7회 식차마나계 수계산림을 10월11~17일, 10월17~19일 직지사에서 각각 봉행한다.

구족계 수계산림은 1995년도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로 승가대 대교과 졸업(예정)자 또는 선원 8안거를 성만한 스님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에는 사미니계 수계자(불기 2545년도 구족계단 비구니계 지원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성운 기자

재가연대 8월 정기포럼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공동대표 박광서)는 30일 오후 7시 관람료사찰의 관람료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8월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관람료사찰의 재정현황과 관람료수입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주제로 전수용(전 마곡사 사무장)씨가 발표한다. 김원우 기자

제주 원당사터 발굴

700년전 원나라 기황후의 지시로 제주에 세워졌다는 원당사가 발굴, 복원돼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제주시는 삼양1동 700번지 일대 해발 170.4m의 원당봉 기슭에 5층 석탑(보물 제1187호)만 남아있는 원당사 절터 5392㎡를 올해 안에 사들여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당사는 고려 충렬왕 26년(1299년)에 세워져 100년 가까이 존속되다가 조선시대로 넘어갈 무렵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욱 기자

조계사, 횡령관련 성명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20일 전 주지 현근스님의 횡령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현근스님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조계사는 성명에서 "조계사가 현근스님측이 7월28일 제안한 공동조사안을 수용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공개합동조사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현근스님측이 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현근스님측은 지난 6월 현 조계사로부터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당하자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현 조계사측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자고 제의했었다.

한명우 기자

진관스님 보안법위반 구속

서울지검 공안2부(박순환 부장검사)는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주최로 열린 8.15 통일대축전 및 범민족대회를 주도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을 1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관스님은 8.15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통일선봉대장을 맡아 지난 13일부터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주도한 혐의다. 김원우 기자

불교TV 노조의 허문도 사장 퇴진투쟁 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불교TV 노동조합이 신규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하고 전면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TV의 앞날을 밝힐 한 줄기의 빛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에 분노감마저 일고 있음을 밝힌다.

불교TV 는 아다시피 IMF 체계 돌입 이후 광고료 격감 등으로 부도위기까지 맞았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단행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난 해 조계종사태 때는 경영진의 사태개입에 따른 방송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전 사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식투쟁과 거리에 나서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호소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불교TV가 특정인이나 특정사찰·특정종단의 방송이 아닌 2천만 불자 모두의 방송임을 교계 내외에 알리기 위한 몸을 던진 의사 표시였다.

이번에 불교TV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택하게 된 까닭은 지난 5월 11일 대표이사에 취임한 허문도씨에서 기인한다. 허씨는 취임 직후 어려운 불교TV를 살리고 지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2개월만 지켜봐 준다면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헌했다. 불교TV 노조원들은 5공 당시 언론학살의 주범인 허씨가 불교TV 사장에 취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불신임을 결의했으나, 위기의 TV불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퇴진운동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불교TV를 살려야겠다는 노조원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광고편성에 대한 체계적인 원칙도 마련하지 못한 채 전 사원들에게 광고수주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목표량의 달성망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광고편성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오히려 광고주들의 원망과 질책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까지 받는 등 불교TV의 공신력 추락만을 초래했다. 프로듀서 등 전문 제작인력들을 영업사원으로 배치하는 파행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며, 아직까지 지난 7월분을 포함한 8개월분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8억이라는 부채상환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입주 건물주는 임차료 지불을 촉구하며 사내 에어컨 시설까지 차단하는 작금의 실정에 허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불교TV를 살리겠다는 어떠한 대안제시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원들의 무한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을뿐이다.

이에 우리는 불교TV가 직면한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불교TV 노동조합의 허문도사장 퇴진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이제 허씨는 불교TV 살리기에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불교TV 노조원들은 지금도 신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질높은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2천만 불자들에게 죄스러워 하고 있다. 허씨는 조노조원들에게 더 이상 죄짓는 일은 지속시키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우리는 허씨가 공언했던 불교TV를 정성화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퇴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불교TV의 정상화를 위한 각 종단 및 2천만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영진 및 이사진들의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1995년 3월 1일 불교TV가 첫 전파를 발사하던 날,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던가, 세계 최초의 불교 영상포교매체라는 자긍심으로 가슴벅차지 않았던가, 이미 세계는 정보화시대에 편입한 현실이고 보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불교TV가 파산될 경우 1차적인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눈 아침 이슬처럼 스러질지도 모르는 불교 TV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와 각 종단·불교TV 이사·불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정령 불교TV는 없어져도 되는 것인가?"

◆하나, 우리는 조계종의 전권을 위임받은 중앙종회 btn 특별위원회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자 한다.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btn특위는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불교TV를 더 이상 먼 발치서만 지켜보지 말고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회생책을 내놓고 여러 종단과 불자들의 참여를 호소해 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불교TV가 파산된 이후 조계종을 중심으로 새로이 설립하겠다.'는 게 btn특위의 향후 구도라는 말이 불교계에 회자되고 있는 소문에 우리는 주시하고자 한다. 불교TV는 현실 속에서 회생될 때 비로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파산 직후 설립은 재정적 측면이나 여론형성, 또는 정치선상에서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불교의 미래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불교TV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43(1999)년 8월 17일

한국불교기자협회

이 달 의 책



자 떠나자 원효 찾으러

원효 스님을 다룬 책들은 많다. 원효 스님을 아는 사람 또한 많다.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바로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저자의 여행은 시작된다. 친구와 함께 현장을 누비며 원효 스님의 행적을 좇는 형식으로 된 이 책은, 기행문이라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원효 스님의 사상을 충실히 담고 있다.

'멋진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이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도 좋을 듯하다.

정화목 지음
A5신 228쪽
값 7,000원
시공사



옛길

모든 여행의 종착지는 결국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돌아오기 위한 길 떠남, 여행이란 그런 게 아닐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여행은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행위이다. 글을 쓰는 것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기억을 하나로 이어 모으고, 파편화된 자신의 흔적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다."

옛길을 통해 오지를 더듬으며, 지난 날 우리들의 삶과 자연에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빼어난 문장으로 담아내고 있다.

안치운 지음
A5신 248쪽
값 9,000원
학고재



좋은 인연 맺는 법

2급 시각 장애자에다 신학대학을 나온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 남산 스님. 파스 한 장으로 고질병을 다스린다는 희한한 발상으로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된 스님의 예세이를 묶은 책이다.

지푸라기보다 더 나을 것도 없어 보이는 파스 한 장으로 돈도 없고 힘도 없이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 준 스님이 세상과 부대끼며 건져 올린 진솔한 이야기이다.

남산 스님 지음
A5신 368쪽
값 8,000원
이소



죽음을 준비합시다

'아무 고통도 없는 편안한 죽음'. 병든 이든 건강한 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누구나 죽음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다른 말 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너나없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삶 저편의 세계는 어떠한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궁금한 사람은, 죽음과 영혼 그리고 환생에 관한 밀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학장 스님 역음
A5신 220쪽
값 6,000원
우리출판사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류 모두의 공통된 정서일 테지만, 죽음에 대한 반응은 민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것이 이른바 죽음관이며, 한 문화의 심층에 또아리를 틀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바로 죽음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를 통해 중국 문화의 심층에 존재하는 기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희피와 금기의 대상이기도 하고, 적극적 선택(자살)이기도 하며,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될 벽이기도 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삶의 의미를 곰곰 새겨 보게 한다.

위빠뜨 지음
천재란 · 리길신 옮김
A5신 296쪽
값 9,000원
여문사람



티벳에서 온 편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술에 빠져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 현대 문명이라는 명제도 그렇다. 그게 독인줄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길들여진 나머지, 점점 그것에 빠져들고 있다. 문명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로 원기구를 대신한다는 사실은 그 중 작은 예에 불과하다.

이 책은, 한 문명인이 티벳에서 건져올린, 자기 혐오와 반성의 기록이자 그 대안에 대한 작은 모색이다.

김영종 지음
A5신 252쪽
값 9,000원
세계일



벽암록

선적(禪籍)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벽암록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한 책이다. 선문(禪門)의 1700가지 공안 가운데 대표적인 100가지를 뽑아 본칙(本則)으로 소개하고 앞뒤로 수시(垂示)와 평창(評唱)을 덧붙인 벽암록을, 사인이자 수행자인 오현 스님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것이다.

오현 스님의 해설 부분을 굳이 '사족(蛇足)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선적(禪籍)에 익숙지 않은 요즘의 독자들에겐 아주 자상한 길잡이가 될 것 같다.

조오현 역해
A5신 340쪽
값 10000원
불교시대사



바위로 배우는 우리 문화

바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풍속과 심성을 이해하고자 한 저자가 10여 년의 세월을 바쳐 이룬 성과물이다. 10손이면 감산도 변한다 했으니, 그 십년을 수백번 아니 수천번도 더 반복했을 바위에 세월의 주름과 역사의 흔적이 없을 수는 없을 터. 그것을 더듬는 일은 곧 우리 문화를 찾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암각화나 고인돌, 마애불이나 재단 등의 바위에 얽힌 역사를 사진과 함께 보여 준다.

노승대 지음
B6변형 334쪽
값 15,000원
우듬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큰 지혜

사랑의 학교에서 펴 내는 '동아리문고'의 첫째 권. 재미와 감동을 함께 지니고 있는 12편의 이야기를 통해, 효도나 우정, 책임감, 용기의 의미를 알게끔 해준다. 경쟁과 속도에 내몰린 요즘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덕성을 길러 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경쟁력 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천박한 견해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들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향이 지음
이수란 그림
A5신 104쪽
값 5,000원
사랑의 학교

스테디셀러 찾아가기

선관책진(禪關策進)



운서주굉 지음 · 광덕 역주 / A5신 양장 442쪽 / 값 13,500원 / 불교

"범은 가죽을 아끼고 군자는 입을 아낀다"고 했다. 옛부터 전해 오는 말이다. "말 깨나 하는 놈 가막소로 간다"고도 했다. 남의 손에 나라를 내 주고 숨죽이며 살던 때의 말이다. 또 있다.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 했던가. 좀 으시시한 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말이라는 게 참 안 좋은 물건인 모양이다. 그런데 또 희한한 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접을 받고 사는 편이라는 사실이다. 작가나 신문기자, 교수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그럼, 말은 대단한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아무튼 골치아픈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선가(禪家)에서는 말을 극도로 경계한다. 말로 세울 수 없고, 세워서도 안 되는 '그 무엇'을 찾는 까닭이다. 한 마디로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말을 버리라는 그 큰 소식 또한 말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도덕경의 구절 또한 좀 단순한 말인가. 그렇다면 결론은 외려로 간단하다.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로 귀결되는 것이다.

흔히 말한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고. 감히 말한다. 손가락을 보는 건, 보는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가리키는 손가락이 잘못된 탓이라고. 헛손질을 하기 때문에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투명한 손가락은 어떤 경우든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제대로 가리킨 손가락(참말)은 달(본체)과 둘이 아니다. 그것이 곧 달인 것이다.

참말은, 투명한 말이자 꽉 찬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眞心)을 드러낸 말은 마음 그 자체다.

참말은, 투명한 말이자 꽉 찬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眞心)을 드러낸 말은 마음 그 자체다. 그러나 잘못된 말, 거친 말, 소음에 가까운 말, 분을 덕지덕지 바른 요란한 말은 '마음의 감옥'일 뿐이다.

또 주지랄 들을 일을 했다. 해야 할 책 얘기는 안 하고 아까운 지면을 축냈으니까.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선관책진' 같은 책을 소개한다는 건 조금은 건방진 일이고 많이 미련한 짓인 것 같다. 선(禪)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비록 읽지 않았다 치더라도 어떤 책인지는 알 것이고, 역은이인 운서 주굉 스님 또한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81년에 초판이 나온 후 30여 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이 책의 빛깔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분명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책을 책방에서 보면 아주 든든하다. 백발이 성성한 데도 아직 정정한 고참의 노모를 보는 기분이다.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직접 구해서 볼 것을 간곡히 권한다. 달(본체)과 같은 책이다.

윤세확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jhyun@buddhapia.com

불교 출판계 소식

'조상 숭배'라는 과거 돌아보기가 현재의 삶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불교의 가장 큰 축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부처님께 연등을 올린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밝혀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의미이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에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영가등도 함께 공양한다. 그런데 이 영가등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우란분절(백중)에 올려지는 영가등의 수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조상 숭배는 그야말로 지극하다. 조상의 보살핌으로 자신의 삶이 평온해진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물론 조상없이 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상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상 숭배라는 과거 돌아보기가 현재 이 순간의 우리네 삶보다 중요하거나 우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기말의 어수선함 속에 과거에 얽매이는 시류를 타고 맺년 전부터 사십구재와 우란분절, 예수재, 천도재 등에 관한 책들이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는데 이러한 책들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거 돌아보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차라리 '돌아보기'가 아니라 '매달리기'에 가깝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불법을 수행하고 정진해야 할 불자들이,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여 내 가족의 복만을 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본분사는 아닌 것 같다.

잘팔 독서



빈손

성전 스님 지음
A5 196쪽
값 7,000원
이레지성

월간 『해인』에서 만났던 산사의 솔바람 소리 같던 성전 스님의 글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출가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세상에 드러내 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다 보면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아지랑이 같은 여운들이 가슴에 남는다.

어떤 이는 말의 잔치가 너무 요란한 게 아니냐고, 지나치게 감성을 자극하는, 출가 수행자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시비를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 책들이 지나치게 딱딱하므로 이런 책들도 나름의 필요는 있을 것이다.

'출가 수행자의 삶에 있어 정답은 무엇일까?'

철저하게 무소유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치열하게 수행하는 납자들에게

빈손의 삶, 그것이 사문들의 삶이다.
비우고 또 비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출가 수행의 길이다.

도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지 않을까.

성전 스님은 이렇게 대답한다.

"누구나 중으로 살 수는 있지만 참으로 중이 되어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모든 것을 얻고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평온한 중 같은 사람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빈손의 삶이 출가 수행자의 삶이라 말하는 성전 스님은 욕망을 비우고 또 비우면 해탈은 찬란한 빛으로 다가온다고 말한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이고 모든 이들에게 빈손의 삶이 가져다 주는 기쁨에 대해 들려주는 책이다. 독백조의 글과 숲 속 고요함을 느끼게 하는 시(詩)들이 그리움이란 것은 언젠가는 희망이 되리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김경일 지음/ A5신 328쪽/
값 8000원/ 바다출판사

이 책을 말한다

『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
한국인의 내면을 지배해온 유교 문화의 권위와 위선에 대한 도전

강지숙/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 이 사회는 바로 법을 가진 사람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는 인치 문화이다.

효도와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힘을 가진 기관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위에 군림하려 한다. 법은 있으나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엿가락 같은 법만 있을 뿐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유교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의 제목은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데가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유학자들의 분노를 사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잘못된 관습들을 저자는 꼼꼼히 찾아내고 있는데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들여다 보게 한다.

동양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발전을 더디게 하는 현상 세 가지는 첫째, 법치가 되지 않고, 툴째 늘 과거에 묻혀 살며, 셋째 주검을 숭배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유교의 특징에 다름 아니다. 인문(人文)의식, 온고지신(溫故知新), 조상숭배가 그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 이 사회는 바로 법을 가진 사람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는 인치 문화이다. 효도와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힘을 가진 기관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위에 군림하려 한다. 법은 있으나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엿가락 같은 법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흔히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고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의 모든 부족들이 끊임없는 싸움으로 단일민족 운운하기에는 불합리한 점들이 너무 많다. 유교 문화가 내세우는 핏줄 논쟁, 양반·상놈 논쟁은 억지 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해외 입양은 어떻게 봐야 하나? 단일민족의 순수성은 다 어디 가고 내 핏줄들을 수출한단 말인가?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공자의 도덕은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닌 '정치'를 위한 도덕, '남성'을 위한 도덕, '어른'을 위한 도덕,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 '주검'을 위한 도덕이었다. 때문에 공자의 도덕을 딛고 선 유교 문화는 정치적 기만과 위선, 남성적 우월, 젊음의 창의성 말살, 주검 숭배가 낳은 우울함 등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유교 문화는 조선 왕실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어 사농공상의 신분사회, 토론 부재를 낳은 가부장 의식, 위선을 부추기는 군자의 논리, 끼리끼리의 협잡을 부르는 할연적 폐쇄성과 그로 인한 분열, 여성 차별을 부른 남성 우월 의식, 스승의 권위 강조로 인한 창의성 말살 등의 문제점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유교의 유효 기간은 이제 끝났다."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도 이미 오래 전에 유교의 옷을 벗어 던졌고, 일본도 100년 전에 벌써 유교의 망령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유교의 낡은 가치를 끌어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좀더 솔직해지고 밝은 세상으로 걸어나와 유교적 허세 문화와 장치적 허세에서 벗어나자고 외친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부분을 따끔하게 잘 꼬집어 낸 이 책은 우선 제목부터 속을 후련하게 한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처음의 그 신선함이 답답함으로 바뀐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서 어떠라는 말인가? 명확한 해답이나 대안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새로운 문제 제기를 통해 고인 물 같은 사람들의 의식 한 부분이나마 자극하고 건드렸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❶ 원효 - 한국 사상의 새벽 — 고영섭 지음 / A5 292쪽 / 한길사 / 값 9,000원
❷ 나옹 스님 어록 — 무비 역주 / A5신 양장 310쪽 / 민족사 / 값 9,500원
❸ 천태 대사 - 그 생애와 사상 — A5신 266쪽 / 영산법화사 출판부 / 값 6,000원
❹ 고려 백운 어록 — 안법산 편역 / A5신 양장 304쪽 / 영암사 / 값 8,000원
❺ 조주록 — 백련선서간행회 번역 / A5신 310쪽 / 장경각 / 값 5,000원
❻ 일연 — 고운지 지음, 양진 사진 / A5 284쪽 / 한길사 / 값 8,000원
❼ 방거사 어록 — 이리야 요시타카 주해, 양기봉 옮김 / A5신 양장 306쪽 / 김영사 / 값 8,500원
❽ 평상심이 도라 이르지 말라 - 용성 큰스님 어록 — 동산 찬집, 동봉 풀이 / A5신 양장 656쪽 / 불광 / 값 25,000원
❾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 탄허 큰스님 법어 — 탄허불교문화재단 어록 편찬실 편 / A5신 276쪽 / 교림 / 값 7,000원
❿ 효봉 선사 일대기 — 김용억 지음 / A5신 244쪽 / 불일출판사 / 값 6,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 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통신판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8,000원 이상은 무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

